

제1회

싱글맘의 날

국제 컨퍼런스

가족의 재정의:
입양을 넘어
싱글맘 가족
권리 보호로!

· 일시 2011. 5.11(수) 08:30~17:00 · 장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

**가족의 재정의:
입양을 넘어 싱글맘
가족 권리 보호로!**

일시 2011_05_11_수요일
08:30~17:00
장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

◆ 목차 ◆

환영사	김도현	뿌리의집 원장	07
개회사	제인 정 트렌카	TRACK 대표	13
격려사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17
	조형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19
세션 1	국내·해외 입양에 관한 공식입장 : 어제와 오늘		
	낸시 토클라	의사, 미국 국내입양인	23
	탁연택	前 대한사회복지회 회장	36
세션 2	당사자들의 목소리 I : 아이를 입양보낸 엄마들의 이야기		
	노금주	'민들레' 부모회 대표	49
	김현옥(가명)	'민들레' 부모회 회원	52
세션 3	당사자들의 목소리 II : 국내·해외 입양인들의 이야기		
	예스 에릭슨	덴마크 입양인	57
	알리스 미애 김	네덜란드 입양인	58
	탐스 미리암 계연	네덜란드 입양인	60
	낸시 토클라	미국 국내입양인	61
세션 4	당사자들의 목소리 III : 아이 양육을 결정한 미혼모들의 이야기		
	감은남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회원	79
	최형숙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외협력팀장	81
	아카이시 치에코	일본 싱글맘포럼 비혼모회 대표	83
	아키요시 하루코	일본 싱글맘포럼 비혼모회 회원	92
	손야 벅달	미국 오리건주 콘코디아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94
세션 5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응답		
	임애덕	제주도 미혼모의 집 '애서원' 원장	99
	박은성	인천 부자보호시설 '아담채' 원장	102
	최병옥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신경과 전문의	106
	김혜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정책센터 센터장	114

부록

환영사

김도현

뿌리의집 원장

환영사

김도현

뿌리의집 원장

안녕하십니까? 해외입양인센터 <뿌리의집>의 살림을 맡고 있는 김도현 목사입니다.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1회 싱글맘의 날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실 정부가 제6회 입양의 날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싱글맘의 날 행사의 주최측인 저희들은 처음부터 생각이 달랐습니다. 입양하는 가족을 중심으로 바라볼 때는 입양이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어디까지나 입양은 가족의 결별에 기초해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사회가 보다 근본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가족이 결별의 위기에 내어몰려서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입양보낼 수밖에 없는 가정들입니다. 아시다시피 국내외 입양아동의 90%가 미혼모의 아동, 그러니까 싱글맘의 아동입니다. 그리고 싱글맘과 그 자녀도 하나의 단위가족입니다. 이 단위가족의 결별 위기에 우리가 연대할 수 없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기리기보다는 싱글맘들에게 힘이 되어 주고, 저들이 헤어지지 않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뜻에서 오늘 ‘입양을 넘어 싱글맘 가족 보호로!’ 라는 주제의 국제컨퍼런스와 기념행사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 초대하는 뜻을 담은 작은 이야기 두 편을 하는 것으로 저의 환영사를 대신하고 싶습니다.

저는 입양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를 오늘 이 자리로 이끈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윤 앵겔입니다. 지윤이는 1993년 6월 23살의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는 생의 막다른 골목에 내어 몰렸던 다수의 한국 사람들이 한강에 몸을 던졌던 것처럼, 라인 강에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지윤은 단 한 줄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내 친어머니를 만나러 나는 이 길을 떠납니다>라고. 지윤의 죽음은 당시 스위스개혁신교회의 목사로 일하던 저를 오늘 제가 살고 있는 이 길로 인도했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온



사진은 지윤이 생전에 편집해서 발간한 책의 표지입니다. 이 책 속에는 입양이 지윤에게 무엇을 의미했는지에 대한 아주 유려하고 감동적인 글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사실 지윤이를 생전에 만나지 못했고, 이 책 속에 있는 그녀의 글을 통해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이 책의 표지는 그녀의 삶에는 뿌리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별이 있었고, Amputation(생체절단)과 같은 것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결별의 위기를 이겨낸 사람에 관한 오래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한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의 어머니에게는 처녀 시절에 사랑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또 둘이 결혼을 약속하고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주선으로, 특히 아버지의 주선으로 일찍부터 이들은 서로 결혼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이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 당시의 관습으로서는 함께 살림을 차려 사는 일과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는 일이 시작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이미 결혼이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어머니는 어느 날 털썩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잠자리도 같이 한 적이 없는데....임신이라니? 두 당사자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제3자에 의한 임신이었던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혼란과 번민과 고통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태중에 아기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임신을 중절시키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엄마를 죽임으로써만 그 제3자의 아기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청년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는 분노했고, 연인의 배신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에게는 남성으로서의 권력이 있었습니다. 온 가족과 온 동네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공개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이자 자기를 배신한 여인을 마을 한가운데로 데리고 나와 돌로 쳐서 죽일 권리가 있었고 동시에 그것은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소위 자신과 가문과 그 사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녀를 죽일 수 있는 명예살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의 아버지는 여러 날의 깊은 번민 끝에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태중에 있는 낯선 이로부터 온 아기의 생명을 마치 자기 아이인 것처럼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비행을 발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가에 상관없이 그 아이 역시 한 생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어떤 일로 해서 먼 도시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만삭이었던 여인은 여행지였던 한 마을에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이 청년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동생들을 낳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이 아직 소년이었을 때,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청년은 홀어머니와 많은 동생들과 함께 성장했고, 후에 인류 역사에 깊은 감명을 끼친 인류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예수였고, 엄마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결혼 전에 임신을 했었다는 점에서 미혼모였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연인을 배반한 여인이었고, 당시 사회의 규범을 무너뜨린 매우 질 나쁜 여인이었다고 손가락질 받을 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연인이었던 요셉은 그녀를 보호했고, 그녀는 생물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와 요셉은 아이를 몰래 낳아 입양을 보내고 결혼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미혼모라는 이유 때문에, 어떤 부당한 일도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마리아는 후에 남편 요셉과의 사별로 싱글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키우느라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헤어지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요셉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적 편견보다 훨씬 거친 환경에서도 자기 태중에 깃든 생명의 출생을 환영하고 키워갈 수 있는 생의 여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영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입양을 넘어 싱글맘 가족 보호로!’ 라는 주제를 내걸고 여는 이 국제 컨퍼런스의 환영사를 대신해서 이 영감어린 이야기, 2000년 전의 마리아와 요셉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영감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사회의 싱글맘들과 미혼모들의 곤경에 대해서 우리가 요셉이 되는 길을 모색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되라는 부름!

여기 9년 동안 스위스에서 살면서 각별한 우정을 나누었던 제 친구, 인도 카톨릭 신학자 마니 메주카날이라는 분이 제게 준 송별선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마리아상은 종교적 기록의 상징으로서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지 않고, 고단한 삶의



▲ 아기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

여정 중에도 자신의 아이를 키워가는 이 땅의 양육미혼모들을 생각나게 하는 작은
조각상으로 제 책상 위에 놓여있습니다.

개회사

제인 정 트렌카

TRACK 대표

개회사

제인 정 트렌카
TRACK 대표

안녕하세요. 저는 제인 정 트렌카이며 미국입양인입니다. TRACK의 대표로서 제 1회 싱글맘의 날 기념 국제 컨퍼런스에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제정한 5월 11일 ‘입양의 날’에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두 가지를 성취하고자 합니다. 첫째, 싱글맘 가족에 대한 인식과 ‘입양-싱글맘’ 간 연관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현재 입양 보내지는 아동의 약 90%가 미혼모들의 자녀들입니다.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식이 높아진다면, 한국정부가 아이들을 국내 혹은 해외로 입양보내는 대신에, 아이들이 그들이 태어난 가족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의미있고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혼모에 대한 차별은 한국의 가부장제를 반영합니다. 2010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세계 성별격차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34개국 중에 104위에 머물렀고, 아랍에미리트(103위)와 쿠웨이트(105위) 사이에 위치했습니다. 성차별과 미혼모 가족에 대한 개인적, 제도적 차별은 가족의 분리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이슈를 사회적 차원에서 심각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입양과 싱글부/모에 관한 정책에 영향을 받은 당사자들이 중심에 서도록 할 것입니다. 입양인들, 자신들의 자녀를 기르고 있는 싱글맘들, 입양으로 인해 아이를 잃었던 부모들은 그들 고유의 경험을 지닌 전문가들이며, 그렇게 간주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입장의 당사자들을 초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이 컨퍼런스에는 미혼부들과 한국의 국내입양인이 자리하지 않았습니다. 자, 왜 자녀를 기르는 미혼부는 거의 없는 것인지, 누구나 국내입양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왜 국내입양인 커뮤니티가 없는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한국에는 입양에 대한 낙인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입양에 대한 낙인을 없애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6년 전 ‘입양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입양의 날’은 수치만 따져보아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2010년의 국내입양 아동 수는 1,462명으로 2005년의 1,461명보다 한명 더 증가했습니다.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려는 또 다른 노력을 언급하자면, 2010 UN CRC 한국 보고서에 나타나듯이 “입양은 또 하나의 출생”이라는 담론이 대중들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그러나 입양은 ‘출생’이 아닙니다. 입양은 ‘입양’일 뿐입니다. ‘입양’이라는 단어는 그 이점, 결점을 내포하는 고유의 용어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컨퍼런스가 당사자들의 관점을 통해, 입양에 대한 환상과 대조적인 입양의 현실을 일부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입양의 현실은 아동과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여, 입양을 줄이기 위한 해결책은 돌봄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책임 모두를 장려하면서 이미 자신의 아기를 낳은 어머니들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번 컨퍼런스가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당사자들과 더불어 관련 전문가, 학자, 정책결정자들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양정책과 싱글맘 정책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왔던 사람들의 진실한 증언을 귀기울여 듣고, 가족분리에 취약한 가족들의 요구에 사회가 적절히 응답하도록 촉구하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사회복지체계는 잘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분리에 취약한 가족들이 많습니다. 한국 NGO들이 작성한 2010 UN CRC NGO 대안 레포트에 따르면, 2008년에 정부는 사회복지비용으로 아동 한 명당 8,800원을 배정했고, 아동과 가족을 위한 예산은 국가 예산의 1.7%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잘 할 수 있고, 더 잘 해야만 합니다.

TRACK을 대표하여, 오늘 컨퍼런스에 자리한 참석자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사가 가능토록 도움을 주셨던 후원자들과 자원활동가들에게도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컨퍼런스와 더불어 미혼모 가족을 위한 선물전달식, 기자회견, 생일케이크 나누기 이벤트 등 이 모든 것은 다양한 나라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너그러움으로 인해 가능했습니다.

한국, 일본 그리고 전 세계의 싱글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정말 멋지고 훌륭한 여성들입니다!!! 이 날을 여러분들과 함께 기념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모두가 살만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격려사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조 형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격려사 1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반갑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최영희 의원입니다. 정취있는 미술관 안뜰에서 산뜻한 봄바람을 맞으며 여러분과 함께 <입양특례법 개정 촉구 및 다큐영화 “회복의 길” 상영회>를 가진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입양인 여러분과 한국미혼모가족협회가 함께 공동작업으로 국회에서 전시회도 열었고, 입양법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며, 헤이그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결의안도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모두 여러분께서 열정을 가지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제6회 ‘입양의 날’ 에 <제1회 ‘싱글맘의 날’ 기념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것도 그간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임을 자랑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해 1,300명의 우리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보내는 ‘아동수출대국’의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90%가 미혼모의 자녀라는 점에서, 오늘 이 자리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에티오피아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아이들을 미국으로 입양보내는 ‘아동수출대국’이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회에 공론화 시키고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실, ‘싱글맘의 날’ 이라고 하는 것조차 우리 사회의 아픈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남자와 여자가 낳았는데, 왜 남자는 얼굴없는 아빠로 모든 부양의 의무를 엄마에게만 떠맡기고, 엄마는 사회의 따가운 시선 속에 입양을 선택하거나, 큰 희생을 감내해야만 할까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생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제입양은 아동의 위탁양육자나 입양가족에 두어질 수 없거나 또는 어떠한 적절한 방법으로도 출신국에서 양육되어질 수 없는 경우 아동 양육의 대체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친부모에 의해 양육받을 권리와 출생국 내에서 아동보호 조치를 선행하도록 하고, 해외입양은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헤이그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었던 「입양특례법 개정안」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는 우리나라 아동의 국내보호를 위해 해외입양을 금지하도록 하고, 해외입양의 90%가 미혼모의 아동이라는 점에서 그때까지 국가가 자국아동의 국내보호를 위해 미혼모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은 해외입양을 보낼만큼 가난한 나라가 아니지 않느냐”며 의아해 합니다. 정부는 난임부부에게는 시술지원을 하면서 출산과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에 대한 지원에는 인색하며, 낙태는 금지시키면서도 정작 태어난 아이는 해외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동이 원가정에서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입양인, 입양을 위해 아이를 포기한 친모, 그리고 양육을 결정한 미혼모 등 당사자들이 직접 나와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곧 그것은 2011년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소중히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공허한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사회적 메아리가 되어,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는 데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으로, 그리고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모든 것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격려사 2

조 형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여기 오는 길 내내 착잡한 마음이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저는 7살이었습니다.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전쟁고아가 되어 해외로 입양가는 모습을 목격한 한 사람으로서, 아직까지도 해외입양이 지속되고 있는데 저는 그동안 성장하고 사회적으로 활동하면서 이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지난 60여년 동안 정부가 계속적으로 해외입양을 적극 장려하다가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정한 것을 ‘싱글맘의 날’로 전격적으로 전환하는 이 역발상에 대해 가슴이 뻘뻘하며 놀라울 따름입니다.

처음에 또래들이 입양갈 때는 이별이 슬프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저 아이들은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리라는 희망이 있어서 한편으로 마음이 든든했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에 처음으로 한두명의 해외입양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이 사람들을 너무 잊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으로 돌아온 입양인들이 그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무관심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서 낙인찍히고 배제당하고 차별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가슴 아팠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횡포는 결국 그것을 자행하고 묵인하는 가부장적이고 배타적이며 권위적인 사회적 권력 때문이며, 그것이 해외입양인들을 한없이 작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 전혀 개입하지 못했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미안하며 사과를 드립니다.

이제 해외입양인들이 자신들의 문제, 자신들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앞으로의 변화를 향해서 우리 사회에 새로운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어머니가 핏덩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싱글맘이 당당하게 가장으로서, 자기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영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용감한 발언이고 용기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입양과 미혼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길 바랍니다.

오늘 행사는 다시는 미혼 출산이 비극적인 사건이 되지 않는 사회, 비자발적인 입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사회가 되기 위해 내걸는 큰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오늘 하루에 그치지 않고 이 힘을 받아서 여러분의 노력이 지속되길 바라며, 이제는 저도 거기에 한 몫을 해보려고 합니다.

10년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여성재단은 작년에서야 비로소 미혼모 관련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국내에서 모금을 하기가 어려워 한국에서 딸을 입양했던 미국의 리처드 보아스 박사의 후원으로 시작했습니다. 리처드 보아스 박사는 딸을 입양한 후, 한국에서 어머니들이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버려지고 해외로 입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미혼모를 지원하는 일에 적극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입양에 대한 국제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거기에서 한국 미혼모들의 갓난아기들이 인기 품목처럼 비취지는 것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픈 적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한국여성재단도 계속해서 미혼모들이 자선의 대상이 아닌 그들 스스로가 힘을 가지고 힘을 받아서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동료들을 보호하고, 동시에 사회를 바꿔나가는 동력을 갖는 집단이 되길 바라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국제 컨퍼런스를 준비하신 여러분들, 발표하실 분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그리고 당사자 여러분들께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세션 1

국내·해외 입양에 관한
공식입장 : 어제와 오늘

낸시 토클라

의사, 미국 국내입양인

탁연택

前 대한사회복지회 회장

낸시 토클라
의사, 미국 국내입양인

낸시 스미스 토클라 박사는 미국 국내입양인으로 핀란드계 미국인과 35년 전 결혼하여 4명의 자녀를 양육했고(나이 16~24세) 30년간 전문경력여성으로 살고 있다. 그녀는 불임부부를 비롯하여 한국과 영국에 있는 입양부모나 그 자녀를 돕고 있다.

토클라 박사는 대학에서 레디오로직 기술(Radiologic technology)을 공부했고 Pomona University에서 생물학 학사를 받았다. 그 후 그녀는 터키 공공보건기관에서 2년간 자원봉사를 했고 미국 메릴랜드에 있는 국가보건연구원에서 2년간 일했다. 그 후 그녀는 미국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의학 박사, 벨기에 Vrije Universiteit Brussel에서 의약학 석사, 미국 University Hospitals of Cleveland에서 해부병리학 인턴십자격, 네덜란드 Rijksuniversiteit Groningen에서 국제인도주의행동유럽연합에 대한 문학 석사를 받았다.

지난 10년간 그녀는 정부와 비정부기구에서 일했다. 1)강사, University of Maryland European Division에서 수학, 통계학, 자연과학, 컴퓨터를 가르침; 2)가족연락관, 네덜란드에서 미국법무부와 계약으로 the Lockerbie/Pan Am 103 폭격 희생자 재판 지원; 3)공공보건상담원과 국가 HIV/AIDS 간사, World Vision 몽고지점; 4)국제상담원, World Vision International; 5)여성과 아동상황 분석을 위한 팀간사, UNICEF-몽고; 6)방문교수, 몽고대학교 보건학과 생의학윤리 담당; 7)인권학 강사, 몽고정책아카데미; 8) ‘인구, 개발, 인권, 재생산 보건’에 관한 국제상담원, 몽고 NGO 네트워크; 9)런던 Millennium Three Group 회원; 10)유럽위원회 Marie Curie Fellow. 또한 토클라 박사는 지역과 국제 워크숍, 세미나 컨퍼런스에 대표와 강사로 나서서 인권, 개발, 보건, 빈곤관련질병(특별히 HIV/AIDS)에 대해 논의했다. 그녀는 Habitat for Humanity and Youth Compassion 지원을 받은 건설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자원활동을 했다. 이 프로젝트는 3대륙 21개국에서 진행되었다(아프리카의 남아공, 아시아의 캄보디아, 일본, 한국, 몽고, 스리랑카, 태국, 유럽의 벨기에, 크로아티아,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조지아 공화국, 아일랜드, 루마니아, 러시아, 스페인, 터키, 영국).

서론

이 글의 목적은 여성과 아동문제에 관련된 국제법과 개발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가능한 해답을 찾는 논리적 구조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은 1) 해외입양 Q & A, 2) 가족과 개발에 관한 상호작용: 복잡성과 스트레스요인, 3) 국제법 입문, 4) 개발, 성, 불평등, 권한에 관한 입문, 5) 결론: 참여, 책임, 의무, 이렇게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Part 1: 해외입양 Q & A

제1회 ‘싱글맘의 날’ 기념 국제 컨퍼런스 준비위원회는 해외입양정책과 그 절차와 관련하여 여섯 개 핵심 질문을 검토하였고 생모와 그 자녀들에 관한 시나리오에 기초해 일곱 번째 질문을 떠올렸다.

오늘 제기된 질문들에 대해 답변할 의무를 가진 여러 그룹들이 있다. 그 그룹들은 1) 국내 · 외 입양정책 결정자들과 입양정책, 절차, 실행에 연루된 실무자,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복지담당자, 3) 국내 · 외 입양기관, 4) 입양송출국의 업무담당 영사관 5) 입양수용국의 이민국 관료다.

그러나 오늘은 이러한 질문과 대답을 컨퍼런스에 참여한 모든 발표자, 토론자, 청중들에게 물어야 한다.

질문 1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입양 정책과 절차를 검토할 때, 헤이그 협약 입양과 비-헤이그 협약 입양의 차이가 무엇인가?

답변 1

질문 2 헤이그 협약에서 정의했듯이 공식적 보고의무를 고려할 때, 입양수용국이 입양송출국에서 보내온 보고서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책임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답변 2

질문 3 만약 한국이 헤이그 협약 비준국이 된다면 한국입양아를 받는 국가가 한국의 공식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입양관련서류에 대한 정책이 바뀔 것인가?

답변 3

질문 4 만약 한국이 헤이그 협약 비준국이 된다면 한국입양아를 받는 국가가 한국의 민간입양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입양관련서류에 대한 정책이 바뀔 것인가?

답변 4

질문 5

진술 해외입양 후, 아동은 궁극적으로 입양된 국가의 시민이 된다.

질문 입양아를 받는 국가의 외교부와 해외공관에서 입양아를 보내는 국가의 생모가 제기하는 정책과 실행에 대한 불만을 조사할 것인가?

답변 5

질문 6

진술 미국국무부 웹사이트에는 "미국은 현재 캄보디아와 과테말라로부터 입양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질문 미국이 캄보디아, 과테말라에서 입양을 받지 않기로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 입양송출국인 캄보디아와 과테말라의 생부모 역할이 어떠했기에 미국은 이 두 나라에 대한 입양정책을 바꾸게 되었나? 미국 양부모의 역할이 어떠했기에 미국은 이 두 나라에 대한 입양정책을 바꾸게 되었나?

답변 6

질문 7

시나리오 입양수용국의 시민인 ‘Mr. Y’ 는 성인이 된 남성 해외입양인으로 늙은 친모 ‘Miss X’ 를 찾았다. 이 친모는 더 이상 자신을 입양송출국의 시민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입양수용국의 이민제도는 입양송출국의 생모가 입양수용국으로 이민 와서 아들과 함께 살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Mr. Y’ 는 입양된 나라에서 결혼했고, 배우자와 함께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있으며, 자녀들도 Y가 입양된

나라의 시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Mr. Y’ 는 생모를 부양하기 위해 자신의 출생국으로 가서 살거나 일할 형편이 안 된다. 이 아들은 생모에게 송금은 할 수 있지만, 생모를 위해 송금 이상의 일을 하고 싶어한다. 생모도 손주들과 더 가까이 지내고 싶어한다.

질문 해외입양 후 수십년이 지난 후 비로소 재회한 이러한 가족의 분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양송출국의 외교부는 입양수용국의 이민국과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답변 7

질문 8 컨퍼런스의 발표자들은 어떤 질문을 택할 것인가?

답변 8 발표자들은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질문 9 컨퍼런스의 청중들은 어떤 질문을 선택할 것인가?

답변 9 청중들은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Part 2: 발전과 가족의 상호 작용: 복잡함과 스트레스 요인

신생아들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아래와 같은 선택을 해야 한다: 1) 양부모에 의해 키워진다, 2) 한부모에 의해 키워진다, 3) 부모한쪽 가족에 의해 키워진다, 4) 입양되기 전 고아원에서 키워진다- 국내·외 입양가정이나 국내 위탁가정으로 가기 전 공공/민간 보호시설에서 키워진다. 어느 사회에서든 낙인은 누구에게나 해롭다. 특히 이 낙인이 미혼임신여성, 미혼부모 및 그 자녀, 혹은 입양인들에 대한 것일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한국은 2009년 ‘OECD 3차 세계포럼’ 을 개최했고, 2010년 11월 ‘G20 정상회담’ 을 개최했으며, 금년 11~12월 중 OECD개발원조위원회(DAC) 주최로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포럼’ 을 개최한다. 이 포럼에서는 어느 공적개발원조(ODA)가 개발도상국의 좋은 정책과 실천에 도움이 될 지 평가한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선진국이자 원조국으로 인정받는다. 더불어 지난 20여년간 진보적 추세에 따라 한국정부는 국내입양을 권장하고 해외입양을 점차 줄이고 있다. 국내·외 입양기관은 이런 한국정부의 입양정책에 찬반을 표시한다. 한국은 잠재적인 입양수용국으로, 불임부부들이 이런 정책에 찬반을 표한다.

입양에 관한 법, 정책, 실천은 입양관련 이해당사자 간에 복잡한 상호영향을 초래한다. 이 이해당사자는 개인, 가족, 기관을 망라한다. 이러한 상호영향은 경제, 환경, 정치, 사회, 교육, 보건부문을 넘어서 종합적으로 일어난다. 게다가 이 상호작용 과정에 물리적, 심리적, 감정적, 영적,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복잡성과 스트레스 요인은 공적 및 사적 영역의 이해당사자들간의 의사소통, 협조, 조화를 억제하거나 용이하게 한다.

Part 3: 국제법 입문

오늘 컨퍼런스가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한국에서 개최된 것은 국제적 사건이다. 한국전쟁과 그 후 일어난 인권문제를 고려하면, 이 회의의 참석자들은 국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을 것이다.

국제법은 조약, 협정, 계약, 의정서로 불리며 동의에 기초하고 있다. 각 조약은 ‘서문’으로 시작하여 부분, 장, 절 등으로 구성되며 번호가 있을 것이다. 국가는 공식문서에 서명(정부대리인)하고 비준(국가원수)함으로써 ‘당사국’이 된다. 그러나 이 동의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이 문서는 몇몇 국가들의 서명과 비준단계가 필요하다. ‘효력발휘’는 조약이 법적으로, 정부의 정치적 의지 강약에 따라, 구속력과 집행력이 있음을 뜻한다. 조약이 집행된 후 다른 국가들도 후속 ‘승인’ 서명 절차를 거쳐 당사국이 될 수 있다. 조약 ‘당사국’으로서 국가들은 동의된 조약 내용을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 행위를 한 것이고 위반국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다. ‘선언’은 ‘조약’이 아니다. ‘선언’은 강제할 수 없는 진술이고, ‘조약’은 강제할 수 있는 진술이다.

국제법은 국제공법과 국제사법으로 분리되어 있다.

국제공법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포함한다. 기술발전에 의해 전쟁의 참상은 심화되었고, **국제인도법**은 국내외적 무장충돌을 다룬다. ‘세계인권선언’ 서문(UDHR, 1948)은 "인간 고유의 존엄성과 평등,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한다." 세계인권선언으로부터 나온 **국제인권법**은 인간과 인권보호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적시한다. 모든 ‘권리’에는 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 또는 ‘의무’가 따른다. 각 개인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¹⁾

1) 출처 <http://www.un.org/en/documents/udhr/index.shtml>

국제공법 내 국제인도법은 헤이그 협정과 제네바 조약을 포함한다. 1899년과 1907년 헤이그 협정은 국제평화회의와 관련이 있으며 전쟁무기의 비인간화를 지적하고 그 제약을 두고 있다. 그리고, 제네바조약과 그 부속의정서는 150년에 걸쳐서 쓰여졌고 무력전에서 인간생명보호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다. 첫 제네바조약(1864)은 지상전에서 부상자와 병자인권문제를 언급했다. 2차 제네바 조약(1906년, 1929년)은 해전에서 부상자, 병자, 난파자 문제를 언급했다. 3차 제네바 조약(1929)은 전쟁 포로의 인권을 언급했다. 4차 제네바조약(1949)은 민간인 인권을 명시했다. 1949년에는 네 번째 제네바조약의 원리가 강화되었고 이것은 공통2조항에 연결되어 있고 국제지상전 문제를 명시하고 있으며, 공통3항을 통해서 국내지상전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민족자결권을 위한 국내전과 가능한 분리). 무장충돌로부터 희생자보호 관련하여 유엔총회는 세가지 추가의정서를 받아들였다. 장문의 추가의정서 I(1977년)은 국제무력충돌을 언급하였다. 짧은 추가의정서 II(1977년)는 국내무력충돌을 언급하였다. 간략한 추가의정서 III(2005년)은 인도주의 지원기관들(예를 들면, 적십자, 적신월사, 적다이몬드) 특유의 무늬를 명시하였다. 추가의정서 I은 더 구체적으로 다음사항을 고려하였다. 1) 민간방위관련(예, 화재와 기기수리), 2) 민군 의료, 종교, 구조, 언론인력보호, 3) 의료실험 등 비인간적 행위 제약, 4) 여성, 임산부, 아동 보호, 5) 이산가족의 재회, 6) 진실위 설립.²⁾

국제공법 내 국제인권법은 ‘세대’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개념은 1977년 작성되었다. 이러한 세대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제1세대 인권(시민, 정치), 2) 제2세대 인권(경제, 사회, 문화), 3) 제3세대 인권(통신, 다문화간 유산, 개발, 환경자원, 지속가능성, 단체 및 그룹) 4) 제4세대 인권(지적재산과 지식격차). 국제인권법에서 두 개의 주요 조약은 "쌍둥이 협약"으로 불린다.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은 1966년 12월에 채택되었고 1976년 3월부터 집행되었다. 이 협약은 제1세대 인권으로, ‘부정적 권리’로 규정된다. 시민적 · 정치적 권리는 정부의 억압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한다. 정부는 ‘부정적’ 행동을 시민에게 가해선 안 된다. 시민적 · 정치적 권리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18조), ‘표현의 자유’ (19조), ‘평화집회의 자유’ (21조), ‘타인과 단체결사의 자유’ (22조)를 중요시 한다.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24항은 이렇게 주장한다. "모든 아동은 출산 후 즉각 등록될 것이며 이름을 가져야 한다." , "모든 아동은 국적취득 권리가 있다."

2) 출처 <http://www.icrc.org> * ICRC = 국제적십자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은 1966년 12월에 채택되었고 1976년 1월부터 집행되었다. 이 협약은 제2세대 인권에 관한 것으로 ‘긍정적 권리’로 칭해진다.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는 삶의 질을 높이므로 ‘긍정적’ 기회이다. 정부는 이런 권리가 시민들에게 가능하도록 해 줄 의무가 있다.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는 ‘궁핍과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다. 예를 들면, "모든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를 누리는 데 있어서 남녀는 동등한 권리가 있다"(3조), "직장 선택의 권리"(6조), "쾌적한 직장 근로조건 향유의 권리"(7조), "개인과 가족을 위한 적절한 생활수준의 권리"(11조), "신체적 정신적 건강 보장"(12조), "문화생활 참여의 권리"(15조) 등이 있다.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0조는 "가족은 자연적이고 근본적인 사회단위로 최대한 보호되고 지원받아야 한다. 특히 아동을 돌보고 교육시킬 동안에는 가족 안정성을 위해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집행되기 전후에 유엔총회는 몇십건의 더 집중되고 세세한 협약을 채택했고 회원국들은 이 협약에 서명, 비준하거나 또는 응답했다.³⁾

국제사법은 헤이그 컨퍼런스와 그에 상응하는 협정을 포함한다. 1893년,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HCCH)는 세계 여러 국가들의 "다른 법적 전통의 용광로"를 다루기 위해 시작되었다. 헤이그 국제사법회의는 민간부문과 상업 분야에서 국가간 협력 체제를 모색하기 위해 만든 국제기구다.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회원국가는 여러 국가의 다양한 법적 제도간 다리를 놓아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노력해 왔다.

국제사법은 세 분야가 있고 각 분야별로 ‘헤이그 협약’을 아래와 같이 비준했다.⁴⁾

1) 아동, 가족, 재산과 관련한 국제보호

협정 : 국제아동보호

유지 의무-아동 (적용할 수 있는 법) (1956)

유지 의무-아동 (시행) (1958)

3) 출처 <http://www2.ohchr.org/english/law/iccpr.htm>;

<http://www2.ohchr.org/english/law/icescr.htm>

*OHCHR = 유엔인권고등판무관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4) 출처 <http://www.hcch.net>

약자 보호 (1961)
입양 (1965)
아동 유괴 (1980)
입양 협력 (1993)
아동 보호 (1996)

협정 : 성인국제보호
성인 보호 (2000)

협정 : 전 배우자들 사이의 관계
이혼 (1970)
유지 의무 (적용할 수 있는 법)
유지 의무 (시행) (1973)
결혼 (1978)
결혼에 따른 재산권 (1978)
유지 의정서 (2007)
유지 회복 (2007)

2) 국제법적 협력과 소송

- A) 국제사법과 행정 협조 (입법, 법률 서비스, 증거채택, 정의 확보, 민사소송법)
- B) 판결의 사법권 및 집행 (법정의 선택, 판결의 집행, 법정 동의의 선택)

3) 국제 상업 · 재정법 (계약, 불법행위, 증권, 신탁, 회사승인)

오늘 개최되는 싱글맘의 날 기념 국제 컨퍼런스와 연관된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세 가지 협약은 다음과 같다.

1965년 : ‘사법권에 대한 헤이그 협약, 입양에 관한 적용법과 인식법령’
(1965년 11월 15일)

1980년 : ‘국제아동 유괴의 민사적 측면에 대한 헤이그 협약’ (1980년 10월 25일)

1993년 :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보호 및 협력에 대한 헤이그 협약’
(1993년 5월 29일/ 2007년 12월 12일 미국비준)

Part 4: 개발, 성 불평등, 권한에 관한 입문

사회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 국가, 대륙, 국제 수준으로 다중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더욱이, 사회는 공적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분리되어 있다. 공적부문에서는 사회를 정부간(유엔), 지역간(아프리카연합, 유럽연합, 동남아국가연합), 중앙정부, 지방정부 수준에서 규정한다.

민간부문에서 시민사회는 가족과 정부 사이의 독립적 영역으로 정의된다. 권위의 정권은 시민사회 조직을 허가하지 않거나 강력하게 통제한다. 시민사회 조직은 이해집단, 클럽, 협회, 재단, 종교단체 등을 포함하여, 비정부기구로 등록된다. 민간부문은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으로 나뉜다.

정부간 기구로서 1차 대전 후에 국제연맹이 설립되었고 1920년 1월부터 1947년 4월까지 운영되었다. 2차 대전 후 미국에서 국제조직에 관한 유엔 컨퍼런스가 열렸고 1945년 6월 26일 유엔헌장이 서명됨으로써 유엔이 설립되었다. 그 후 1945년 10월 24일(유엔의 날) 유엔헌장이 상임안보리 5개국인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에 의해 비준되었다. 유엔헌장은 1) 총회, 2) 안보리, 3) 사무처, 4) 경제사회이사회, 5) 국제사법재판소, 6) 신탁통치이사회(1994년부터 활동중지), 이렇게 6개의 주요 기관을 갖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유엔총회에서 1948년 12월 10일(인권의 날) 채택되었다. 유엔에는 1) 유엔산하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1946년 12월 창립), 2) 세계보건기구(WHO, 1948년 4월 7일 창립, '세계보건의 날'), 3) 세계식량계획(1961년 설립), 4) 유엔개발계획(UNDP, 1965년 11월 창립), 5) 국제연합인구기금(UNFPA, 1967년 7월 창립, 생식건강, 산모 및 유아사망률 문제에 집중)과 같은 기관들이 있다.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정부 대표와 비정부 대표 모두를 받아들인다. 1946년, ECOSOC는 유엔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CSW)를 설립했다. 30년 후, 1976년 유엔은 '세계여성의 해'를 선포했고 이어서 독일에서 '세계 여성의 날을 위한 세계여성대회'가 열렸고, '제 1회 세계 여성의 날' 컨퍼런스가 멕시코에서 열렸다. 1976년 12월, 여성지위위원회의 30년 활동의 결과 '유엔여성개발기금 Development Fund for Women' (UNIEFEM)이 설립되었다. UN은 1976년부터 1985년을 "여성을 위한 유엔 10년(UN Decade for Women)"으로 선언했다. 1977년 3월 8일은 '제 1회 여성권리와 세계평화를 위한 UN의 날'이고 나중에 '세계 여성의 날'로 개정했다. 1980년, 2차 세계여성회의가 덴마크에서 열렸다. 1985년, 제3회 세계여성회의는 케냐에서 열렸다. 1995년 4차 대회는 중

국에서 열렸고 ‘베이징행동강령’의 12가지 핵심 목적과 그에 따른 이행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1) 여성과 빈곤, 2) 여성의 교육과 훈련, 3) 여성과 건강, 4) 여성에 대한 폭력, 5) 여성과 무력분쟁, 6) 여성과 경제, 7) 여성의 권한과 의사결정권, 8) 여권 신장을 위한 제도, 9) 여성인권, 10) 여성과 언론, 11) 여성과 환경, 12) 소녀. UN은 이러한 행동강령의 진전사항을 ‘베이징+5’, ‘베이징+10’, ‘베이징+15’와 같이 매 5년마다 점검한다. ‘베이징+15’는 2010년 3월 개최되었다.

국제인권법의 주요 진전사항으로 특별히 여성인권과 관련하여 1979년 유엔총회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제거하는 유엔 협정’(UN Convention on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을 채택했다. CEDAW는 여성의 생식권을 주장하고 가족관계에서 성의 역할을 결정짓는 전통과 문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협정은 조약이고 조약은 동의다. 협정은 위원회에 의해 모니터 된다. 그래서 CEDAW 협정(1979년 채택)은 CEDAW 위원회(1982년 설립)가 모니터 한다. 1979년부터 2007년까지 거의 30년간 CEDAW 위원회의 책임과 활동은 유엔사무처 내 경제사회국(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DESA)에 있었고, 이 경제사회국은 여성지위향상국(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DAW)의 주요유엔회의 후 후속조치를 책임진다. 2007년 1월 이래, 인권고등판무관실(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스위스 제네바 위치)은 CEDAW위원회의 책임과 활동을 점검한다.⁵⁾

2010년 7월, UN총회는 ‘여성평등과 권한에 관한 유엔기구(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약칭 유엔여성기구)’를 설립했고 2011년 1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유엔여성기구는 1) UNIFEM, 유엔여성개발기금(1976년 12월 설립), 2)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국제연구훈련원’(Internation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INSTRAW, 1979년 설립), 3) 여성문제특별보좌관실(Office of the Special Advisor on Gender Issues: OSAGI), 4) 여성지위향상국(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DAW)을 포함한다. OSAGI와 DAW는 둘 다 유엔 경제사회국(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DESA)에 있다.⁶⁾

유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은 1989년 비준되었고 1990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CRC 54조항 중 7, 8, 20, 21조는 중요하

5) 출처 <http://www.un.org/womenwatch/daw/cedaw>

6) 출처 <http://www.unwomen.org>

다. 7 조 1 절- "아동은 출산 후 즉각 등록되어야 하고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고, 국적취득권리가 있으며, 가급적 부모를 알고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8조 1절- "국가는 아동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 여기에는 불법적 간섭 없이 법적으로 아동의 국적, 이름, 가족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8 조 2절- "아동이 불법적으로 자신 정체성의 일부나 전부를 박탈당했을 때, 정부 당사자는 아동이 조속히 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 20조는 양육과 입양, 21조는 해외입양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⁷⁾

8개 새천년개발목표(The eight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는 2000년 유엔정상회의에서 설립되었다. 처음에 MDGs는 ‘밀레니엄 프로젝트(Millennium Project)’가 관리했는데, 2002년 UN사무처장이 위임했고 전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 교수이자 현 컬럼비아대 교수인 노벨상 수상자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가 지휘했다. 그러나 2007년부터 UNDP가 MDGs를 관리하기 시작했다.⁸⁾

8개 새천년개발목표는 아래와 같다:

1. 극도의 빈곤과 기아 근절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3. 양성평등의 증진 및 여성의 권리 강화
4. 아동 사망률 감소
5. 산모 건강 향상
6. HIV/AIDS, 말라리아와 기타질병 퇴치
7.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장
8. 개발을 위한 전지구적 협력 발전

8개 새천년개발목표는 상호간 교차관계를 유지한다. 새천년개발목표의 8개 항목 모두가 지속적으로 성취되지 않고서는, 하나의 항목이 온전히 성취될 수 없다. 각각의 MDG 목표의 성취도는 측정가능한 지표들로 점검된다. 비교를 위한 기준치들은 1990년에 도입된 이래 매년 측정되고 있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7) 출처 <http://www.ohchr.org/english/law/crc.htm>

8) 근거 <http://www.unmillenniumgoals/bkgd.shtml>;
<http://www.unmillenniumproject.org>;
<http://www.undp.org/mdg>;

Sachs, Jeffery D. (2005) *Investing in Development: Practical Plan to Achiev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UN Millennium Project Report to the UN Secretary-General, Earthscan, London

Index' (HDI)이다. HDI는 매년 유엔개발계획의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를 발간한다. 1990년 기본자료를 가지고 있고, 2000년에 MDGs가 수립되었고, MDG 목표달성의 마감년도는 2015년이다. 그러나 MDGs의 많은 목표는 '절반' 정도만 성취될 수 있다고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MDG 1의 경우 1990년에서 2015년까지 기아로 인해 고통 받는 인구비율 '절반' 감소, MDG 7의 경우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와 기본적 공중위생시설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인구비율의 '절반' 만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MDG 5에 관해서는 1990년에서 2015년 사이 산모 사망률을 75%만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MDGs 목표는 2015년까지 현실적으로 50~75%만 성취될 수 있을 것 같다.⁹⁾

2010 인간개발보고서(2010 Human Development Report)는 '불평등 지수를 적용한 인간개발지수(HDI)'를 소개했고, 이는 기존의 HDI를 세 차원- 1) 교육, 2) 수입, 3) 기대수명-에 따라 조정한다.

남녀평등지수(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GDI)는 남녀간 생활 수준의 격차를 반영한다. GDI는 교육, 수입, 기대수명의 세 차원에 있어서 남녀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는 한 국가에서 남녀사이의 기회 격차를 반영한다. GEM은 참여, 의사결정, 권력에 초점을 둔 세 차원으로 나뉜다. 1) 정치참여와 의사결정, 2) 경제참여와 의사결정, 3) 경제자원에 대한 결정권이 그것이다.

추가로, 2010년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는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GII)를 도입했고 그것은 남녀의 불평등을 1) 생식건강, 2) 여성권한, 3) 노동 참여 이렇게 세 차원으로 나누어 측정했다. GII에서 생식건강이 성불평등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소다. 세가지 GII 차원은 다섯 가지 GII 지표- 1) 청소년 출산율, 2) 모성사망률, 3)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적 성취, 4) 여성 국회의원 비율, 5) 경제활동 참여율-에 의해 평가되었다. GII 값의 범위는 0.00에서 1.00이다. 만약 남녀가 모든 지표에서 평등하면, GII 값은 0.00이다(0% 불평등, 100% 평등). 만약 남녀가 모든 지표에서 불평등하면, GII 값은 1.00이다(0% 평등, 100% 불평등).

2010년 10월, 이와 같은 UN 성별격차 측정척도와는 별개로, 세계경제포럼은 '세계양성평등지수(Global Gender Gap Index: GGI)'를 소개했다. UNDP의 GII

9) 출처 <http://hdr.udp.org/en/statistics>

가 성별 격차를 평가할 때 해당국가의 발전수준을 참작하는 반면 세계경제포럼의 GGI(세계성차별지수)는 그렇지 않다.¹⁰⁾

Part 5: 결론 - 참여, 책임, 의무

인터넷을 통해 우리는 수백 개의 유엔 자료에(유엔 조약전문, 유엔 각종위원회 보고서, 유엔기금년보고서, 유엔 조직들, 유엔 프로그램) 접속할 수 있다. 이러한 발행물을 통해 가정에서도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다. 이러한 문서들은 읽기에 흥미롭고 독자가 그 시야를 지역으로부터 국가, 세계수준으로 넓힐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정보는 독자가 자신의 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식과 이해를 갖도록 한다. 각 개인은 이렇게 독서를 통해 힘을 축적할 수 있다. 개인은 행동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개인이 취득한 정보의 힘은 자신을 수동적 관찰자에서 적극적 참여자로 변화시킨다. 적극적 참여는 문제 분석, 같은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적용가능한 행동계획의 준비와 실행,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포함한다. 종종 문제는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된 이슈들을 가로질러 발생한다. 그러므로 효과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각 개인들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능케 하는 상호작용의 참여과정에 기여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현상유지만 된다.

유엔이 인정한 것처럼 여성, 특히 임산부와 아동은 어느 사회에서나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다. 그래서 우리는 국내 · 외 입양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만약 이 문제에 관해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침묵을 지키지 않고 정보를 공유한다면, 정보를 들은 이들은 나서서 도움을 줘야 한다.

10) 출처 <http://hdr.udp.org/en/statistics>

탁연택

前 대한사회복지회 회장

1. 발표자의 입장

입양에 관한 ‘어제’ (1986년 이전)까지만 언급, 그 이후는 모른다. 대한사회복지회의 전신인 한국아동양호회(Child Placement Service)와 대한양연회(1971년)까지는 보건사회부장관이 회장을 위촉했기 때문에 입양에 관하여 어느 정도는 공식입장일 수 있다. 내 견해는 입양에 관한 실무를 통해 터득한 것이지 학술적인 것이 아니며, 지난 25년간 사회복지 현장과 단절된 상황에 있었기에 어눌한 점이 있을 것이다.

회장으로 임명된 대한사회복지회가 해외입양기관인 것에 크게 놀랐으며, 회장이 된 첫 해(1965년)부터 프로그램을 아동복지에서 가정복지, 농촌지역사회개발사업, 혼혈아 국내정착사업 등의 영역으로 정성들여 확장했었다.

2. 공식적인 해외입양의 효시는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1954년 1월 20일)

한국아동양호회를 보건사회부 부설사업으로 보건사회부 건물 내에 설립(홍옥순 씨, 민간인). 주로 전쟁고아, 소수의 혼혈아, 시설보호 아동을 해외가정에 입양.

- ◆ 1949년의 아동 보호시설수 : 153개 시설

이승만 대통령의 일민주의 사상과 혼혈아들의 해외입양 관련 일화

3. 박정희 대통령 정부의 아동복지 정책

어린이는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야 한다는 원칙

- ◆ 1961년의 아동보호시설 수 : 영아원 55개 시설, 육아원 503개 시설,
부랑아시설 36개 시설

한국아동양호회를 전국조직인 대한양연회로 개편(1961년 8월 29일). 본부(서울) 회장을 보사부장관이 민간인(백근칠씨)으로 위촉. 각 시·도 지부장을 각 시·도 보사국장이 겸임, 아동상담소 설치, 상담원을 공모. 당시 중앙신학교에 사회사업학과 있었음.

사업 내용 입양(주로 국내입양, 해외입양), 유료 가정위탁보호, 연장아동의 고용위탁 보호

- 문제점**
- ① 입양아동수를 정하여 시설보호아동을 가정으로 보내는 실적 위주의 입양사업 강행
 - ② 위탁양육비의 연도별 증액없는 정부예산 편성의 오류(1964년 종식)
 - ③ 지방 예산 집행상황 확인이 불가능, 위탁가정의 보호거부.
 - ④ 입양된 아동들의 가정 이탈 현상
 - ⑤ 보호시설장들의 강한 반발
 - ⑥ 본부 회장의 빈번한 갇질: 백근칠-1961년
한이윤(아동국장 겸임)-1963년 사망
신계영-1964년 해임, 불복.
배재조(보서부 사무관)-대행

시·도 지부 아동상담소의 폐지 1964년 말, 내무부 장관, 보건사회부 장관이 합의하여 대한양연회 지부로 설치한 전국 각 시·도 아동상담소를 폐지, 서울시 아동상담소 예외적으로 존속.

본부만 남은 대한양연회 회장으로 탁연택이, 회장 해임을 거부하던 신계영 회장의 후임으로 1965년 2월 15일 취임.

4. 입양(해외입양의 예)의 기본적 절차

우리 정부로부터 해외입양기관으로 승인받은 기관이 상대국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기관이 보내온 양부모의 가정조사서를 받고, 입양을 희망하는 아동에 관한 자세한 조사서와 사진 등을 보내 예비 양부모가 추천된 아동을 동의하면, 국내 입양기관은 관련 서류를 보사부에 제출, 승인을 얻어 법원의 판결을 받는다.



양부모의 자격요건 중 정식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부부인 경우(스웨덴 같은 예), 양부모의 연령이 50세가 넘는 경우, 보사부에 건의, 입양을 불허하였다.



입양된 아동에 대한 상대국 입양기관의 사후지도보고서를 받는다.



입양될 아동들은 일반 가정에 양육을 위탁하며, 자체 의료시설 또는 계약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5. 국내입양 실적에 따른 해외입양 아동수를 허가하는 쿼터제

양부모를 찾아주어야 할 보호아동의 수는 많은데 국내 양부모가 원하는, 갓난 여아, 영리해 보이고, 건강한 아기는 많지 않다. 해외에 입양을 기다리는 가정은 많은데, 쿼터제로 묶인 많은 아동을 보호하는 데 지출되는 비용은 커져가고, 양부모의 가정보다 열악한 위탁가정에서 자라는 아기들의 건강과 정서는 망가진다.

6.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에 대한 권면

국내든, 외국이든, 자기 아기를 낳을 수 없어 아기 갖기를 간절히 바라는 수많은 가정들이 있다. 지구상에는 모래알 같이 많은 불우한 어린이들이 있는데, 북유럽의 한 양어머니가 한 아기라도 입양하는 것이 아기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성장한 딸 둘을 둔 농촌의 부부가 어린 아들 둘을 동시에 입양했는데, 그 중 한 아들은 언어 장애가 있는데도 입양을 하여 잘 가꾸며 행복해하는 장면을 TV가 방영해 주었다.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아기들, 생계가 어려워 자녀를 부양할 수 없어 아기 부양을 포기하거나, 남의 대문 앞에 버리는 엄마, 최근에는 입양아 82%가 미혼모가 낳은 아기들이라는 통계.

이런 상황에서 아기들과 양부모들 간에 새로운 부모-자녀 간의 인연이 맺어진 다. 아기가 국내 가정에 입양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처럼 해외 가정에 입양되기도 한다. 보다 좋은 양부모 가정을 찾아서 아기들이 안전하게 양부모에게 가고, 새 부모 밑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가를 살피기 위해 입양기관의 보살핌이 필수적이다.

이같은 상황이 입양을 중심한 사실이요, 여러분의 단체 이름 첫 머리의 ‘진실’ 일 것이다.

지금은 성인이 되어 고국에 와서, 현기증이 날만큼 경제가 크게 성장한 모국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나, 여러분이 고국을 떠나던 20년~30년 전의 우리나라 모습은 기억에 없고, 여러분을 품에서 내놓은 어머니의 빈곤과 비극적인 상황은 알지 못하고 있다.

인종이 다르고, 언어나 문화가 다른 외국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양모가 애정을 쏟아주어도, 바깥사회로부터 받은 압력과 차별이 없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대한민국이 원망스러울 것이고, 입양기관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해외로 입양된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하여 훌륭한 시민으로 활동하고 있기에, 자랑스럽고, 여러분을 양육해 주신 양부모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사업가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

이같은 여러 가지 정황을 여러 해외입양인들이 이해한다면, 우리 사이의 화해는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

이 조직을 이끌어 가고 있는 대표자, 제인 정 트렌카씨에게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계신 '뿌리의 집' 원장 김도현 목사님께도 깊이 감사를 드린다.

현장 발표

탁언택

前 대한사회복지회 회장

오늘 비도 오고 저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팽배한 이 컨퍼런스에 운이 나쁘게 90세가 다 된 노인이 끌려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해서 조금도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했다, 혹은 잘못된 일을 했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최영희 의원께서 이 자리를 언제 뜨실 지 모르니까, 정부나 국회에서 미혼모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하셨으면 하고, 제가 소원하는 미혼모 문제 대책을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혼모에게는 상대방 남성이 있을 것입니다. 미혼모 문제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생겨난 아이가 문제가 되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특히 제가 자주 여행을 했던 스웨덴에서는 미혼모가 아이를 출산하면 그 아동의 DNA와 아버지의 DNA를 비교해 아버지를 찾게 도와줍니다. 정부에서 복잡한 여러 절차를 마련하려 애쓰는 것보다 그런 제도를 선택해서 미혼모 아동에 대한 부양책임을 아버지에게 지게 하는 것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 남성이 결혼을 했든 안했든 무조건적으로 부양책임을 지고 양육비를 내도록 하는 제도가 제정되었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미혼모 혼자 살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결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입양을 보내거나 아이를 홀로 양육하는 것과 같은 심적인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자연스럽게 한 가정을 이루면서 어린이도 그 부모 밑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꼭 성취될 수 있도록 최 의원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저는 아이를 입양시키는 기관에서 일하면서 심리적인 갈등을 느꼈습니다. 저는 어려운 가정을 돕고, 정서적인 도움을 주고, 일반 가정에 입양되기 전까지 시설에 남아있는 아동을 위탁 양육하면서 아이들의 심성이 이그러지지 않도록 하자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아이가 더 좋은 가정에 입양가도록 도와주는 것, 시설을 떠나기 전까지 입양될 아이들을 더욱 잘 가꾸어주는 것, 그들이 될 수 있는대로 건강한 상태에서 입양을 가도록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일들을 후원해주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입양과 관련된 주체는 입양된 아이, 아이를 낳은 친부모, 아이를 입양한 양부모, 그리고 친부모와 양부모 사이에 끼어있는 입양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미아비치보호소에서 아이들을 입양보내달라고 해서 입양을 보낸 것인데, 외국에 나가서 해외 입양인들을 만날 때마다 난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같이 왜 자신을 외국으로 보냈는지, 친부모가 누구인지,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모른다고 하며 하소연했고, 그러한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살아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한사회복지회 회장을 왜 그만두었는지, 또 그 이후에 제가 대한사회복지회나 유사한 단체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25년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스스로 쌓아두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회장직을 그만둔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 또 알지도 못합니다. 그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아동양호회라는 데에 보건사회부 장관의 발령을 받았습니다. 처음 들 어본 곳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는 곳인지는 모르지만 입양기관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전 책임자가 자리를 내주지 않아 자리가 날 때까지 며칠동안 기다 렸습니다. 결국 1965년에 회장직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아동양호회라는 이름 으로 시작했다가, 1971년 대한양연회, 그 후에 대한사회복지회로 이름을 바꿨습니 다.

그런데 저는 회장이 되고 나서도 ‘도무지 내가 왜 여기에 왔는가’ 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왜냐면 어린이들을 입양시키는 기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심 리적 갈등을 스스로 해소시켜야 할 입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려운 가정을 돕고, 의료 지원을 하고, 또 시설에 있는 아동을 일반 가정에 입양되기 전까지 위탁양육 하여 아이들 심성이 이그러지지 않도록 하자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에서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마음 속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늘 어린이 그 자체가 보다 더 좋은 가정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입양 전까지 더 잘 가꾸어 주고 건강한 상태에 있도록 해 주자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1965년 당시엔 외국에서 도움을 주고자하는 스폰서는 굉장히 많은 반면 한국의 후원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사랑의 손길 펴기’ 라는 것을 1965 년에 시작했고, 한달에 단돈 1천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국민 스스로 어린이를 돕고, 어려운 가정을 돕고, 의료 지원을 하는 등의 국내 사업에 중점을 두어, 해외 입양 업무에서 받는 심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대한양연 회 회장으로 부임하고 보니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인프라가 매우 낙후되어 있었습 니다. 그러나 돌아쳐보면 초반의 이런 고충들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준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해외입양의 역사는 이승만 정권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여러 분도 아시겠지만 ‘일민주의’ 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안호상 박사의 이론적인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옥순씨가 보건사회부 장관의 발령을 받아 한국아동 양호회 회장으로 취임한 1954년도에는 입양아가 크게 전쟁고아, 혼혈아, 시설에 있는 아동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었고, 시설수가 153개에 육박했습니다.

그 다음 해외입양과 관련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1961년 보고서에 따르면 2살 이하의 아동이 거주하는 영아원 55개, 2살 이상 된 아이들이 거주하는 육아원 503개, 부랑아시설이 36개 있었습니다. 아동들이 부모를 떠나서 시설로 몰려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시설에서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생각이었고 결국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었는데, 민간인이 대한양 연회 회장으로 위촉되었고, 각 시·도의 보건사회국장이 지부장을 맡았으며, 그 지부장 밑에 아동상담소를 두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매우 규모가 컸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국내입양, 해외입양, 위탁보호(가정위탁보호, 고용위탁보호) 등의 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밀어붙이기식으로 입양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국내입양 1천명, 해외입양 얼마얼마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설정해, 무조건 목표를 달성하게끔 했습니다. 보사부 국장 어린이 한 명, 과장 어린이 한 명, 이런 식으로 해서 입양을 마구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입양이 아니라 부대이동이었습니다. 소위 보호시설이라는 곳은 원장님이나 보모들이 마냥 내버려두고 자유스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가정에 가니까 “그 버릇이 뭐냐”, “밥 숟가락을 왜 그렇게 쥐느냐” 하며 자꾸 간섭을 하니까 아이들이 못 견디고 탈출해 다시 고아원으로 되돌아가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고아원 시설장들은 “그것 보시오, 우리 애들이 우리 시설에 있는 것보다 양부모 가정에서 지내는 게 나빠서 결국 뛰쳐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한 위탁보호는 가정위탁보호와 고용위탁보호가 있는데 한 달에 일정 정도의 양육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961년에 1천명, 그 다음 해에도 1천명, 그 다음 해에도 1천명 이런 식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보내진 위탁 아동에 대한 예산이 1천명이면, 그 이듬 해는 2천명 분의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듬해에도 1천명에 한하여 예산이 배정되고, 이렇게 연도별 증액없이 예산이 잘못 책정되니까 위탁받은 부모들이 다 손들고 “아이들 다시 데려가라” 고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으로 위탁가정 앞으로 나오는 양육비가 시·도국에 전달됐는데, 시·도 국장은

지방에서 지위가 아주 높은 분들로, 저나 백근칠씨와 같은 민간인이 대한양연회 회장이 되니까 감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또 확실한 애기인지는 모르지만, 양육비가 사·도·국에 전달돼도 양육비로 지급이 안 되고 판공비로 없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양육이 잘 될 리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대한양연회 회장이 2,3년에 한번씩 자꾸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한 사회학자인 백근칠씨가 대한양연회 회장으로 계시다 나가신 후 한국사회봉사회를 설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 사회학과 나온 한이윤씨가 계셨고, 신계영씨는 보사부 장관이 최초로 해임했습니다. 당시 사무실에도 안 나오고 자리도 안 내어놓아서, 그 다음으로 회장직 발령을 받은 제가 사무실에 가면 자리가 안 났다고 해서 며칠 기다리고 있다가 1965년에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도 보사국에 있는 아동 상담소가 모두 없어졌습니다. 보사국장도 더 이상 지부장이 아니었습니다. 본부에 대한양연회 회장과 직원 14명만 남아있고 다 없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대한양연회 본부 회장이 되었습니다. 대한양연회는 2층 목조건물에 있었고, 여름에 더워서 문을 열면 유리창의 유리가 부석부석 떨어지는 열악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입양을 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국내입양은 들어봤지만 해외입양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아무래도 안되겠다 싶어서 ‘사랑의 손길펴기’ 국내 스폰서십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해외에서는 많은 후원이 있었지만, 한국 스폰서는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농촌의 어려운 가정을 도우면 아이들이 버려지지 않고 잘 자랄 것 같아서 대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후원자를 모집하고 외국에서 돈을 끌어와 농촌의 어려운 지역에 이자 없이 대부를 해 주었습니다. 부락에 좋은 지도자가 있고 협동심이 있으면 송아지, 염소, 지붕개량 이렇게 해서 이자 없이 원금만 갚는 방식으로 농촌사람들에게 대부를 주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300 케이스를 대부했는데, 1300 케이스 모두 원금을 돌려 받았습니다. 그 비결 중 하나는 각 도의 지부장이 그 농촌에 갈 일이 있으면, 갔다가 그날 바로 돌아오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 부락에서 하루 머물게 되면 뇌물이 들어오든지 술 대접을 받는지 하게 됩니다. 또 다른 비결은 부락 전체가 서로 믿고 잘 살겠다는 의욕이 충만한 부락을 위주로 대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대한사회복지회에서 21년 동안 회장직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가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적으로 망가지지 않아야 하고 육신이 병들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에 두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망가지지 않을 수 없고, 병들어도 의료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사회복지회 밑에 ‘한서병원’이라는 곳도 세우고 시립병원에 아이들을 보내 의료 지원을 하는 등 아이들을 돌봐왔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고비를 참 많이 겪었습니다. 입양 아동의 변천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쟁 고아, 두 번째는 미아, 세 번째는 병약한 아동들입니다. 이런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참으로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지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국내입양의 경우 어려운 점이 참 많았습니다. 양부모가 원하는 아동의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남자 아이보다 여자 아이를, 나이 든 아이보다 갓난아기를, 못 생긴 아이보다는 잘 생기고 귀여운 아이를 선호하고, 장애아동을 입양하지 않으려고 하는 등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국내 입양이 가능한 아이들은 사실상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해외입양의 경우 외국의 양부모들 사이에서 한국아이들이 똑똑하다고 소문이 나서 서로들 입양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외 입양기관과 우리가 협정을 맺고 정부승인을 받아서 그 기관에 입양을 보낼 수 있도록 길을 열었는데, 그 당시에는 쿼터제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쿼터제가 생겼는데, 국내로 입양보낸 아동 수에 비례하여 그 실적에 따라 해외로 입양보낼 수 있는 아동의 수를 늘리는 제도였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고비를 저희가 많이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국내입양이 많이 이루어지는 편인데, 그 당시만 해도 참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가령 국내입양 100명을 보내면 그 대신 해외입양은 200명, 국내입양이 200명이면 해외입양은 300명 이런 식으로 국내입양과 해외입양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버려진 아이들은 많고, 입양을 의뢰한 아이들의 수는 많은 반면 입양 보낼 수 있는 아이들의 수는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입양, 해외입양을 보내고 남은 나머지 아이들을 일반 위탁가정에 보내 양육비, 의료비, 의료비 지원을 해야 하니 비용이 많이 들고, 애들은 망가지고, 경제적으로 나라 형편이 어려우니 아이들이 또 많이 버려지고, 그 고충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를 초대해 주신 기관에서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실 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정말 잘 성장해야 하는데, 소위 입양기관의 고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왜 아이들을 외국으로 내보내느냐” 하는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데 실제로 국내에서는 입양을 많이 하지 않았고 외면받고 버림당하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아이들이 버려지는 숫자는 경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일 쇼크가 일어나면 그것이 국가경제 뿐만 아니라 가정경제에도 영향을 미쳐서 버려지는 아이들이 자꾸 늘어나고, 반대로 오일쇼크가 잠잠해지면 버려지는 아이들은 좀 줄어드는 식입니다. 이런 사회적, 경제적 형편과 아동들이 버려지는 수 사이에는 긴밀한 함수관계가 존재합니다. 해외입양은 정부보조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많은 정부예산을 입양기관, 양부모에게 주고 있지만 예전에는 아무 지원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버려지고, 시설에 수용되는 아이들의 수는 늘어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어린이들이 잘 자랄 수 없었고, 입양기관은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갑자기 이사들이 저에게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취임할 당시 대한사회복지회 직원은 불과 열 몇명이었는데 제가 사임할 무렵에는 직원이 200여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부,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등 영아일시보호소도 생기고, 병원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사들이 갑자기 저보고 나가라고 해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보건사회부는 대한양연회가 보건사회부에서 세운 기관이고, 아무리 사회복지 법인을 만들어 대한사회복지회로 변했어도, 아직까지 보건사회부 관할 아래 있다며, 회장인 저와 이사들이 옥신각신 하니까 다 나가라고 해서 결국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사와 회장을 다시 보건사회부에서 임명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최 단체인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 입양인 모임’이라는 명칭에서 볼 수 있는 ‘진실’과 ‘화해’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실은 팩트, 사실, 현실입니다. 현재 버려진 아동들, 미혼모들, 양부모, 입양기관이 직면한 불행한 현실을 진실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관의 명칭에 들어있는 ‘화해’라는 단어처럼 이 4자, ‘미혼모, 어린이, 양부모, 입양기관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화해하자’라는 취지의 운동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외입양인이 과거 어머니의 나라 대한민국을 떠날 때의 상황과 현재 모국방문을 해서 부모님을 찾거나 일을 하면서 보게 되는 대한민국의 모습 사이에는 경제, 사회적으로 엄청난 간극이 존재합니다. 해외입양인들은 당시의 비참한 현실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의 발전된 모습만 보고 배신감을 느낄 수 있지만 시대적 차이와 아픔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을 취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입양보낸 게 아닙니다. 저도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보낸 부모들도 이해하고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보낸 대한민국도 용서해서 우리가 잘 살자는 것이 화해가 아니겠습니까. 좋은 기관이고 좋은 운동이고 여러분들께서 더욱 열심히 일하시고 운동하셔서 조국을 발전시켜 나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션 2

당사자들의 목소리 1:
아이들 입양보낸
엄마들의 이야기

노금주

'민들레' 부모회 대표

김현옥(가명)

'민들레' 부모회 회원

노금주

‘민들레’ 부모회 대표

우선 이런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합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닫힌 마음이 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제 아들은 현재 36살이며, 76년도에 입양되었습니다. 저는 해외입양인 생모이기도 하지만 나이 많은 싱글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아픔을 겪은 엄마로서 남들 앞에 서는 것조차 창피하지만 그럼에도 용기를 가졌던 이유는, 우리 싱글맘 엄마들에게 저와 같은 아픔을 겪지 말고 살라고 용기를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이들이 모국인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엄마들이 나서 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민들레회’ 모임을 조직했습니다.

저는 KBS ‘아름다운 용서’ 라는 프로그램 1회 때 두 번째 출연자였습니다. 아들이 저를 찾기 위해 한국에 왔었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 해외입양 자체도 몰랐고, 입양기관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2004년 11월에 한국사회봉사회로부터 아들 현성욱이 엄마를 찾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해외입양이라는 단어를 알았고 입양기관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는 것도 없고 배우지도 못했습니다만,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경우’ 는 압니다. 입양보낸 우리 엄마들은 수치심을 느끼고 우리 아이들에게 죄인이라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더 큰 목소리를 낼 때,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감정이 조금은 녹아내리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남들은 쉽게 이야기 합니다. 어느 미용실에 앉아있었는데, 텔레비전에서 몇 십년 만에 만난 가족들이 상봉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아줌마가 “아이고, 버릴 때는 언제고, 지랄한다.” 라고 쉽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꼭 옆에 있는 저를 두고 하는 말 같았습니다.

우리는 돌로 치면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엄마로서 자식을 지키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저희들에게 무엇을 해 주었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밥을 굶고 있을 적에 정부가 나서서 해 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아빠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모유가 나오지 않는 저에게, 매혈(賣血)을 강요한 아이 아빠가 생각이 납니다. 이런 미혼모들에게 정부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입양의 날’ 이 아닌 ‘입양인의 날’ 인 줄 알았습니다. ‘입양의 날’ 은 입양을 부추기는 것으로 들립니다. 엄마로서 그렇게 들립니다. 저희 민들레회 엄마들은 입양가는 아이를 한명이라도 줄이고자 창피함을 무릅쓰고 나서는데 정부는 ‘입양의 날’ 을 정해놓고 입양을 장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희 엄마들이 겪는 아픔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싱글맘이기도 한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싱글맘 어머니들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 엄마들이 힘을 내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오래 전에 저희가 민들레회를 조직하면서 백만인 서명운동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청주 청학길에서 처음으로 ‘우리 아이, 우리 손으로 키우자!’ 는 기치를 걸고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사회 곳곳에 살고 있는 엄마들이 참여했지만,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해외입양인이 20만명이라면 그 가족은 40만명이 될 것입니다. 20만 해외입양인의 가족이 함께 백만인 서명운동을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사는 것을 정부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아픔은 하루 이틀 안에 끝나는 아픔이 아닙니다. 이 아픔은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하는 아픔입니다. 저는 아들을 만나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또 다른 아픔이었습니다. 제 아들을 처음 만났을 때 얼굴에 그늘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걱정할까봐 항상 헛웃음을 지었는데, 그 웃음 뒤에는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해외입양인 중에 잘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잘된 사람은 텔레비전에 나오기 때문에 모든 해외입양인들이 성공하는 줄 알고 있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입양을 가서 비참하게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국사회 속에서는 피부색도 같고 문화도 같지만, 해외에서 백인들 속에서 한국인, 황인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아십니까? 해외로 아이들을 보내면 행복해진다고 쉽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를 보낸 엄마와 입양 간 아이들이 받게 될 고통을 정부는 아십니까?

정부가 ‘입양의 날’ 이 아닌 ‘입양인의 날’ 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해외입양인, 국내입양인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입양을 홍보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입양의 날’ 을 정한 것이라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한 사람이라도 입양보내는 것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입양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저는 아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미혼모들이 엄마 손으로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다른 데로 들어가는 정부 예산을 싱글맘을 위해 배정한다면 엄마가 아이와 함께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고 사는 것,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을 잃어버린 후 찾기 전까지 30년 동안 미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저 몰래 아이를 입양 보낸 가족들은 나중에 입양 보낸 것을 후회했습니다. 만약 아이를 보내지 않았다면 제가 그렇게 방황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엄마는 열심히 일해야 하기 때문에 방황했을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나이 어린 싱글맘들, 용기 잃지 마시고 당신 손으로 꼭 아이들을 지켜내기 바랍니다. 제가 경험했던 아픔이 다시 반복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것은 당사자만 알 수 있는 아픔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아픔이 아닙니다. 이런 아픔을 경험한 당사자로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호소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가 아이들과 살아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십시오. 입양 보낸 엄마로서 창피하지만, 용기를 내지 않으면 이런 아픔이 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같은 아픔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가련하다 생각하시고 용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옥(가명)

‘민들레’ 부모회 회원

저는 현재 37세이며, 99년도에 아이를 낳아서 2000년도에 아이를 입양 보낸 엄마입니다. 어제까지 이 자리가 저에게는 부담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미혼모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저의 작은 한 마디가 다른 미혼모들한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입양인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사회복지기관에 맡겼을 당시, 솔직히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모성애를 못 느꼈습니다. 혼자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고서도 ‘아, 입양보내게 되는구나.’ 하며 무책임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부인과에 사회복지사님이 오셔서 친권포기각서를 쓰라고 하셨습니다. 쓰라고 권유해서 썼고, 아이가 입양기관에 맡겨지게 되었는데, 아이를 보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아이 얼굴을 보지도 않고 곧장 입양기관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열 달 동안 제 뱃속에 있었던 아이를 입양기관에 맡기고 나니, 그 허전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궁금해서 전화를 드리고 복지기관에 가서 아기 얼굴을 본 순간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정말 서운한 것이 많습니다. 정말 아이를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권포기각서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아이 키울게요." 라고 애원했습니다. 아이를 입양기관에 맡겨놓은 당시에 미혼모시설, 모자보호시설 등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다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는 다들 그냥 입양 보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24시간 어린이집까지 다 알아보았는데 입양 보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가진 건 없었지만 아기 낳기 전에 다니던 직장을 다시 다니게 되었고, 10년, 13년 전인데 연봉으로 2천만원이 넘는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단지 아이와 지낼 곳이 없었을 뿐이지, 앞으로 힘든 상황이 닥친다 해도 아이와 단둘이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양기관 선생님께 "아이 키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안 될까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아이 키워준 값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래 입양기관에서는 입양을 결정한 엄마들의 마음이 변할까봐 아이를 안

보여주는데, 저는 아이가 입양가기 전 6개월 동안 한달에 한번씩 아이를 계속 봤고, 갈 때마다 애원을 했습니다. "어떻게 안 될까요?..." 입양기관에서 나중에는 정말 단호하게 "계속 그러면 다음부터는 애기를 못 보게 하겠다" 고 했습니다. 저는 아기를 입양기관에 맡긴 후 반 미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마시고, 잠들고, 출근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아기를 입양보냈습니다.

지금 제 아이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양부모님이 오셔서 데리고 갔고 서로 서신교환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앞 세션에서 연설하신 선생님께서 '아기를 버렸다' 는 표현을 쓰셨는데, 아이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버렸다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제가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버려졌다' 는 표현은 다른 곳에 가서서도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가나 국내로 입양가나 미혼모 밑에서 자라거나, 잘 되는 경우와 잘 안 되는 경우가 다 있습니다. 해외입양을 간다고 해서 모두 잘되는 것도 아니고 국내입양을 간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미혼모가 아이를 키운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입양을 보내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엄마가 아이를 키우도록 돕는 사회적 환경과 제도가 필요하고, 그 후에 입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양을 쉽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해외든 국내든 입양을 보낸 아이들이 모두 행복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아이의 장래를 위해 입양이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혼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우선이고, 그 이후에 입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미혼모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저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 자신이 창피했습니다. 아이를 입양 보내고 난 후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픈 마음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사회가 한부모가정 아이들에게 편견없이 따뜻이 대해주고, 정부가 미혼모/한부모 가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 그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결혼을 해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장 사회적 편견이 없어지지지는 않겠지만, 정부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준다면 편견이 서서히 사라질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정작 정부에서 관심이 없는데, 사회적 편견이 없어지겠습니까?

제가 입양을 보내고 난 후 미혼모들도 많이 만나봤고, 단체들도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양 보낸 엄마들의 슬픈 사랑이야기’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카페를 만들었고, 자녀를 입양보낸 엄마들이 카페에 들어와서 서로에게 많은 힘이 되었고, 서로 의지도 많이 했습니다. 또 아이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문의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국에 오는 입양인들은 한국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도 아닌, 그 중간에서 많은 어려움과 외로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한 가지 바람은 제 아이가 한국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입양인에게 편견을 가지지 않고 같은 한국인으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제 남편은 제가 아이를 입양보낸 사실도 알고 있고, 이를 수긍하고 모든 것을 받아주었습니다. 이러한 남편을 만나 저는 다행히 행복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또 다른 숙제는 현재 제가 이루고 있는 가정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미국에 있는 누나를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를 설명할 수 있을지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미국에 누나가 있다라는 말까지는 했습니다. 아이들이 “누나 보고싶다, 누나 보고싶다.” 이런 말을 하곤 하는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이 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기 전에, 입양인에 대한 편견,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션 3

당사자들의 목소리 II:
국내·해외 입양인들의
이야기

예스 에릭슨

덴마크 입양인

알리스 미애 김

네덜란드 입양인

탐스 미리암 계연

네덜란드 입양인

낸시 토클라

미국 국내입양인

질의 응답

에스 에릭슨
덴마크 입양인

저는 1979년 12월 18일 수원에서 태어났습니다. 1980년 5월에 대한사회복지회에 맡겨졌고, 1980년 7월 4일 덴마크로 입양되었습니다.

덴마크 입양부모님은 저를 여느 덴마크 아이들처럼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간다는 것은 제가 석사학위를 끝마칠 무렵까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입양된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때는 2005년 겨울이었고,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교환학생으로 6개월의 시간을 보낸 후였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문화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5년간 저는 매년 한국을 방문했고 마침내 장기간 한국에서 살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월부터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해외입양인 커뮤니티와 일반적인 한국의 삶, 둘 다를 경험하면서 제 자신이 이러한 삶을 무척이나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에 사는 것은 개인적 차원과 직업적 차원에서 계속되는 도전입니다. 석사학위를 가지고 기능성 문맹자(Functional illiterate)로 살아가는 것은 참 이상한 모순입니다. 저는 현재 저만의 속도로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2005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까지 한국문화에 대한 어떤 지식도 갖고 있지 않았으며 한글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현대 한국 문화와 덴마크 문화를 결합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러한 과정 속에서 두 사회의 강점과 결합이 명확해 질 것입니다.

저는 성평등을 비롯하여 ‘평등한’ 기회가 주요한 자산인, 사회복지체계가 매우 탄탄하게 구축된 사회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법과 사회적 규범이 불평등을 야기하는 근본 원인을 구성하는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해외입양 시스템을 변할 수 있고 변해야 하는, 사회하부구조의 결함을 나타내는 징후로서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해외입양: 축복인가 비애인가?

알리스 미애 김
네덜란드 입양인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리스입니다. 제 한국 이름은 친부모님께서 지어주신 ‘김미애’라는 이름과 제가 버려진 아이로 발견된 이후 고아원에서 지어준 ‘김영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네덜란드에서 성장하고 학교를 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국적을 가진 한국계 입양인과 결혼하여 현재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2009년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의 나라에 대해 배우고, 한국 가족들과 잘 지내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입양인으로서 저는 해외입양에 대하여 복합적인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백인 세계’ 속에서 자라면서 제 자신이 외계인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지금, 제가 한국에서 자랐다면 결코 얻지 못했을 많은 혜택을 받으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1970년대 한국은 내전 후 트라우마로 인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나라 전체를 무(無)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 시기 동안 겪었을 곤경과 절망을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한국이 이룩한 커다란 발전을 보며 경의를 표합니다.

현재 한국은 더 이상 가난한 국가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한국은 강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외입양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어려움에 처한 국내 아동들과 가족을 지원하고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출생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으며, 더 많은 아이들을 낳고 기르도록 장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정인데도 한국은 여전히 한국 아이들을 해외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말이 되는 일입니까?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를 키우기에 충분한 자신감을 가질 수 없게끔 만드는 절망적인 상황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절망에 놓인 사람들이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최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가지’, ‘공정한’ 선택지들이 생겨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해외입양이 곤경에 처한 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최선의’ 해결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오직 친부모의 사랑과 돌봄만이 필요합니다. 어떤 아이도 그가 태어난 곳과 친부모로부터 떨어져 멀리 보내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보존이 가장 먼저 장려되고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이 국내입양입니다. 그러나 현재 어리고 미혼인 여성이 임신하게 되면 해외입양을 통해 그들 자녀를 포기하게끔 특정 방향으로 떠밀리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취약한 여성들에게 해외입양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결정에 뒤따르는 괴로움과 고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결정은 부모의 가슴에 커다랗고 빈 구멍을 남길 뿐입니다. 곤란한 상황에서 자신의 자녀를 기르기로 한 선택이 설사 힘들고 고통스런 순간들을 낳을지라도, 이 경우에 엄마는 구멍 뚫린 심장이 아닌 그녀의 소중한 아이와 함께 합니다.

아이를 기르도록 선택한 부모들이 그러한 선택에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가족들에 의해, 이웃에 의해, 사회에 의해 격려와 지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최선의 해결책으로 그들 자녀들을 포기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한국에 빨리 오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아기들은 소중한 새 생명입니다. 자, 모두 함께 그 탄생을 축하합시다!

탐스 미리암 계연
네덜란드 입양인

한국 나이로 5살 때 저와 제 남동생은 네덜란드로 입양되었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가족을 만났지만 부모와의 관계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문화적, 개인적 차이 때문에 저는 자라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연중에 모든 측면에서 제 정체성을 찾기 위한 기나긴(아마도 평생동안의) 탐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에는 많은 모험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좋았고, 어떤 것은 나빴습니다. 저는 삶 그 자체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제가 최근에 경험한 일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언젠가 한국을 방문해 보고 싶었습니다. 2년 전 저는 때가 되었다고 느꼈고, 한국에 왔습니다. 저는 친가족을 만났고, 가족들로부터 제가 결코 꿈꿔보지 못했던 대환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애정 어린, 따뜻한, 진심을 담은 환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가족들에게 재확인했습니다. 친부모님 모두 오래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실을 재확인했을 때 친가, 외가의 다른 가족들을 만난 게 행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슬펐습니다. 게다가 어머니가 적절한 곳에 묻히시지 못하고, 땅 속 어딘가에 묻히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제 어머니가 묻히실 적절한 장지를 찾겠다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제 가족에 대해 더 많이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가족들과의 문화 차이와 개인적 차이를 부분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모든 가족들을 그들 자체로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진심이고 진실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가족들도 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줍니다.

몇 주 전 저에게 매우 특별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 날, 저는 제 가족과 함께 어머니를 가족묘지에 모셨습니다. 제 다짐이 실현된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평화롭게 잠드시길 바랍니다. 어머니는 제 남동생과 저를 낳아주신 유일한 여성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간에 어머니가 저와 남동생을 진정으로 사랑했다고 느낍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친어머니를 어머니로서 항상 존경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입양, 생식보건과 권한강화: 개인적·직업적인 행로

낸시 토클라
미국 국내입양인

서문

낸시 스미스 토클라 박사는 미국 국내입양인으로 다음 증언을 위해 본인을 ‘아동C’ 라고 명칭한다. 이 증언은 1) 입양이야기, 2) 입양가정, 3) 교육을 통한 권한강화, 4) 생식보건분야 경력을 통한 권한강화, 5) 결론: 권한강화에 대한 통찰, 이렇게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Part I_입양이야기

그녀의 부모는 애리조나주 회계사였고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혼수속 중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생모는 캘리포니아로 가서 일반의 진료를 받았다. 한편 캘리포니아 출신의 남녀가 1940년에 결혼했다. 당시 신랑은 35세(1905년생), 신부는 34세(1906년생)였다. 결혼 초기, 신부 스미스 부인은 임신이 안되어서 산부인과 진단을 받았는데 자궁적출을 해야 했다. 결국 스미스 부부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 캘리포니아 복지과를 통해 1946년에 여아(아동A)와 1952년에 또 다른 여아(아동B)를 입양했다.

그 후 스미스 부부는 남아를 입양하기 원했지만 캘리포니아 복지과는 그들이 45세가 넘었기 때문에 입양부모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래서 스미스 부부는 지인들에게 남아를 입양할 길이 없는지 문의했다. 한 지인은 5살 이하 두 사내아이들을 한 할머니가 키우고 있다고 했다. 그러던 중 스미스 부부는 아이들을 입양 보내고자 하는 임산부를 돕고 있는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마침 스미스 부부는 그 의사와 상의했다. 그리고 1954년 애리조나 임산부가 여아를 출산했을 때, 스미스 부부는 직접 병원에서 이 여아를 세 번째로 입양했고 낸시(아동C)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셋째 아이가 사내가 아니라서 스미스 부부는 다시 의사와 상담했다. 1956년 의사는 병원에서 신생아가 스미스 부부집으로 입양되게 해주었다. 마침내 스미스 부부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남아(아동D)를 입양할 수

있었다. 그래서 스미스 가족은 부모와 입양한 1남3녀, 이렇게 여섯 명으로 구성된 한 가족을 이루었다.

Part 2_입양가정

캘리포니아주 출생증명서에는 이 네 명의 입양아동들의 부모이름이 스미스로 되어있고 입양기록이나 생부모에 대한 기록은 없다. 아동A는 다섯 살 때 이웃으로부터 자신이 입양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아동B, 아동C, 아동D를 입양한 후에 스미스 부부는 그들 자녀들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도록 집에서 자주 ‘입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10대 때 아동A와 B는 자기들의 입양 당시 상황에 대해 스미스 부부에게 묻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복지과가 도움을 주었다. 입양 첫해에 양부모는 아기의 소아과 진료에 관하여 꼼꼼히 기록해야 한다. 기록의 목적은 입양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회복지사와 궁극적으로는 입양에 대한 최종결정권자인 가정법원 판사의 조사를 위해서다.

10대 때 아동C와 D도 스미스 부부에게 입양 당시 상황을 물었다. 스미스 부인은 입양을 원하는 부모들이 임신한 생모를 위해 일반 진료비, 산부인과 수수료, 병원비를 지불한다는 상황을 설명했다. 스미스 부인은 C의 생모를 한번 만난 적이 있고, 금발에 푸른 눈동자를 가졌다는 사실이 C의 생모에 대해 아는 전부라고 했다.

25년 후 스미스 부부의 사위는 그들이 아동C를 입양할 당시 50세에 가까웠고 아동D를 입양할 당시에는 50세가 넘었는데 어떻게 신생아 C, D를 입양할 수 있었느냐고 물었다. 스미스 부부는 의사에게 많은 돈을 주었기에 가능했다고 시인했다. 50년대, 캘리포니아에는 "암시장의 아기들"이 많았다. 스미스씨가 1살짜리 여아 C를 그녀의 ‘입양의 날’에 안고 있는 오래된 사진이 있다. 그날 캘리포니아 가정법원 판사가 최종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입양이 공식화되었다. 그 후부터 스미스 부부는 아동C를 소유했다.

당시 판사는 아동C가 대학에서 공부하게 될 쯤, 스미스 부부는 늙고 은퇴하여 생활이 넉넉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이 판사는 역할 반전(Early role reversal)의 위기를 예측하지 못했다. 그것은 입양된 아동이 20대가 되어 70대가 된 양부모를 돌봐줄 위치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미스 부부는 아동A에게 새 차, 대학교육비, 기숙사비, 결혼비용, 신혼집을 선물로 주었다. 그 후 아동A는 두 번의 결혼과 이혼을 했고, 현재 혼자 살면서 자영업을 하고 있다. 아동B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다른 고등학교 중퇴자와 약혼한다고 선언하고 결혼비용과 주택구입비를 스미스 부부로부터 받았다. 결혼한 지 1년 후, 첫 아이를 출산했고 나중에 둘을 더 출산했다. 2010년에 아동B와 그녀의 남편은 성장한 두 아들과 며느리, 성장한 딸과 사위, 그리고 몇 명의 손주들과 함께 결혼 40주년을 기념했다. 2012년, 그녀의 남편은 40년 직장생활을 끝내고 은퇴할 것이다.

스미스씨는 1940년도부터 조그만 회사를 운영했지만 1960년대 후반 경기불황 때 큰 손실을 보았다. 1969년부터 그는 실업상태로 온종일 집에 있었다. 당시 아동C는 15세, D는 13세였다. 스미스 부인은 "내가 왜 아이들을 넷이나 입양했지?"하며 집안을 돌아다녔다. 또는 "우리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했다. 아동C와 D는 엄마의 의도대로 자신들이 엄마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존재라고 느꼈다. 생애 처음으로 아동C는 아이를 '갖는' 것과 아이를 '입양' 하거나 '책임을 지는 것', 즉 아기를 낳는 것과 취득하는 것의 커다란 차이를 이해했다.

1971년, 아동C는 고등학교를 수석졸업하고 대학교육을 위해 장학금과 용자를 받았다. 1년 후, 그녀는 법적으로 18세 성인이 되었다. 그러자 스미스 부인은 아동C가 양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했다. 아동C도 양부모에게 부채의식이 있었다. 스미스 부부는 대학가기 위해 저축해 둔 아동C의 계좌번호를 알아냈고 그녀의 용자금을 가져갔고 대학 장학금도 가져가려고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미스 부부가 미국정부가 지원한 '사회보장대학보조금' (Social Security College Benefits)을 가져갔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부모가 65세 이상일 경우, 저소득층 학생에게 매달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아동C는 18세~22세 사이에, 대학 과정의 절반만 등록해도 이런 정부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되었다. 미국에서 양자녀는 18세에 독립한다. 그러나 입양인으로서, 아동C는 22세까지 양부모에게 도제생처럼 묶여 있었다. 아동C는 자활하기 위해서 레디오로직 기술(Radiologic technology) 자격증을 취득했고 진료소에서 엑스레이 기술자로 일하며 대학을 다녔다. 그 결과 그녀의 건강은 많이 악화되었으나 그 시기를 잘 견뎌냈다.

30대 중반에 아동D는 누나인 C와 힘들었던 어린 시절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아동D는 신랄한 목소리로 "아빠가 그때 다른 직장이라도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라고 물었다. 우리 기억에 아빠는 그냥 온종일 집에만 앉아 계셨으니까 말이다. 1972년 아동D가 16세가 되었을 때, 그는 청소년 레크레이션 센터에

일자리를 얻고 방과후나 주말에 일했다. 그 결과 그의 고등학교 성적은 A에서 C, D로 떨어졌다. 어느 날 D가 부모님에게 직장일 때문에 차를 빌려도 되느냐고 물었다. 스미스씨는 "난, 너 때문에 연료를 낭비할 수 없어!" 라고 소리쳤다. 그래서 아동D는 걸어서 출근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D는 울면서 뛰어나갔고 걸어서 출근했다. 1974년 아동D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제 전문대학에 입학했다. 아동C는 남동생이 교과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돈을 대부해 주었다.

스미스 부부를 부모로 여기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 갔다. 아동C는 양부모 아래서 도제공 같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녀의 생모가 자신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었을까 궁금했다. 그녀는 양부모가 입양 당시 지어준 '낸시'가 더 이상 자기 이름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동C는 잔인했던 십대와 성인 초창기에 기독교신앙에 심취하며 진정한 아버지를 염원했고 자신의 삶의 대한 하느님의 계획을 믿으며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다. '낸시'라는 이름의 뜻은 '내 은혜'이다. 아동C는 삶의 좀 더 깊은 의미를 추구하면서 신의 은혜를 알기 위해 온 정력을 집중했다.

낸시가 18~20세가 되었을 때 그녀의 양부는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한밤중에 양부 스미스씨는 낸시의 침실 방문 앞을 배회하고 숨을 가쁘게 쉬며 문 손잡이를 가볍게 흔들었다. 그는 세 번, 낸시 방에 들어와서 침대를 보며 서 있었다. 낸시는 성령의 '조용한 작은 음성'이 "일어나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그녀는 양부에게 "여기서 나가요!" 하고 소리칠 수 있었다. 그때 낸시는 양부에게 근친상간 금기는 친딸에게만 적용되고, 입양한 딸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깨달았다. 양모에게 양부의 근친상간 시도에 대해 말했을 때 양모는 "그 정도면 괜찮은 편이다"고 말했다. 양모는 양부가 그런 행동을 멈추도록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낸시는 양모에게 자기 방에 자물쇠를 설치해 달라고 했다. 양모는 양부에게 그 말을 전했다. 양부는 "이 집에 자물쇠는 필요 없어!" 라고 말했다. 그래서 낸시는 자기 전, 가구를 밀어 문 앞을 막아놓았고 등을 켜놓았으며 잠옷이 아닌 일반 옷을 입고 잤다. 입양된 집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Part 3_교육을 통한 권한강화

1974년 20세에, 하느님의 은혜와 그녀의 고등학교 상담사의 도움으로 낸시는 대학 기숙사로 이사 갈 수 있었다. 낸시는 마침내 본인이 직접 문을 잠글 수 있는 침실을 갖게 되었다. 또 다행스럽게도 낸시와 그녀의 룸메이트는 절친한 친구가 되었다. 낸시의 룸메이트는 싱글맘에 의해 길러졌다. 낸시의 룸메이트는 그녀의 어머니가 40대 중반에 낳았는데, 그녀의 첫 아이이자 마지막 아이였다. 그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녀는 친부가 자신이 2살 때 돌아가셨다는 엄마의 이야기를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라면서, 왜 집에 아빠 사진이 없는지 궁금해 하기 시작했다. 20년 후, 그녀는 연세 드신 이모로부터 진짜 이유를 들었다. 원래 그녀의 엄마는 직업여성으로서 경력을 계속 쌓고 싶어했고, 그래서 애초에 결혼을 원치 않았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녀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자녀 양육을 경험해보고 싶어졌다. 미혼상태로 이 중년여성은 의도적으로 임신했고, 일부러 아빠 없이 아이를 혼자 키웠다. 그녀와 엄마는 한동안 행복했다. 그녀의 엄마는 그녀의 유년시절부터 대학시절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었다. 그녀는 주말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집으로 가서 엄마와 집 뒷마당에 있는 오렌지를 함께 따는 것을 좋아했다. 낸시는 여성이 가장으로서 이끄는 이 가정이 평화롭고, 사랑스러우며 든든해 보였으며 따라서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그 후, 낸시의 룸메이트는 대학을 졸업하고, 동부에 있는 명문 대학원으로 진학하여 법학석사를 취득했고, 결혼 후 두 아이를 출산하였으며, 가정폭력을 법적으로 다루는 정부기관의 책임자가 되었다. 그리고 남편은 큰 대학의 교수로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이렇듯 그녀의 삶은 헌신적인 싱글맘의 긍정적인 힘을 증언하고 있다.

또다시 하느님의 은혜로, 낸시는 대학 기숙사로 옮긴 지 이틀 뒤 열심히 공부하는 친절な 남학생을 만났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첫 남자친구가 되었다. 2년 후, 낸시가 22세가 되어서, 그 둘은 약혼 후 결혼했다. 낸시 남편은 "당신이 원하지 않는 한 앞으로 일을 안 해도 돼요."라고 선언했다. 선택권을 갖는다는 것은 권한을 갖는 일이다! 1976년은 식민지 미국이 영국 통치로부터 공식적으로 독립했음을 선언한 날인 '미국독립선언'의 날 200주년을 기념하는 해였다. 1976년은 또한 입양가족에 도제처럼 얽매어 있었던 한 입양인에게도 해방의 날이었다. 낸시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낸시 남편은 핀란드계 미국인으로 자기 조상의 뿌리를 1000년 전까지 거슬러 안다. 조그만 핀란드 북쪽의 시골교회는 그의 조상에 관한 기록을 지금도 보관하고 있다. 슬프게도, 낸시의 시부모 가족은 그녀가 입양인이고 전통적 엄마로 살기보다는 일하며 경력을 쌓기 원한다는 이유로 낸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친가족, 입양가족, 시댁가족 모두가 낸시를 거부하고

버렸다. 미국에 이런 속담이 있다. "죽지 않을 정도의 고통은 너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기독교 신앙은 하느님이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만든다고 믿는다. 남편의 강한 사랑과 직업적 성공을 뒤에 업고, 낸시도 20대에 자신의 전문성을 계발하는 데에 전적으로 집중할 수 있었다. 그후 낸시는 의대에 진학했다.

Part 4_생식보건 분야 경력을 통한 권한강화

1983년 미국에 있는 의대에 진학한 낸시의 첫 환자는 15살의 임신부였으며, 그 임신부는 자신의 아기를 키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가난한 집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엄마와 만성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학생 의사'로서 낸시는 환자들의 형편을 알고싶어 집을 방문하곤 했다. 그녀는 환자들의 기본 필요사항을 평가했다(월세, 공과금, 식비). 그녀는 신생아를 집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필요사항을 점검했다. 그녀는 십대인 엄마가 고등학교로 복학할 때를 대비해서 아이를 맡길 탁아소를 알아보는 등의 계획을 세울 것을 권고했다. 이 십대 엄마가 딸을 출산했을 때, 아이 아빠는 동네에서 벌써 다른 십대 여자아이들을 임신시켰다. 이제 막 엄마가 된 십대 소녀로서, 낸시의 환자는 아기 아빠에게 여전히 애착을 느꼈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후 1년간은 수차례에 걸쳐서 아기 아빠와 만나기도 했다. 낸시는 십대 엄마와 다양한 피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특별히 성병을 예방할 수 있는 차단 피임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이 환자는 어린 탓인지 의학적 조언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성관계 중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그녀는 몇 가지 성전염병(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STI)에 감염되어 성병(Sexually transmitted diseases)을 얻었고, 그것이 악화되어 골반내염증질환(Pelvic inflammatory disease: PID)을 앓게 되었다. 일련의 성병과 골반내염증질환은 생식기관에 흉터 조직을 형성하기 때문에 임신률을 떨어뜨린다. 의대와 연계된 대학병원 내 가정의학과에서 1년간은 진료를 받았지만 그 후 이 십대 소녀는 더 이상 병원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할 수 없었다. 지금쯤, 그녀는 33살이고 그녀의 딸은 17살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낸시는 이 모녀가 지역사회에서 좀 더 확고하게 정착했기를 희망했다.

30세에 낸시는 심각한 자궁내막증으로 인해 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낸시와 남편은 당시 벨기에에 살면서 자궁내막증을 치료하고 아이를 갖기 위해서 보조생식기술을 이용하는 병원의 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동시에, 낸시부부는 해외입양도 알아보았다. 이 시기에 낸시는 양모가 양부를 잃고 홀로 계셨기 때문에 양모를 즐겁게 해드리고자 벨기에에서 캘리포니아로 자주 전화를 걸기도 했다.

낸시는 유선으로 자신의 불임치료문제와 해외입양 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스미스 부인은 "남의 아이를 갖지 말고 너의 아기를 가져."라고 말했다. 낸시는 어른이 되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마음 아팠다. 그것은 낸시에게 자신이 지금도 어디에 속하지 못하고 거부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다. 낸시는 1987년부터 1994년까지 7년 동안 자녀 넷을 낳았다. 지구상에 그녀가 갖고 있는 유일한 혈연이다. 그래서 마침내 부모와 네 아이, 1남3녀, 여섯 명으로 구성된 가족이 완성되었다.

낸시가 첫 아이를 낳기 전 양모는 돌아가셨다. 이제 시어머니만 생존해 계신다. 낸시는 네 자녀들의 세례식에 시어머니를 초대했다. 때때로, 낸시는 자신의 생모가 네 아이의 할머니라고 생각해보곤 한다. 비록 아리조나 출신의 생모는 손자들의 존재도 모른다 할지라도 말이다. 만약 낸시 생모가 낸시를 찾고자 했다면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괜찮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둘 다를 돌보아 주신다.

1989년, 낸시가 의대를 졸업한 해, 그녀의 입양된 남동생이 결혼했다. 그 전 10년 동안, 아동D는 많은 건설회사에서 일했고 그 후 목공소를 열었으며, 사업이 번창해서 국내외 여러 지사를 두게 되었다. 목공소 본부에서, 아동D는 새 비서를 채용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비서가 책상에서 우는 모습을 봤다. 그래서 어디가 아픈지 직장이 맘에 안 드는지 물어봤다.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4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다. 그 비서의 남편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 그래서 그 비서는 이제 혼자서 두 사내아이들을 키워야 할 형편이었다. 그 후 4년 동안, 아동D는 그녀를 여러모로 도와주었다. 그는 그녀의 집을 수리해 주기도 했고, 두 사내아이들을 데리고 운동도 하러 다녔다. 점차 아동D는 비서와 사랑에 빠졌고 결혼했다. 마침내 아동D는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었다. 2009년, 그들은 결혼 20주년을 축하했다. 그 두 아들은 건강하고 행복하며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결혼하여 자녀를 갖고 있다. 아동D는 성공한 사업가, 남편, 아버지, 할아버지이다. 정기적으로 나는 그의 부인을 위해 기도한다. 그녀는 강하고, 용기 있고, 관대한 여성이다.

2003년, 아동C/낸시/토콜라 박사는 그녀 가족과 함께 몽골 울란바토로로 이사 갔다. 토콜라 박사는 국제인도주의운동으로 새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몽골의 월드비전에 취업해 HIV/AIDS 간사직을 얻었다. 이 직책은 상황분석,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 출산 및 보건업무 등을 수행한다. 그 외에 토콜라 박사는 몽골 월드비전의 '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한 어린이(Children in Especially Difficult Circumstance: CEDC)' 들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자문을 맡기도

했다. 1991년 소련 붕괴 후, 소련은 몽골에 대한 지원, 특별히 보건, 교육, 사회분야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여기에는 실업수당, 주택수당, 식품수당이 포함된다. 정부의 지원 없이 많은 가난한 몽골인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웠다. 아동에 대한 방치와 학대 그리고 유기로 인해 ‘길거리 아이들’이 늘어났다. 많은 사회단체들이 길거리 아이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몽골 월드비전은 사회복지사를 거리로 보내 이 아이들에게 ‘등대’ (Lighthouse)라는 새 시스템을 소개했다. 이때 낸시는 사회복지사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배웠다. 그리고 자신과 동생이 십대였을 때 사회복지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각 ‘등대’는 도시지역 아파트단지에 있는 큰 아파트였다. 각 ‘등대’에는 세 명의 ‘관리인(House parents)’이 있었고 이 관리인은 8시간 교대조로 음식, 세탁, 안전한 양육환경을 제공했다. ‘등대’에 머물고 있는 아이들이 나이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교사들이 이 ‘등대’에 와서 아이들에게 ‘비공식 교육’을 해주었다. 아이들이 나이에 맞는 진도를 따라잡았을 때 몽골의 정상적 공립학교로 편입할 수 있었다. 공립학교에서 ‘거리의 아이들’은 다른 급우들로부터 낙인 찍힐 우려가 있었다. 몽골 월드비전에서 ‘등대’를 익명으로 임대했기 때문에 거리의 아이들은 급우들에게 자유롭게 아파트 주소를 자기집 주소로 알려 줄 수 있었고 낙인 찍힐 우려가 경감되었다.

토콜라 박사의 ‘HIV/AIDS 반응 프로그램’은 ‘등대’와 몽골 공립학교 소년소녀들에게 일반생식보건교육을 제공해 주었다. CEDC 프로그램은 ‘등대’ 아이들이 원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아이들 부모들에게 직업교육이나 창업지원금을 제공해 주었다. 또한 많은 부모들이 알콜중독을 극복하고 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이들 부모들에게 심리치료를 제공해 주었다. 그래도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CEDC 프로그램을 통해 몽골정부의 사회복지사와 공동으로 아이들이 다른 좋은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다. 그러나, 많은 아이들은 월드비전이 대학학비와 기숙사비를 지원하기 시작하는 18세까지 ‘등대’에 머물렀다.

토콜라 박사는 몽골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회에서 방치되거나 학대당하고 버림받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몽골정부는 약 10개의 고아원을 운영한다. 이 아이들 대부분은 최소한 한쪽 부모가 있기 때문에 고아는 아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가난하여 아이들을 키울 형편이 못 된다. 개인적으로 한 외국여성은 인도주의적인 목적으로 길에서 십대 여아들이 매춘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약 25명의 십대 여아들을 그녀 집으로 초대했다. 다른 한

외국여성은 사설 고아원을 만들었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30명의 유아를 포함 약 130명의 고아들을 돌봐주고 있다. 2005년 토콜라 박사의 큰 아들은 보이스카우트 프로젝트를 통해 음식, 가구, 돈을 모금했다.

‘Women Deliver’는 여성단체로 "여성에게 투자하십시오, 수익을 냅니다(Invest in Women - It Pays)"라는 모토를 갖고 있다. 2007년, 토콜라 박사는 2명의 몽골인 동료들과, 런던에서 열린 ‘여성출산 컨퍼런스(Women Deliver Conference)’에 참여했다. 이 컨퍼런스는 세계은행,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인구기금에 의해 1987년에 ‘세계모성안전컨퍼런스(International Safe Motherhood Conference)’에서 시작된 ‘모성안전계획(Safe Motherhood Initiative)’ 20주년 기념으로 개최된 것이다. 의미심장하게, 이 컨퍼런스 참가자 중 60%는 여성, 40%는 남성이었다. ‘Women Deliver’ 단체는 1) 여성과 신생아 건강 향상, 2) 세계여성과 소녀 권리 증진, 3) 발전을 위한 재정자원 확장, 4) 인권증진(여성의 권리, 성평등, 빈곤해결, 폭력으로 부터의 자유), 5) 정치적 의지 건설, 이렇게 다섯 분야에 중점을 둔다.¹¹⁾

Part 5_결론: 권한강화에 대한 통찰

요약하면, 낸시는 역기능적인 입양 가정에서 자랐고 양부모는 그녀의 약점을 이용했다. 자신의 약점을 극복해 가는 오랜 여정 동안에, 낸시는 약점과 권한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배웠다. 권한이 늘어나면 약점은 줄어든다. 더욱이, 낸시는 권한이 저절로 생겨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평생 동안, 낸시는 정규 교육, 고용, 자원봉사, 모임에서의 공개토론, 워크숍, 세미나, 컨퍼런스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자 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약해지지 않도록 서로에게 힘을 실어 준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린 이번 ‘제1회 싱글맘의 날 기념 국제 컨퍼런스’ 역시 상호간에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권한강화는 그 자체로 목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권한강화는 또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인 것인가? 입양인으로서 자신의 상황을 몇십 년간 분석한 결과 낸시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고 기본적으로 필요로 했던 것이 ‘선택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그녀가 원했고 필요로 했던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목표와 직업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지원체계였다. 한 사람의 성숙도는 자신의 목표가 얼마나 자기를 위한 것인가 혹은 얼마나 타인을 위한 것인가에 따라서 측정될 수 있다.

11) 출처: <http://www.womendeliver.org>, <http://www.familycareintl.org>

1954년, 낸시의 생모에게는 아마 1950년대 미국 사회에 존재했던 싱글맘에 대한 낙인에 직면하여 아기를 키우느냐 혹은 포기하느냐의 실행가능한 선택권이 있었을 것이다. 만약 낸시의 생모가 낸시를 포기함으로써 더욱 권한이 생겼다고 느꼈다면, 낸시는 그 후 생모의 삶이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이었기를 바란다. 만약 낸시에게 아빠가 다른, 혹은 엄마가 다른 친형제가 있다면 낸시는 그들이 진정 행복하기를 원한다. 희망을 갖는 것은 긍정적인 태도다.

용서는 입양인들이 생부모, 양부모, 위탁부모 혹은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선물이다. 용서를 함으로써, 입양인은 너무 어리고, 너무 모르고, 너무 약해서, 어른들이 이 아이를 대신해서 한 복잡다난한 결정을 이해하지 못한 자신을 용서할 수 있다. 아이는 성장하면서, 교육을 받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 알아가고, 선택권에 대해서 배운다. 권한강화를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성인 입양인은 친구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만들 수 있다. 낸시가 고교시절과 대학시절에 많은 친구들을 만난 것은 축복이었다. 이런 오랜 친구들은 지금 낸시의 네 자녀들의 대부, 대모이다. 낸시는 심지어 애리조나주 입양문제를 다루는 가족법원 판사가 되려고 했던 오랜 고등학교 친구도 가족과 같이 생각한다. 인생은 때때로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결국에는 출발점으로 돌아오곤 하는 것이다.

"긍정적 권한강화"는 완전한 가족모토다. 소년과 남성의 권한강화는 소녀와 여성의 권한강화와 한 지점에서 만나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권한강화는 가정에서 시작해야 한다. 2011년에 낸시와 남편은 결혼 35주년을 기념했다. 이 가족은 지역 공동체 봉사활동도 소중히 여긴다. 낸시는 지역 보이스카우트에서 성인위원회 위원이며, 낸시와 남편은 보이스카우트 단원들이 다양한 상을 받도록 도와준다. 낸시의 세 아들은 이글 스카우트(Eagle Scout)에 속해 있다. 네 아이들은 교육을 중요시 한다. 장남은 대학원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란성 쌍둥이인 딸과 아들은 같은 대학에 다니며 서로 돕는다. 막내 아들은 행복한 고교시절을 보낸다. 네 자녀들은 문화적인 성취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이들은 클라리넷, 피아노, 기타, 비올라 등 악기를 다룬다. 장남은 양궁대회에 여러번 출전했다. 쌍둥이 중 딸은 단편소설을 쓰고 그림을 그린다. 쌍둥이 중 아들은 시를 쓰고 작곡을 한다. 막내 아들은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을 잘 한다.

네 자녀들은 세계시민으로, 지구촌 곳곳에 산다, 한 명은 유럽에, 둘은 미국에, 또 한 명은 아시아에 살고 있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들은 가장 중요한 심리적, 감정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가깝게 지낸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아빠는 국제경제분야에서 일하고 엄마는 인권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으며, 네

명의 자녀는 학창 시절에 모의유엔(Model United Nations: MUN)에 참가했었다. 그래서 네 명의 자녀들은 국제사회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한다. 또한 자녀들은 가족 구성원간에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한다. 낸시와 남편은 네 명의 자녀가 서로에게 항상 최고의 친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그것은 부모로서 이 부부에게 가장 큰 성취일 것이다.

낸시는 ‘제1회 싱글맘의 날’ 기념 국제 컨퍼런스를 위해 이 글을 쓰면서 치유의 깨달음을 얻었다. 그녀는 그녀 자신을 ‘엄마’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녀는 어머니이며,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인생에 있어서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역할이다.

질의응답

노금주 우선 낸시 토클라씨께 질문 있습니다. 낸시씨 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 입양인들에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국내입양 되었다고 하셨는데, 늦은 밤 양아버지가 당신 방에 들어왔을 때, 어떤 기분을 느끼셨나요? 그 당시에, 정말 두려웠나요?

낸시 토클라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전 그때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양아버지가 단지 저를 일찍 재우려 방에 오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때, 전 깨달았어요. 전 그 때 18살이었고 양아버지는 제가 10살 이후로 저를 재워 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가 마음속에 뭔가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70년대 초였기 때문에 그런 일을 밖으로 드러내기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서 저는 입양부모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아침식사를 했어요. 사실 저는 15~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분들을 ‘입양부모’ 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것 참 이상하죠?

고모 한 분이 계시는데, 고모는 항상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양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말거라. 그분들은 너의 진정한 부모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란다.” 그러나 제가 감지했던 위험과 같은 나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저는 제 마음 속에서 그들과 저를 분리해야 된다고 느꼈어요. 비록 전 그들을 마음속으로 계속 사랑하고 있었지만 ‘입양’ 이라는 단어가 입양부모와 저 자신을 분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된 후에 점차 상처는 치유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자신에게 물었죠. “나는 정말 아직까지도 입양부모들을 사랑하고 있을까?” 물론, 저는 현재도 그들을 사랑해요. 그러나 그들에 대한 생각은 달라요. 저는 그분들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었고 여전히 그들에게 원하고 기대하는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저는 그분들이 그들 자신의 세상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요. 그 후에 저는 이것까지도 깨달을 수 있었죠.

노금주 이러한 일들이 여성 입양인 분들에게 많이 일어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낸시 전 정확한 통계치를 갖고 있지 않지만, 통계를 검토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하는 아동의 집에서 아동의 인권이

유린될 때,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지에 관한 통계를 축소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제가 그 통계치를 살펴보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엘리 박 소렌슨) 저는 미리암씨와 예스씨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두 분 모두 한국에 와 계시고, 두 분 다 유럽에서의 경험과 한국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두 분이 입양인으로서 한국의 언론에 입양인이 재현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에 관한 견해나 혹은 직접 경험을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미리암 무슨 의미죠? 미디어에 나타나는 입양인에 관해서요? 희생자로 표현되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여겨지는지에 관한 것입니까?

사회자 네, 저는 단지 한국에서 당신의 일반적인 위치가 궁금해요. 당신들은 일상적으로 한국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스씨, 당신은 한국인이 입양인을 만날 때, 그들이 갖게 되는 공감과 동정 그리고 때로는 질투가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에 관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TV, 신문과 같은 미디어에 나타나는 입양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 지 궁금합니다.

예스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개인적 경험뿐이에요. 저는 입양인의 스토리를 어떤 예상된 내러티브에 맞추려는 일반적인 틀이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입양인을 인터뷰 하려는 사람이나 입양인에 관한 프로그램을 만들려는 사람들은 입양인 스토리가 어떻게 재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원가족과의 첫 재회나 입양인의 가족찾기, 성장과정에서 입양인이 겪은 어려움 등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질문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담론이 그것을 넘어 확장되길 바랍니다. 물론 입양인의 성장과정, 가족 찾기, 재회 등이 흥미로운 이야기이고, 특히 한국에 처음 온 사람들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서도 이러한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을 보는 것은 그다지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초반의 전형적인 입양스토리를 계속 반복하고 있고 정말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날 때, 또는 같은 사람을 다시 만날 때, 또는 어떤 사람을 우연히 만났을 때, 그들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것은 그들의 목표, 그들이 현재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입양인을 언어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혹은 그들이 성장한 나라에서 고난을 극복해낸 사람들로 규정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입양인 스토리는 그들 자신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가장 큰 부분은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것입니다. 향후 5~10년 후, 한국어로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입양인들이 많아지게 될 때, 우리는 입양인에 대한 내러티브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입양인을 "돌아온 아이"로만 재현하는 서술을 바꿀 수 있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입양인들은 더 이상 "돌아온 아이들"이 아니라 상황을 잘 알고 신중하게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는 '성인' 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네,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팽배한 입양인에 관한 내러티브, 고정관념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입양에 대한 최근 논쟁은 입양을 싱글맘의 문제와 연계하여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논란이 많은 이슈 중의 하나는 총체성(Totality)입니다. 총체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며 입양을 야기하는 근본 원인에 대해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컨퍼런스 주제인 "가족의 재정의: 입양을 넘어서 싱글맘 가족권리 보호로!"와 같은 내러티브가 한국으로 돌아온 입양인들의 역할을 변화시키거나 입양인에 대한 미디어의 관점을 바꿀 수 있다고 보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스 그렇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만약 미혼모가 상담을 받고 아이를 입양보내기로 결정을 한다면, 그러한 선택은 그녀 자신과 한국에 이후 30년 동안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저희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오늘날 그와 같은 선택을 한 사람들이 30년 후에 그들의 아이들이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같은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화된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이 한국 문화를 배고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친부모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적습니다. 덴마크에 있는 대부분의 한국 입양인들은 한국에 와본 적도 없고, 한국 문화를 전혀 모르고, 심지어 한글도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진심으로 사람들이 오늘의 선택이 미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년 후에도 이러한 컨퍼런스를 다시 개최한다면 우리는 실패한 것이겠죠.

사회자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하실 말씀이나 질문 있으신가요?

청중석의 해외입양인 이 질문은 예스씨와 미리암씨께 하고 싶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아동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앞의 세션에서 한 여자분께서 '버려지다' 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 분은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두 분은 '버려졌다' 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예스 제 개인적으로는 버려졌다고 느껴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열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경우에는 한국에 와서 입양서류를 봤을 때 삼촌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만일 입양부모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래서 저는 버려졌다고 느낀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버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질문은 그 선택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묻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덴마크에 있는 엄마들과, 한국에 있는 엄마들을 볼 때, 자신의 아이들을 돌보는 마음은 전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버려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저희 부모님이 무척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그게 안타까울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세대는 자녀를 입양보내지 않고 좀 더 나은 선택지들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리암 네, 저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저도 버려졌다고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환경이 좀 다르고 제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기를 바랐습니다. 근데 버림받았다? 아니요, 전혀요.

세션 4

당사자들의 목소리 Ⅲ:
아이 양육을 결정한
미혼모들의 이야기

감은남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회원

최형숙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외협력팀장

아카이시 치에코

일본 싱글맘포럼 비혼모회 대표

아키요시 하루코

일본 싱글맘포럼 비혼모회 회원

손야 벅달

미국 오리건주 콘코디아 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감은남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회원

저는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회원 감은남입니다. 저는 울산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떨릴 줄 알았으면 청심환이라도 먹고 오는 건데, 제가 이런 데 익숙치 않습니다. 혹시 제 사투리 때문에 조금 힘드시면 통역을 부탁드립니다.(웃음)

저는 울산에서 8개월 된 딸아이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저도 낙태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알아보던 시점인 작년 1월 즈음에 산부인과 의사들의 양심고백이 크게 이슈화 되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낙태를 더 이상 해 주지 않겠다 하며, 낙태시술 하는 곳을 서로 신고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을 방문해 보니 수술을 해준다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낙태술을 하려고 알아보니까 한 700만원, 그리고 주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해주는 경우는 1천만원을 요구했고, 중국 원정을 말씀하셨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한편, 앞에서 말한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그 당시 제 나이가 35살이었고 이제는 어느 정도 내 나이에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병원을 다시 찾아 16주된 아기의 초음파를 보는데, 아기의 심장소리가 들리고, 귀, 손가락, 발가락도 보였습니다. 도저히 그것을 보고 아이를 떠나보낼 수가 없어서 제가 키우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집에 애기를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만 이야기하면 도저히 어머니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복지시설과 기관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 저희 어머니도 좀 이해를 해주실 것 같아서 기관을 먼저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재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보았는데, 모두 입양을 보내야 한다는 조건 하에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입양을 보내는 조건에서 제가 혜택을 받고, 아기는 출산하자마자 해외 입양이나 국내입양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아기를 낳겠다고 결정을 내리기도 입양을 생각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저는 이 아이를 책임지려고 결정을 내렸는데, 입양을 보내게 되면 또다시 죄책감으로 평생 시달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양육을 하자고 결심했고, 아이를 낳고 현재 출산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임신을 하고 지금까지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길지 않은 1년이었지만 저에게는 의미가 깊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 나와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집안 식구들이 제게 힘이 되어주고 저를 이해해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지해준 환경적인 요인이 큼니다. 저는 사무실에 애기를 데리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애기를 낳으신 40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애기도 봐주시고, 우유도 먹여주시고, 제가 일하는 동안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시고 있고...(한동안 침묵)... 갑자기 막 목이 메이네요. 주위의 많은 도움을 받으며, 그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와서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은, 아기를 출산하고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러 가면서 한부모가정 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부모가정 신청은 소득기준으로 2인 가족 8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장을 내고 일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어서 소득세도 내고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장을 낸다고 해서 수억씩 몇 백만원씩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생존해 갈 수 있을 만큼의 돈만 버는데, 소득기준으로 나눠서 거기에서 제가 배제된다는 게 참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편견의 눈길 때문에 힘들 때도 있지만, 이러한 편견을 극복하는 일보다 제가 더 바라는 점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보다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저희 미혼모들이 아이를 양육하는 데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미혼모의 딸’, ‘미혼모의 아이’ 라는 그 말 한마디에 고개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길게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떨어져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숙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외협력팀장

안녕하십니까.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최형숙입니다. 저는 7살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7년 전 처음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몇 개월은 제게 너무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적지 않은 나이에 한 임신이었고 저로 인하여 생긴 생명이었기에 수술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 저는 입양과 양육 사이에서 또 다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했기에 미혼모로 살아가야 하는 일이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님을 잘 알았고, 저를 믿어 주신 부모님과 가족들, 무엇보다 태어날 아이에게 제 선택으로 인해 상처를 줄 것 같아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입양과 양육 사이에서 고민하며 힘든 날을 보내면서 여러 번의 입양 상담도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임신 사실을 모르고 계셨고 오빠는 오랫동안 지병으로 힘든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아이를 입양보내야 한다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 속에서도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딱 한번 아이를 안아보고 입양기관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다시 아이를 데려오기까지 아이를 입양기관에 맡겨 놓은 그 시간은 제 평생 아이에게 미안함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7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이로 인하여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제가 마시는 공기의 고마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아이와 함께 걸어온 7년 동안 저는 좌절도 많이 했고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또한 그것들을 이겨내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미혼모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와 눈물이 필요합니다. 나를 아껴주고 믿어주던 사람들도 미혼모의 길을 선택하였을 때 저를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이와 함께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힘든 것보다 사람들의 편견이 더 무섭고 힘들었습니다. 그런 편견들이 고스란히 제 아들의 몫이 될 것 같은 생각에 괴로웠고 아이에게 늘 미안했습니다. 지금도 그 두려움은 변함 없습니다.

출산 후 처음 취업을 하였을 때 제가 미혼모임을 알고 있던 사장님은 고객들에게 미혼모인 게 알려지면 인식이 나빠진다고 하시며 비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좋은 직장을 제안받아 옮겨갔지만 미혼모라는 사실 때문에 직장 동료들로부터 인격적인 모욕을 받았습니다. 5일만에 새 직장을 그만두야 했습니다. 저 혼

자라면 어떻게든 견딜 수 있겠는데 이런 일들을 제 아이가 겪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제 선택으로 인해 아이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 세상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아이와 함께 산 속에서 세상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변해야 한다고.

그렇게 시작하여 한국미혼모가족협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말해 주지 않았는데도 아이는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미혼모가 뭐야?”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엄마가 미혼모야. 엄마가 미혼모지.” “미혼모가 나쁜 거야?” “엄마가 나쁜 사람이야?” “아니.” “그럼 미혼모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엄마야.” 저는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희는 미혼모가 아니라 한 아이의 엄마일 뿐입니다. 그냥 보통의 엄마들처럼 아이가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고 아이가 먹지 못하면 함께 먹지 못하는 그냥 평범한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아빠와 함께 살지 않는다는 것, 아이를 혼자 양육해야 한다는 것 그 차이뿐입니다. 세상은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가 없다고 말하지만 세상에 아빠가 없는 아이는 없습니다. 모든 미혼모들은 서로 다른 사연으로 미혼모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엄마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책임감 있는 당당한 여성이고 아이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혼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강한 여성이자 엄마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 자신의 아이를 키울 권리가 있다고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보아스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아이는 자신을 낳아준 엄마와 함께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열 달을 아이와 함께 먹고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힘든 산고를 겪으며 아이를 낳은 많은 미혼모들이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세상의 편견이 두려워 아이를 포기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엄마들이 없어야 합니다. 저는 어디에서나 엄마가 미혼모임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제 아들에게 미혼모라는 단어가 없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엄마가 선택한 일로 인하여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훌륭한 엄마이기보다 아이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의 비혼모: 일본 비혼모의 실태

아카이시 치에코
일본 싱글맘포럼 비혼모회 대표

1

일본의 비혼모

일본 비혼모의 실태

赤石千衣子

2

비혼인 채로 아이를 낳았다고 말했을 때

- 아버지 : 곤란한 일을 만들었구나.
 - 어머니 : 어쩔 수 없지.. 응원할게.
 - 언니 : 어려워져도 좋으니까, 아이는 결혼해서 낳아.

 - 1981년, 나는 생활보호를 받으며 아이를 출산했다.
어려워도 반대는 생기지 않았다.
아이의 아버지는 도망갔다.
선배 비혼모들의 조언으로 도움을 받았다.
-

3

1984년, 육아수당삭감 반대를 위해 모였다.



4

1980년대 비혼모자녀에 대한 차별

- ☐ 출생신고 적출이 아닌 아이 = 비합법적인 아이
- ☐ 수당 비혼모는 첩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음.
- ☐ 상속 혼외자녀는 일반 자녀의 절반만 지급.
- ☐ 주민투표
- ☐ 호적
- ☐ 건강보험증
- ☐ 비혼으로 출산 → 해고
- ☐ 세금

5

비혼모 아동양육수당 차별에, 비혼모의
인권구제를 말하기 위해 일어서다.



6

1993년, 비혼모 모임을 만들다.



7

2000년대 차별을 없애다.

- 출산신고 적출이 아닌 아이 = 비합법적인 아이
- 수당 미혼모는 철아가 때문에 지급하지 않음.
- 상속 혼외자녀는 일반 자녀의 절반만 지급.
- 수만부부
- 호적
- 건강보험증
- 미혼으로 출산 → 해고
- 세금

8

2009년 세금차별과 싸우다.



9

비혼모의 증가

□ 1952년 1만 가구

□ 2006년 8만 가구

□ 혼외자녀출산률도 20년 전의 2배

10

목소리를 높여 회사를 변화시키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카이시이고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역사적인 자리에 제가 참석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일본 싱글맘포럼 비혼모회를 대표해 일본 싱글맘에 관한 간략한 프리젠테이션을 하겠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가진 저는 주위의 각각 다른 반응에 직면했습니다. 우선, 아이의 생부는 "니가 문제를 만들고 있잖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어쩔 도리가 없잖아. 그냥 참고 견디렴. 내가 널 도와줄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결혼을 최대한 빨리 해서 결혼 후에 아이를 낳는다면 누구에게도 문제될 게 없을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전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고 1981년 정부지원금을 받으며 출산했습니다.

제 아이였기 때문에 사실 아무도 제 결정에 반대할 수 없었고, 아이를 낳지 말라고 강요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아이의 생부는 도망쳤고 저를 실제로 도와주셨던 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싱글맘들이었습니다. 1984년 저를 비롯한 비혼모들은 육아수당 삭감에 반대하는 항의를 하기 위해 처음 모였으며, 왼쪽의 사진은 제 아들의 모습입니다(ppt 3).

지금부터는 1980년대에 비혼모들이 직면해야 했던 차별의 형태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이는 출생등록을 해야 하는데, 제가 아이의 출생증명서를 받으면서 처음 깨달은 바는 제 아이가 결혼제도 밖에서 태어났고 사실상 아이가 비합법적인 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일본에는 싱글맘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싱글맘인 비혼모들은 첩으로 여겨졌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관계자는 저희에게 "당신들이 첩인 한 우리는 어떠한 금전적 지원도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다른 곳에서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상속법에서 비혼모 자녀들이 '절반의 아이'로 여겨진다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호적을 등록하고 시민으로서 등록절차를 밟을 때에도 심각한 차별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건강보험 부분에서도 차별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료를 받으러 갈 때 제출하는 보험증에는 아이가 사생아라고 표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갈 때마다 차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비혼모들이 단지 임신을 했다는 이유와 비혼모라는 이유로 일을 그만두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다음 사진에서 오래 전에 머리가 짧았던 제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ppt 5). 이 사진은 우리가 정부에 항의하러 갔을 때입니다. 정부가 계획한 육아수당 지급이 비혼모들에게는 제한됨으로써 비혼모의 권리와 우리 아이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정부에 항의표시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ppt 6) 1993년도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 고유의 집단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일본어로 <히 콘 노 하 노 카이>라는 비혼모 작가 모임을 만들었고, 이것이 바로 그 시기에 찍혔던 사진입니다. 이 사진 속에 저도 있습니다.

제가 언급하고 싶은 매우 중요한 사실은 일본의 비혼모들은 한국어의 ‘미혼모’와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콘(mikon: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엄마)’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히콘(hikon: 결혼하지 않은 엄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히콘이라는 용어는 ‘아직’이란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결혼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송매체에 저희를 지칭할 때 ‘히콘’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에서(ppt 6) 여러분은 저의 또 다른 친구를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저희 단체를 대표하여 언론활동을 하면서, 일본 시민들과 전 세계에 저희 단체를 알리려고 아낌없이 노력하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ppt 4에서 80년도에 비혼모들이 직면했던 모든 차별 대우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와 같이(ppt 7) 기존의 차별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엔 비혼모들이 자녀 양육수당에 관해 차별을 받았으나, 현재 비혼모 자녀들은 적절한 양육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임을 인지할 경우, 그동안 제공되었던 양육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문제점 또한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성과는 더 이상 건강보험 부분에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비혼모라는 이유로 일을 그만두도록 요구하는 경우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는 문제들 중의 하나는 바로 세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사진을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ppt 8). 이 사진은 제 두 친구의 사진인데요, 이들은 2009년에 세금감면에 관한 정부의 차별정책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항의하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언급하고 싶은 것은, 현재 일본 비혼모 수가 전에 비해 몇 배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1952년 비혼모 가구는 1만 가구였는데, 2006년에는 8만 가구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지난 20년간, 혼외자녀 출산률이 1%에서 2%로 2배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제가 한국 비혼모에 관한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한국 비혼모에 대한 처우와 지원이 일본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본 비혼모들이 받고있는 지원과 혜택이 한국의 비혼모들이 받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본정부가 비혼모들을 지원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께 몇 가지 수치로 일본 상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수치는 비혼모들이 받는 양육수당입니다. 비혼모들은 매달 약 50,000엔(4000\$ US)의 양육수당을 받고 있으며, 아이들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둘째 아이를 갖게 되면, 5,000엔 정도만 더 추가하여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치는 일본 일반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금으로, 13,000엔이며, 자녀를 가진 모든 이들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저희 비혼모들은 위에서 언급한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해당하는 양육수당을 모두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와 교육 관련 정부지원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부모 가족의 54.3%가 빈곤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일본 비혼모들이 받는 정부지원의 수준은 한국 비혼모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 수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한국 비혼모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 일본정부 수준으로 비혼모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비혼모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일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미래를 위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는, 본 컨퍼런스의 주제인 "Moving from Adoption to Family Preservation"을 읽으며 든 생각입니다. ‘가족 보존(Family Preservation)’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견해로는 가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족이란 오직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이들이 때때로 여러 다른 환경에서 양육되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을 발견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 관해 언급할 때, 이 점을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는대로 지난 3월 11일에 일본 북부지역에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재해가 일어났던 지역에 일본의 많은 싱글맘과 미혼모들이 거주하고 있고, 이들의 빈곤하고 열악한 삶의 환경 때문에 다른 이들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들이 더 많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키요시 하루코
일본 싱글맘포럼 비혼모회 회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키나와에 거주하고 있는 아키요시 하루코입니다. 현재 11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딸의 이름은 아키요시 치부미(Akiyoshi Chibumi)입니다.

저는 오사카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오키나와에서 제 딸을 낳았고 현재까지 이곳에서 딸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기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지만, 많은 분들이 그동안 저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셨고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현재 밝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오키나와는 미혼모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의 전체 모자가구의 10% 이상이 미혼모 가정입니다. 또한 오키나와는 수입이 가장 낮은 지역이며, 남존여비 사상과, 남아선호 사상이 무척 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지역에 많은 미혼모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곳 오키나와에서 제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는 ‘유족으로 남겨진 미망인 가정에 대한 세금 공제’를 미혼모 가정들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미혼모들과 그 자녀들은 두 가지 종류의 법에 의해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에 대한 차별입니다. 혼외로 태어난 자녀의 경우,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가 받는 상속분의 절반 정도밖에 상속받지 못합니다. 이는 혼외로 태어난 아이들은 적절한 상속권조차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법적 차별은, 미혼모인 어머니들에 대한 차별입니다. 미혼모는 결혼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미혼모 가정은 사별로 아버지를 잃은 모자 가정과 이혼으로 인해 아버지가 부재한 모자 가정에 제공되는 세금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차별적인 법을 더욱 평등한 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시간과 많은 이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회적 소수자인 미혼모들이 가진 힘은 미약하며, 그러한 우리들이 한 나라의 법을 바꾸는 길은 무척이나 긴 여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비록 길고 힘든 과정일지라도, 미혼모들이 젊어지고 있는 무거운

부담을 덜어주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미혼모 가정이 적어도 양육비에 관해 사별가정이나 이혼가정들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정부에 수많은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들은 오키나와현의 기노완시가 내년부터 미혼모 가정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내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렇듯 변화는 천천히 진행되지만, 미혼모 가족이 사회에서 당당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미혼모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한국의 미혼모 가족들과 함께 우리들의 경험들과 정보들을 나누며, 서로에게 많은 도움과 협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제 딸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아 백달

미국 오리건주 콘코디아 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손아 백달 박사는 콘코디아 대학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책임자이다. 현재 단국대학교 죽전 캠퍼스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다. 그녀는 미국의 저소득층 싱글맘에 대해 조사했고, 임상사회복지사로서 많은 한부모들에게 치료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백달 박사는 1982년부터 1989년까지 한국에서 살았고, 그 때 두 아들을 낳았다. 두 아들과 한국인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 이혼을 하고 한부모가 되었다. 그녀의 아들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했고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그녀는 사회복지사로서 모든 아동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양육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 구조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성인이 된 두 아들의 아버지는 한국인이며 두 아이들 모두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미국으로 이주했다. 두 아이들의 성장기 대부분 동안 나는 한부모였다. 그들은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 자립해 살고 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도전적인 일 중의 하나이다. 특히 양육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을 때 더더욱 그러하다. 아이들은 그들의 삶에 연루된 어른들이 많을수록 혜택을 받는다. 조부모, 이모, 삼촌이 없는 아동들은 엄마, 아빠 모두 없이 성장하는 아이처럼 무언가를 놓치게 된다. 가족이 없거나, 그 자녀들의 삶에 관계할 수 있는 어른이 주변에 없는 싱글맘의 상황은, 주변에 양육을 도와줄 다른 성인 없이 자녀를 키우는 부부의 상황보다 조금 더 나쁠 뿐이다. 그리고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는 행복한 싱글맘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아이를 양육하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내 삶은 아이들의 아버지가 떠난 이후로 한결 편안해졌다. 운이 좋게도 근처에 나를 지지해 주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내 아이들을 성공적으로 기를 수 있었던 또다른 필수적인 요소는 엄마역할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보수가 좋고 안정적인 직업이었다. 사회복지학 교수로서 나는 매우 가난하게 사는 싱글맘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대부분의 엄마들이 그들 자녀를 잘 양육하려는 의욕이 놀라울 정도로 높았다는 것이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싱글맘들은 아주 지혜로우며 종종 아이들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기도 한다. 그들은 돈이 없어도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게 놀며, 종종 다른 엄마들과

연락을 취해 도움을 주고받기도 한다. 대개 싱글맘이 가난한 주요 원인은 그들이 아이를 돌보려는 책임을 지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부모가 됨으로써 직장 선택이 제한되고, 혼자 생활하는 것보다 생활비도 더 많이 들어간다.

사회는 어머니들이 하는 중요한 일로부터 이득을 얻는다. 사실 사회는 대개 여성들에 의해 수행되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무보수인 돌봄노동에 의존하고 있다. 사회의 아이들을 돌보는 여성을 의존적이라고 여기는 반면, 누군가가 자녀를 돌봐주고 있는 동안 돈을 벌고 있는 남성은 의존적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다양한 지점에서 어떤 것은 기여하고 또 어떤 것은 필요로 하는 상호의존적인 존재들이다.

전세계적으로 아이들이 성공적으로 양육될 수 있는 다양한 방식- 다세대 가족 안에서, 그들의 친척들과 함께, 두 명의 부모, 혹은 한 명의 부모와 함께-들이 존재한다. 사회는 돌봄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돌봄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 한국의 문제는 싱글맘이 그 자녀를 키우기로 결심하고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다하려고 할 때, 그들의 돌봄노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인정되지 않고, 보상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반대로 싱글맘은 낙인찍히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돌봄노동을 하는 것에 대해 비난받는다. 선진국 대열에 오른 한국사회는 책임을 짊어지고 자신의 자녀들을 지키고 돌보려는 싱글부모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지원은 정부의 매달 생활지원금일 수 있고, 아이 아버지의 금전적 지원일 수도 있고, 아이의 대가족으로부터 나오거나 싱글맘을 위한 유연한 고용기회로부터 나오는 것일 수도 있으며, 이것들이 결합된 형태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사회가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중요한 책임을 기꺼이 수용한 싱글맘에 대해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적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세션 5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응답

임애덕

제주도 미혼모의 집
‘애서원’ 원장

박은성

인천 부자보호시설
‘아담채’ 원장

최병옥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신경과 전문의

김혜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정책센터 센터장

Single mom으로서 Good mother를 꿈꾸며

임애덕

제주도 미혼모의 집 ‘애서원’ 원장

전국이 싱글맘 이슈로 들쭉인다. 드라마도 싱글맘 스토리가 아니면 재미가 없다. 싱글맘이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는 것 이상으로 대중매체는 싱글맘을 많이 다루고 있다. 그만큼 관련 전문가들은 싱글맘이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급진적 변화의 대표적 양상임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20대나 30대의 미혼모들은 한부모 복지대상에 편입되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인 한부모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10대 미혼모는 계속 증가해 왔지만, 본격적 개입은 없었고 입양과 같은 소극적 정책을 취해왔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와 입양이 쉽지 않았다. 프로라이프운동과 더불어 저출산 문제는 낙태금지법을 강화시켰다. 이에 2010년부터 청소년 미혼모들을 위한 적극적 개입이 시작되었고, 청소년 미혼모들을 위한 대안학교가 시작되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안학교를 위한 조례를 제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10대 미혼모의 성공적 자립의 기회를 마련하면서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보육문제이다. 20대~30대의 싱글맘의 경우 교육을 받고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면 큰 문제없이 전문직 여성으로서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미혼모가 안고 있는 공통된 문제는 보육, 직업훈련, 재결혼의 문제이다.

시설에 입소해 있든 재가서비스 대상자이든 대개 미혼모들은 자신의 자녀양육과 직업, 혹은 학업지속이라는 양자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미혼모자 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그룹홈에 머무는 미혼모뿐만 아니라 이미 퇴소한 미혼모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업, 학업 그리고 보육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계속 부딪히게 된다. 이미 정부지원이 100% 되고 있는 보육시설 이용권이 있지만, 아기들은 자주 아파서 병원에 가야한다. 미혼모가 직장을 다니거나 학업지속을 하고 있을 경우,

보육기관에서는 아기가 아팠을 때 아기를 병원에 데려다주기보다는 부모가 와서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아기양육에 대한 보조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육시스템과 직업이나 학업의 조화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하여 아기돌보미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찾아가는 아기돌보미가 더욱 확대되어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아기가 일정기간 동안 성장할 때까지 아기돌보미에 대한 지원책이나 보육지원책을 아기 엄마에게 지원해야 할 것이다. 반드시 시설이동을 강요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아기가 매우 어린 36개월 미만의 아기의 경우 보육비나 아기돌보미 지원제도가 아기 엄마 당사자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어야 한다. 대학에 다니며 학업을 지속하고 있지만 수업에 지장이 있을까봐 두려워하는 아기 엄마를 위해 대학이나 평생교육기관에서는 아기 돌봄을 위한 센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평생교육시스템의 일환인 직업훈련에 관한 논의이다. 직업훈련을 위하여 국비와 지방비 매칭 펀드로 6개월간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6개월 직업훈련 생계비를 받을 경우, 이후에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도록 지침이 되어 있다. 6개월간 직업훈련을 받고 자활을 한다면 매우 효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정책이 될 수 있지만, 사실 개인적 능력 차이와 학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6개월만에 자활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각 직업훈련기관에서 충분히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어도 1년 이상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로 재결혼의 문제는 매우 복잡한 가치관의 변화가 개입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식개선사업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드라마를 통한 전국민 대상 의식개혁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드라마뿐만 아니라 실제 일선에서 의식개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을 통해 다양한 가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대대적인 인식개선과 홍보사업을 펼치는 것 이상으로 미혼한부모가족 수용을 위한 홍보사업을 해야 할 것이다. 싱글맘의 확대는 당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의 다양한 대책들 가운데서 인식개선사업이 주요사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아울러 자녀교육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싱글맘뿐만 아니라 좋은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 게다가 혼자서 아기양육과 직장 그리고 학업 등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지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지지 외에 싱글맘 자신도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교육받고 다양한 노력들을 꾀해야 할 것이다.

미혼부자가정의 생활실태와 지원방안

박은성
인천 부자보호시설 ‘아담채’ 원장

국내 최초 부자보호시설인 아담채 시설장 박은성입니다. 아담채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정원은 20세대 60명으로서 저소득층 부자가정인 아버지와 18세 미만의 자녀들이 생활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아담채에서 생활하고 있는 미혼부자가정 김동길(45세)씨에 대한 생활실태와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생활실태

어느덧 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살아온 지가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힘이 들었던 점과 살면서 느낀 점, 사회에 바라는 점을 진솔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월세방(월세 25만원)에 방 2칸, 화장실, 거실이 있는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아내와 함께 살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37세 동갑내기로서 동거생활을 하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약 1년 후 딸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내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전부터 있었던 치매증상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딸아이는 심장에 이상이 있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병원 의사선생님께서도 수술이 불가하니 1년 후에 수술을 하자고 제의하였습니다.

약 1년 정도 어머니의 괴롭힘을 당한 아내는 결국 저와의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중간 역할을 잘 못했던 점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아이를 위해서 제가 같이 살자고 애원도 설득도 여러 차례에 걸쳐 해보았으나, 결국 저희는 헤어지기로 하였고, 아이는 제가 양육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왜 남자가 아이를 키우냐고 하였지만 저는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는 딸아이 엄마의 말에 제가 키우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고아원이나 해외입양을 생각해 보았으나, 제가 어렵고 힘이 든다고 해서 차마 제 딸아이를 그렇게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우선 아이를 24시간 보육해 주는 어린이집에 맡겼습니다. 월요일에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토요일 저녁에 집으로 다시 데려오는 생활을 1년 정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삶은 한마디로 매우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변변한 기술이 없어서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였는데 이나마도 안정이 되지 않아서 장사가 잘 안되면 해고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병세도 점점 심해지면서 집을 나가시면 돌아오지 못하여, 파출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오면 즉시 찾으러 가는 일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세 분의 누님과 두 분의 형님에게 상의를 드린 후에 노인요양원으로 모시기로 하였고, 비용은 형제, 자매 각자 10만원씩 매달 모아서 비용을 송부해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열심히 일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직 딸아이만을 생각하면서 살려고 노력했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밤에 외로움이 들때면 술을 마시기 시작했으며, 술의 힘을 빌어 현실에서도 피하고픈 마음도 들었고, 가끔 최악의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이런 점이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싱글대디의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더 나아지는 점이 없어 월세, 공과금, 노인요양원 비용, 아이의 보육료를 내고나면 남는 것이 없는 하루하루의 삶이 연속되었습니다.

아이가 돌이 될 무렵 길병원에서 심장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소개해 준 심장재단에서 수술비를 지원해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의 병으로 인하여 아이는 2년 정도 성장이 멈추었습니다. 현재 아이는 7살인데, 5살 정도의 키와 몸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이 또한 엄마의 보살핌이 부족하고 아빠 혼자 힘으로 자녀를 키우는 데 힘든 점 중의 하나입니다. 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제 욕심으로 인하여 입양 가서 잘 살 수 있는 아이의 앞길을 막는 것은 아닌지, 잘 보살펴주지 못해서 아이가 그릇된 길로 가진 않을까 항상 걱정하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빠인 저의 책무를 다하여 딸아이가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동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자보호시설인 아담채가 있으니 가서 면담을 해 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담채에서 면담을 마치고 건강검진을 하여 제출한 뒤 약 2주일 후에 아담채 입소결정이 내려져서 3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아담채에 입소하였습니다. 아담채의 주거시설은 방 2개, 화장실, 거실, 베란다가 있으며, 식당에서 하루 세 끼의 식사도 제공되고 학생의 도시락도 싸갈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료, 전기료, 가스료 등 모든 제세공과금은 무료이며 아침에는 자녀들을 학교에 승합차로 등교시켜주고 저녁에는 학교에서 데려다 주니까 부모입장에서는 많이 안심이 됩니다.

아담채에서 생활한 지가 2년 정도 되었는데 그동안 부채도 거의 다 갚고, 저축도 조금 하였습니다. 아담채 거주기간 3년이 만료되어 다시 사회에 복귀하여 살아갈 것을 대비하여 주택구입자금 및 딸아이 교육비용을 저축해야 한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딸아이를 양육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것은 부자보호시설인 아담채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2. 지원방안

1) 부자보호시설 증설

앞으로 저의 바람은 국내 최초 부자보호시설인 아담채와 같은 부자보호시설이 전국적으로 각 시도별로 한 곳씩이라도 설치됨으로써 경제적, 심리적으로 매우 어려운 싱글대디들의 자립심을 키워주는 데 보탬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잘못되고 그릇되고 절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싱글대디들이 꿈과 비전을 갖고 자녀들을 마음놓고 양육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 자녀양육과 교육

미취학 및 초등학생(1~3학년) 자녀를 둔 싱글대디들은 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원만한 직장생활을 하기가 매우 힘든 형편입니다. 또한 초등학생(4~6학년) 및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싱글대디들은 자녀교육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싱글대디들의 자녀양육과 교육지원 방안으로서 미취학 자녀들에게는 무상 보육실시와 자녀 1인당 양육비 30만원 지원, 초등학생 및 중학생 자녀들에게는 자녀 1인당 양육비 50만원 지원,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들에게는 양육비 70만원

지원을 제안합니다. 특히, 싱글대디 초등 및 중·고등학생들이 일반학원에서 수강할 시에는 수강료 50% 할인,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시에는 등록금 50% 감면 등의 지원을 제안합니다.

3) 주거생활 안정

대부분 싱글대디들을 월세를 내고 주거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싱글대디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시·구청 등에서 영구임대주택, 전세·매입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입주신청을 받아 입주권을 배정할 시에 싱글대디들에게는 우선 입주권을 부여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3. 취업

싱글대디들의 취업실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고, 특히 동절기(11월~익년 3월)에는 일자리가 없어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싱글대디들의 취업지원 방안으로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및 취업박람회 등과 연계하여 취업시켜주는 것과 무료로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고 직업훈련기간 동안 싱글대디들에게 일정액의 생계비를 지원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지원방안으로서 1)부자보호시설 증설 2)자녀양육과 교육 3)주거생활 안정 4)취업 등이 정책에 반영되어 조속히 시행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사회에서도 저와 같은 싱글대디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고 그릇된 편견을 버려주시고 이해해주셔서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사회풍토를 조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딸아이를 잘 양육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딸아이가 잘 자라나서 어른이 된 후에 받은 사랑을 남을 위하여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가르치며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로 나의 아이를 남의 손에 양육되지 않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드리며 앞으로 저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딸아이 양육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의 질병과 유전자

최병옥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신경과 전문의

서론

질병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단일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 발병하며, 증상의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발병 여부는 멘델의 유전 법칙에 매우 충실합니다. 또한 유전적 결함과 발병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유전자 검사 결과는 단순한 경향성이나 발병의 가능성 제시가 아닌 확진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많은 환자들에게 정확한 유전자 검사 진단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질병의 위험 인자를 가지게 될 사람을 예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질병의 예상되는 미래 경과인 예후 및 치료 가능성에 대해 환자들에게 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착상전 진단법 등을 통하여 질병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지 않도록 단절시킬 수 있다면 결국 질병의 일부를 치료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 돌연변이와 그 발병 기전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진단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치료적 접근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유전자는 핵산(deoxyribonucleic acid, DNA)으로 구성되어 유전 정보를 선대에서 자손으로 전달하는 몸의 청사진과 같은 기능을 하는 물질입니다. 이들은 각 세포에서 중앙의 염색체(chromosome, 세포분열 시 핵 속에 나타나는 굵은 실타래나 막대 모양의 구조물로 유전 물질을 담고 있다)라고 불리는 구조물이나 핵(nucleus) 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각 염색체에 위치한 유전자들의 염기서열(유전자를 결정하는 염기 A, C, G, T들을 순서대로 붙여 놓은 것)은 이들 염색체를 가진 세포들에게 어떻게 성장하고 조절될 지에 대한 명령 세트를 제공합니다. 아기는 태어날 때 각 부모로부터 이러한 명령 세트를 하나씩 물려받아 한 쌍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유전자들은 염색체를 구성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손의 성별을 결정하는 성세포가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것을 제외하고는 각 세포 내에 46개의 염색체를 가지

고 있습니다. 대부분 세포의 46개 염색체 중 23개는 어머니에게서 오고 나머지 23개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습니다. 각 염색체 상의 유전자들 또한 어머니에게서 받은 유전자와 아버지에게서 받은 유전자가 만나서 한 쌍을 이루어 존재합니다. 성염색체인 마지막 염색체 쌍은 여자의 경우 두 개의 X 염색체를, 남자의 경우 하나의 X 염색체와 하나의 Y 염색체를 가집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X 염색체를 하나씩 물려받으면 여자가 되고 어머니로부터 X 염색체를, 아버지로부터 Y 염색체를 물려받으면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DNA는 유전자를 이루는 블록이며 A, C, G, T의 알파벳으로 표현되는 네 종류의 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염색체는 “p”라고 불리는 짧은 팔과 “q”라고 불리는 긴 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염색체는 여러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각각의 부분에는 번호가 매겨집니다.

돌연변이

유전자 또는 염색체가 손상되었을 때 생기는 변화를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염색체는 책장처럼 구성된 구조물과 같고, 유전자는 책장에 꽂혀 있는 많은 책들과 같습니다. DNA는 하나하나의 철자로서 함께 조합되어 책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책에 오타가 있거나 페이지가 빠졌거나 더 많이 있다면 책의 내용이 변하게 됩니다. 유전자의 DNA 상에 존재하는 돌연변이는 책의 오타에 해당합니다. 유전자라는 “책” 속에 생기는 모든 돌연변이는 부적절한 방식의 기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 자녀에게 전달되는 염색체 및 유전자 세트의 한 부분에 돌연변이가 있었다면 이는 아이들에게 유전될 수 있습니다.

유전자는 몸의 구성과 외양 및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로 유전자에 내재된 명령은 몸에서 필요한 단백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대부분 쌍으로 존재하며 각 쌍 중 하나의 유전자는 어머니의 난자에서, 다른 하나는 아버지의 정자에서 물려받는데, 10만 개의 유전자 쌍 중 간혹 하나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돌연변이가 생긴 유전자는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몸의 해당 부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전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돌연변이는 보통 부모 중 한 명에게서 물려받으며, 여러 세대를 거치는 동안 가족 내에 존재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유전자 변이가 본인에서 처음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새로운 돌연변이(de novo mutation)’라고 합니다. 이런 새로운 돌연변이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은 아니지만 남자든 여자든 본인에서부터 자손에게 대물림될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돌연변이들은 다양한 질병을 유발합니다. 하나의 염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변이를 ‘점돌연변이(point mutation)’라고 부릅니다. 다른 유형의 변이들에는 없어야 할 염기들이 끼어든 ‘삽입’, 일정 부분의 염기들이 빠져버린 ‘결손(deletion)’ 그리고 하나의 유전자 전체가 두 번 이상 중복 존재하는 ‘중복

(duplication)’ 등이 있습니다.

유전자가 같은 증상이나 질병을 유발하더라도 가족에 따라 여러 가지의 다른 돌연변이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같은 가족 내에서는 동일한 돌연변이만 발견됩니다. 아주 드물게 한 환자에서 두 가지 질병을 유발하는 두 개의 돌연변이가 동시에 발견된 예가 있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유전 양상

인간의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유전되는 가장 보편적인 양상은 보통염색체 우성입니다. 보통염색체는 남자든 여자든 유전자 돌연변이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성은 무작위적으로 어머니에서 하나 아버지에서 하나씩 물려받은 유전자 한 쌍 중 하나에만 돌연변이가 있어도 질병이 발생할 위험도가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어떤 질환이나 유전 형질은 우성인 것보다 열성인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열성 유전자의 질환이나 유전 형질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한 쌍의 유전자 모두 돌연변이를 가져야 합니다.

보통염색체 우성

대부분의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 돌연변이는 보통염색체(상염색체) 우성 양상을 가집니다. 보통염색체 우성 유전 질환은 양쪽 부모로부터 각각 물려받은 한 쌍의 유전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질병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으면 그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에 대해 우세하게 작용하여 질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부모의 보통염색체 우성 유전자는 자녀에게 유전될 확률이 남녀에 상관없이 50%입니다. 유전자를 물려받은 자녀는 부모와 비슷한 징후를 보이는데 부모에 비해 더 심하거나 덜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 같은 성질을 이질적 발현이라고 하며 보통 염색체 우성 질병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부모로부터 돌연변이 유전자를 물려받지 않은 자녀는 질병이 유발되지 않으며, 자손에게 유전되지도 않습니다.

보통염색체 열성

보통염색체 열성 유전병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질병 유전자를 하나씩 물려받았을 때 생깁니다.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각각의 유전자들이 모두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한 쌍 모두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지게 될 때 질병이 발현됨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유전자는 정상이고 다른 하나의 유전자에서는 돌연변이를 가진

환자는 보인자(숨겨져 있어서 나타나지 않는 유전 형질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인자는 질병 해당 증상이나 특징을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가 모두 보인자인 경우라면 매 임신 시 25%의 확률로 보통염색체 열성 유전되는 질병이 자녀에게 유전될 수 있습니다.

보통염색체 열성 질병의 유전 형질을 가진 사람은 본인의 각 자녀에게 자신의 유전자 중 하나를 물려주게 됩니다. 이 환자의 배우자가 질병 보인자가 아니라면 자녀들에서 질병이 유발되지 않지만 보인자는 될 수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배우자가 보인자인 경우는 50%의 확률로 자녀에서 질병이 발현됩니다.

X-염색체 관련 우성

남성은 XY, 여성은 XX로 한 쌍의 성염색체를 가집니다. X 연관 유전은 X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의 단일 돌연변이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남자는 X 염색체가 하나이므로, 질환을 일으키는 인자를 가진 X 염색체를 가지게 되면 반드시 질병이 나타납니다. 부모 중 어머니가 질병 인자를 포함한 X 염색체를 가진 보인자라면 50%의 아들에게서 질환이 나타나며, 딸의 50%도 보인자가 됩니다. 반면 아버지가 질병 인자를 지닌 X 염색체를 가진 경우 아버지는 그 질환의 증상을 보이며, 이 남성의 딸은 모두 보인자가 되고, 아들은 모두 정상입니다.

CMTX1을 유발하는 유전자는 GJB1이라는 X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입니다. 여자는 자신의 X 염색체 두 개 중 하나를 딸이나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여자 CMTX1 환자가 자신의 GJB1 유전자 중 하나에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으면 딸이나 아들이 돌연변이가 있는 GJB1 유전자를 물려받을 확률은 50%입니다. 아들이 물려받게 되면 결국 질병이 유발되지만 딸이 물려받게 되면 확실한 증상을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 딸에게는 자신의 X 염색체만 물려주고 아들에게는 Y 염색체만 물려주므로 CMTX1 가족에서 아버지가 환자라면 아들에게는 유전되지 않지만 딸들에게는 모두 유전됩니다. 아들은 본인에게도 변이 유전자가 내려오지 않고 이후 자녀들에게 대물림되지도 않습니다. 환자인 딸은 증상이 확실히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변이 유전자를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능성을 가집니다.

CMTX형 가족에서 남자 환자들은 보통 여자 환자들보다 좀 더 눈에 띄는 증상을 보입니다. 여자들도 남자들과 동일한 가능성으로 변이 유전자를 가질 수 있지만, 사실 GJB1 돌연변이를 가진 여자들은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매우 경증인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성의 일부는 여성에서의 ‘무작위적 X 불활성화’ 현상에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X 염색체쌍 중 하나가 무작위적으로 ‘꺼지는’ 발달의 초기 단계 현상입니다. 만약 GJB1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진 X 염색체가 말초신경계를 구성할 세포에서 더욱 빈번하게 불활성화된다면 이 여자 환자는 좀

더 형질(유전자 활동에 의해 생긴 모양이나 속성)이 가벼울 수 있고, 반대로 GJB1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진 X 염색체가 ‘켜져 있는’ 상태로 좀 더 빈번하게 남아 있으면 이 여자 환자는 형질이 좀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여자 환자의 질병 증상에 관여하는 다른 인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X-염색체 관련 열성

성염색체 열성 유전 양상에서는 어머니가 가진 두 개의 X 염색체 중 하나에 유전자 돌연변이가 존재하고, 이것이 아들에게 전달될 때 질병이 발생합니다. 어머니가 하나의 X 염색체에 돌연변이를 가진 유전자를 포함할 경우 아들이 환자가 될 가능성은 50%입니다. 딸도 어머니로부터 유전자 돌연변이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50%이지만, 딸에서는 질환이 발생하지 않고 보인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에서 환자인 아들이 태어날 확률이 25%, 보인자인 딸이 태어날 확률이 25%가 됩니다. 아버지의 X 염색체는 딸에게만 내려가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성염색체 열성 유전 양상의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을 경우, 이 유전자 돌연변이는 딸에게만 전달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딸에게서는 질병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결국 성염색체 열성으로 유전되는 질병은 남자에게서만 발생합니다.

질병과 유전자 검사

유전자 검사는 혈액으로부터 DNA를 분리하여 유전자 돌연변이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 원인 질병 유전자 DNA의 중복 또는 결실, 그리고 돌연변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유전병 표현형에 대해 의심되는 경우 필수적이며 질병의 정확한 진단 및 분류를 위해서 유전자 검사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질병의 증상은 원인 유전자에 따라 비교적 뚜렷한 표현형을 보이지만 같은 유전자 이상을 가진 동일한 가족 내에서도 표현형의 이질성으로 서로의 증상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전자 검사를 계획할 때는 모든 신경병증 표현형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병의 진단에서는 항상 포괄적인 가족력을 유도해 내야 합니다. 많은 경우의 질병 환자들이 새로운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경병증의 가족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유전자 돌연변이가 유사한 표현형을 유발할 수 있고(유전적 이질성) 다양한 표현형이 같은 유전형에서 유발될 수 있습니다(표현적 이질성). 일차 유전자 검사는 임상 양상, 유전 양상 및 전기생리학적 양상을 지표로 해야 하고, 빈도 높은 유전자 이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유전자 검사는 과연 얼마나 정확할까?

질병의 표현형은 다양한 유전자에서 돌연변이들이 규명되어 이 중 여러 개는 상용화된 유전자 검사를 통해 밝혀낼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들에서는 유전자 검사가 확립된 병원성 돌연변이 진단에 높은 특이성과 민감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환자에서 질병을 선별해야 하는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 다발신경병증의 가족력을 가졌거나 가지지 않아 선별된 전형적 질병 표현형의 환자들에서 다양한 돌연변이의 빈도를 조사했을 때 이들 환자들에서 유전자 검사의 산출도는 비교적 높았습니다.

유전 양상, 전기생리학적 검사 결과 및 특이 돌연변이의 관계를 고려할 때, 유전신경병증의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에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순차적 진단을 따를 때 효용이 증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경병증 유형이 우선적 탈수초성인지 우선적 축삭형인지 결정하기 위해 전기생리학적 검사 결과를 포함한 임상적 분류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전기생리학적 검사 결과는 간혹 어린이들에게서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의사들은 증상을 나타내는 어린이들에게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바로 유전자 검사 진행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유전 양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정보에 기초하여 가장 적합한 유전자들의 검사가 수행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의 시행

원인 유전자나 관련 돌연변이들이 밝혀지면 연구자들은 질병의 위험성이 있거나 환자일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해당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특정 진단을 내리거나 확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기도 하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받는 과정은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질병 유전자들은 종류가 다양하고 돌연변이도 많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어떤 유전자가 원인이 되었을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상이 뚜렷한 첫 환자에게서 검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질병 원인 돌연변이가 발견되면 진단이 확정되고 다른 가족들이 같은 유전자 돌연변이를 검사받을 수 있게 됩니다. 돌연변이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는 환자에게 질병이 없는 것이거나 질병이 있지만 그 가족의 돌연변이가 아직 규명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유전자 검사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유전학적 연구의 지속적 발전이 진행되면서부터 질병 환우협회나 유전 상담 및 검사가 가능한 병원과의 접촉을 유지하여 질병 유전자 검사 관련 정

보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는 진단을 확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병과 유사한 증상은 다른 신경계 질병들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간혹 진단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양성이라면 정확한 진단이 확정되어 의사가 환자들의 질문에 더욱 적절하게 대답하고 적합한 처치와 관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질병을 완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진단이 된 이후의 진행을 완전히 막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인 질병 유형도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질병 유형에 적합한 다양한 치료법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가족 중 한 사람에게서 유전학적 진단이 나오면 다른 구성원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의학적 증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자신들에게 질병이 발병할 가능성 및 자녀들에게 물려줄 확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가족 구성원에게는 임신 중인 아기가 질병을 가지게 될 지를 알아보기 위한 산전 진단을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환자들은 질병 자체에 대한 의사 및 과학자들의 이해를 돕고 관련 학문의 발달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유전자 검사가 질병에 관한 여러 의문점들을 해결해 주기는 하지만 그 결과는 환자의 삶에 있어 다른 영역에 여러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볼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으며 결과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문제도 발생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에 의해 보험 가입이 거부되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하며, 입양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이는 특정 유전병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발견되었지만 아직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매우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다른 임상 검사와 달리 유전자 검사 결과는 해당 진단에 대해 알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알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까지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유전자 검사의 결정은 어디까지나 이러한 찬반 양론을 숙지한 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에 있어 유전 상담이 그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질병의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질병에 연관되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혈액을 채취하여 특별한 연구실로 보내는데, 이곳에서 혈액의 DNA를 추출합니다. 특수한 검사 기법에 의해 유전자가 복제되고 검사됩니다. 검사 중 한 가지는 시료를 쪼개 전기 영동하여 시리즈로 나타나는 띠들을 형성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유전적 변화가 있으면 해당 유전자에 유전적 변화가 없는 정상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띠들이 다른 위치에서 나타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염기서열 분석이 있으며, 1차 검사나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염기서열 분석에서는 더욱 정밀한 체계로 DNA를 보일 수 있어 변화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검사는 완료되는 데 2-3개월이 소요됩니다. 양성 결과

는 해당 개인이 질병의 어떤 유형에 연관되는 변이를 가진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음성이라고 해서 관련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검사한 유전자 돌연변이가 없다는 것만을 의미합니다. 아직 원인 유전자가 밝혀지지 않은 여러 유형의 질병이 있습니다.

맺는 말

질병에서 최근에 제시되고 있는 유전자 검사 방법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질병은 증상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유전적 결함과 병의 발생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전자 검사 결과는 단순한 경향성이나 발병의 가능성 제시가 아닌 확진의 의미를 가지게 되며, 이러한 기전을 사용하여 최근에는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여 병의 진행을 늦추거나 손상 조직을 회복시키는 약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축삭 손상을 예방하는 약물들을 초기에 투여하게 되면 징후와 증상의 시작을 예방할 수 있고, 진행된 이후에 투여하더라도 축삭의 재생을 통해 신경병증의 증상 및 징후를 호전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도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분자생물학과 유전학의 눈부신 발전은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질병의 많은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 주었으며, 현재는 많은 환자들에게 정확한 진단을 시행할 수 있고 위험인자를 가지게 될 사람을 예측하는 것도 가능하며, 또한 생물학적인 치료 가능성에 대해 환자들에게 말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질병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지 않도록 단절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결국 이 질환의 일부를 치료할 수 있게 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들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은 진단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치료적 접근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미래의 아이들을 위한 훌륭한 치료의 토대가 되어 줄 것입니다.

미혼한부모 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¹²⁾

김혜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정책센터 센터장

I. 들어가며

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사회는 급속한 가족변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결혼의 지체와 함께 출산의 연기와 기피 등으로 출산력의 약화가 지속되고, 이혼이나 독신 인구가 증가하는 등 가족의 개인화와 다양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급속한 노령화와 최저출산, 외국인 여성과 한국남성의 결혼이 주류를 이루는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한국사회로 하여금 섹슈얼리티와 가족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더불어 가족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이처럼 가족안팎에서 새롭게 정의되는 친밀성과 섹슈얼리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기성의 가부장적 관념이나 정상가족이데올로기로 인해 서로 다른 가족구성의 방식이나 성행동을 비난하거나 차별하는 억압적인 문화기제가 여전히 작동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남녀 성관계에 대한 세간의 인식과 사회적 수용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미혼남녀의 자녀출산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음이 그것이다. 즉 성인남녀의 혼전성관계는 더 이상 부정되지 않으나, 유독 자녀 출산만은 합법적인 남녀관계, 즉 결혼제도를 통과함으로써 혼전의 성경험에 대한 제약과 구속의 기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김혜영, 2009).

이러한 사회분위기는 곧 미혼여성의 출산을 사회적 통념이나 규범으로부터 벗어난 일탈 행위로 규정하고, 사회적 낙인을 가하게 하고 있다. 그 결과 미혼여성들은 임신한 순간부터 출산과 자녀양육의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곱지 않은 시선을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혼모라는 꼬리표가 취업에서부터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삶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는 곧 우리사회에서 미혼모의 존재를 부정하고 비가시화 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데, 이는 미혼한부모 스스로가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의 하나로 자신들의 존재 자체를 은폐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12) 본 원고는 그간의 미혼한부모의 생활세계나 지원정책 등과 관련하여 필자가 2010년에 발표한 글들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혼모와 그들 자녀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결과적으로 미혼여성들의 낙태를 종용하거나 출산한 대다수의 미혼모들로 하여금 자녀 입양을 선택하게 만듦으로써 한국사회는 오랫동안 상당히 많은 해외입양아동을 배출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해온 것이 사실이다. 기실 저출산문제로 전 사회가 고민하는 현시점에서조차 해외로 건너가는 아동 수는 적지 않고, 이들의 대다수가 미혼모의 자녀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요컨대,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대한 두려움과 더불어 한부모로서 자녀양육과 경제적 자립을 동시에 감내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곧 미혼모들로 하여금 임신 및 출산결정과정에서 낙태와 해외입양이라는 선택지를 강제하는 사회적 조건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요행히, 최근 들어 저출산에 대한 세간의 우려와 함께 다양한 삶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지면서 미혼한부모의 권리나 이들 가족에 대한 지원요구 또한 커지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성적 욕망을 추동하는 다양한 매체가 발달하고, 성의식 또한 빠르게 변화하면서 혼전성관계와 미혼여성의 임신가능성이 높아지는 우리 현실이 반영된 결과이다. 더욱이 호주제 폐지와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등으로 여성들은 그들만의 친밀한 관계 맺기나 기성의 관행에서 벗어난 새로운 선택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혼모와 그들 자녀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미혼한부모 지원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0년을 전후로 하여 미혼모지원시설의 기능보강 및 청소년 한부모지원사업을 위한 정부예산이 확보되는 진전도 확인된다. 하지만, 여전히 미혼모와 이들의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견고하고 양육미혼모들에 대한 지원체계 역시 아직은 크게 미진한 수준이다. 이에 본고는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는 미혼한부모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고려와 구체적인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고, 향후 한부모가족의 사회권보장을 위한 주요한 과제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II. 미혼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전개과정

산업화와 함께 이혼이나 혼전 성경험의 증가와 같은 가족안팎의 변동이 가시화되면서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 또한 증가해 왔지만,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가족주의 문화전통과 성장제일주의 전략에 의해 가족문제에 관한 한 ‘선가정 후사회’의 원칙이 고수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명문화된 보편적인 가족정책의 기조 속에서 다양한 가족과 가족구성원들을 지원하기 보다는 선별적이고 극히 제한적인 요보호 가족만을 지원해왔다. 더욱이 성과 가족규범의 일탈자로서 비난받아온 미혼모와 이들 가족에 대한 지원은 최근까지도 대단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왔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미혼모(자)에 대한 지원은 이들 가족에 대한 독립적인 지원이 아니라 해방이후 등장한 이른바 요보호 여성정책

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군정 시기 미군정 법령 제 18호 공포에 의거하여 보건후생부 내에 부녀국이 설치되고, 1948년 7월 정부수립 이후 성매매여성, 전쟁사별여성 등의 수용보호사업이 이른바 여성복지정책의 효시를 이루며, 더불어 임신부의 보호를 위한 모자보호사업과 빈곤구호사업이 시작되었다(김금주, 1994). 이런 점에서 현재 미혼모 지원정책의 기원 또한 6.25전쟁 직후 전쟁 미망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운영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전쟁이나 기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모자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모자원이 1952년 처음 개소하게 되었는데, 당시의 모자원의 기능은 기아탈피와 안정된 생활의 유지 및 사회복지권을 통한 자립 모색이라는 점에서 오늘날 지원시설의 기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당시의 모자원 운영은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시설의 운영경비나 지원금을 국가부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영세한 민간단체나 종교 관련단체가 운영하고, 국가는 이들 가운데 일부만을 선정하여 시설보호와 직업안내, 생업자금 대부분 보조적인 서비스만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왔다(장인협, 1980:24).

이처럼 모자복지의 핵심사업인 시설보호가 민간의 책임과 주도 하에 수행되어옴에 따라 70~80년대까지 미혼모를 포함한 대다수 모자복지 지원은 재정적으로 상당히 취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지원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장인협, 1980:25). 이런 점에서 1989년 모자복지법의 제정은 곧 한국사회에서 처음으로 모자복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체계의 구축을 알리는 계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요컨대 모자복지법은 과거 아동복지법과 생활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었던 모자가정의 어머니가 여성세대주의 자격으로서 그 가족과 함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한 최초의 법률적 기반일 뿐만 아니라, 그 보호내용 또한 종전의 시설보호만이 아닌 재가보호와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보호체계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때 미혼모 보호시설 관련 조항 역시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게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성민선, 1990).

1989년 제정된 모자복지법은 2002년 「모·부자복지법」, 2007년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재개정되면서 점차 대상자가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2008년부터는 미혼모·부를 포함하는 남녀 한부모가족 뿐만 아니라 조손가족도 포함되는 포괄적 지원체계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03년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미혼모 자녀양육지원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중간의 집’을 시범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양육미혼모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미혼한부모의 자녀양육권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부여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1989년 모부자복지법의 제정 이후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로부터 2005년 여성가족부,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잦은 변동을 경험하면서 이같은 논의가 결실을 맺기까지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을 기점으로 재가 및 양육미혼모 지원을 위한 의미있는 변화가 시도된 한해로 평가할 수 있다.

〈표 1〉 미혼모부자 지원체계 및 주요 지원내용의 변화

연도	지원내용
1955	• 한국전쟁 이후 전쟁미망인의 보호·지원을 위한 모자보호시설 설치
1989	• 모자복지법 제정(4.1) 및 시행(7.1) • 모자복지위원회 설치 • 아동교육비, 아동부양비 복지급여 지급 • 생업자금 등 복지자금 대여 • 모자보호시설, 미혼모시설 등 모자복지시설 규정
1992	• 저소득 여성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학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
1995	• 저소득 남성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1998	• 모자복지법 개정
1999	• 모자복지법 개정
2001	• 아동양육비 월 16,000원
2002	• 모자복지법을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
2003	• “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 시범 운영
2004	• 아동양육비 월 20,000원
2005	• 아동양육비 월 50,000원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모·부자복지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 • 지방재정 분권화 정책에 따라 시설 운영비 지방 이양 • 미혼모부자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2006	• 모·부자복지법 개정 • 미혼모·부가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할 경우 복지급여 추가 지원 • 미혼모시설을 미혼모자시설로 변경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 강화 • 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여 아동양육 등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미혼 모자가정, 모·부자가정 및 미혼모가정을 지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을 보호대상으로 포함
2007	•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10.17) •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변경 •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취학 중인 때에는 20세 미만에서 22세 미만으로 보호기간 연장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실시 • 조손가족을 보호대상으로 포함
2008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8세 미만으로 확대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한부모가족지원업무가 여성부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
2009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10세 미만으로 확대(1월) • 미혼모부자 전국거점기관(6개소) 지정 운영 •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일부개정(7월)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12월) : 미혼모자시설,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및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의 명칭변경 및 시설이용기간 확대
2010	• 미혼모부자 전국거점기관 확대운영(17개소)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한부모가족지원업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여성가족부로 이관 • 24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실시(4.1)
2011	• 취약가족 역량강화 사례관리 지원(17개소) • 24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강화(월 아동양육비 15만원 인상)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11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010.

그러나, 현재와 같은 지원체계만으로 미혼모들이 자녀양육과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무엇보다 혼전임신으로 자녀양육을 계획한 양육미혼모들에게 있어 경제적 자립은 매우 절실한 과제이나, 현재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지원정책은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긴급보호시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

히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경우 2010년 4월부터 최저생계비 150% 가구까지 양육비 10만원을 위시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한 바 있다. 더욱이 2011년부터는 아동양육비를 월 15만원으로 인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년 자산형성계좌지원대상자에 한해 월 5만원한도의 자산형성계좌지원의 지속과 함께 기초생계수급자인 청소년한부모에 한해 이들의 학업이나 취업훈련 등의 자립활동을 조건으로 월 10만원의 자립지원촉진수당을 새롭게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은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에게만 국한될 뿐, 25세 이상의 미혼한부모에게는 여전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130% 가구에 한해 아동양육비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을 뿐이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김혜영 외, 2009, 2010) 미혼모, 부의 자녀양육선택의 비율은 청소년기 이후의 연령에서 높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점차 미혼모의 연령이 고연령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현재 지원정책의 범주는 대단히 제한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한 미혼모의 자녀양육지원방안이 갖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이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이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다소 웃도는 130% 이하의 가구여야 한다는 사실이다(청소년한부모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150%까지로 확대).

무엇보다 전체 양육미혼모들은 대체로 이혼이나 사별 한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고, 노동시장으로의 복귀가 용이한 연령이라는 점에서 출산 후 일정 시기가 경과하면 대체로 이들은 일자리를 갖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다. 따라서 이들은 비록 최저 생계비 130%를 넘고 있지만, 일하지만 빈곤하고 불안정한 근로빈곤을 형성하기 쉽다는 점에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에 포섭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여성노동시장의 특성상 대다수 여성한부모의 직업지위는 안정적인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장시간 노동을 요하는 직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의 자녀 돌봄 지원과 함께 자녀가 일정 연령에 달할 때까지 안정적인 자녀양육비 지원은 여전히 이들의 조기자립의 선결조건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130%가 넘으면 정부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양육미혼모들은 수급자로 남을 것인가 힘들지만 어떠한 지원도 없이 근로빈곤계층으로 편입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만 12세 미만의 아동에 한해 월 5만원이 지급되는데, 이들 지원의 규모가 턱없이 작을 뿐만 아니라 아동연령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어 지원의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어린 아동을 시설에 보내지 않고 개인이나 친인척에게 아동 보육을 의뢰한 경우는 사실상의 보육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보육료 지원방식을 둘러싼 현실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 다른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미혼모들의 경우에는 어느 한부모와 달리 그들

부모로부터 세대분리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출이나 시설에 입소하여 자녀를 양육할 가능성이 높지만, 정작 이들은 부양자 의무규정에 긴박되어 실제적인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기 쉽다는 점을 지적될 수 있다. 특히 미혼모의 부모가 미혼모의 자녀양육을 거부하고 있어, 부모로부터 독립을 감수하고 자녀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의 경우에도 부양의무자인 부모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로 지정받을 수 없는 문제 또한 적지 않게 발생한다. 이런 점에서 향후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혼인하지 않고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가족의 경우에는 부양자의무규정과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지원규정과 제도 운영의 미비점 외에도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남녀한부모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 등과 더불어 미혼모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혼모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김혜영, 2009). 미혼모만을 별도로 분리시키는 법안마련이 미혼모에 대한 차별의식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합리적인 대안으로 부각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이 포괄하는 다양한 지원 대상 가운데 상대적으로 젊고 자녀가 적은 미혼모의 상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기 어렵다는 사실은 여전하게 남아있다.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의 자녀양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미혼모라는 사회적 오명을 완화시키면서 사회적 지원에 대한 합의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미혼모에 대한 초기지원확대 방안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국 미혼모정책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미혼모와 그들 자녀보호시설의 운영을 중심으로 미혼모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과 미혼모라는 낙인이 갖는 부정적 효과로 당장의 생계와 자녀출산이 어려운 미혼여성들의 생계와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시설은 2011년 현재 57개소에 이른다. 그러나 여전히 미혼모들이나 기관관계자들의 면담을 통해 시설입소의 자격이 까다롭거나 인원의 여유가 없어 미혼모들의 상황과 욕구에 따른 탄력적 입소가 가능하지 않다. 특히 미혼모 지원시설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은 바로 시설 입소자격과 정원, 기간 등에 관한 것으로, 미혼모 당사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시설에는 대기자가 밀려 있어 입소할 수 없음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았다. 또한 입양을 희망한 미혼모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퇴소의 욕구가 강하지만, 양육을 결정한 미혼모들은 자립기반이 갖춰지지 못한 경우 시설에 잔류하길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모자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미혼모와 그들 자녀의 경우에는 입소기간 1년 내에 안정적인 거주지와 자립기반을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의 거주기간에 대한 탄력적 적용을 희망해 왔지만, 공동생활가정의 부족은 이를 현실화하기 어렵다. 비록 2009년 1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에 2년간 머물게 되었지만, 다른 한편 미혼모공동생활가정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미혼모자시설에서 모자공동생활가정으로의 입소 대기기간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다.

끝으로 재가 미혼모에 지원서비스의 부재를 지적할 수 있다. 모자시설에 입소하지 않았거나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양육모를 위한 지원체계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크게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2010년 현재 전국 17개소에서 미혼모·부가 시설에 입소하지 않더라도 아이를 건강하게 양육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임신상담 및 정보로부터 자녀출산 후 양육 및 응급상황의 지원체계를 구비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인지도가 아직은 매우 낮고 지원범위 또한 대단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정확한 재가미혼모의 실태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직은 소기의 목표 달성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이같은 미혼모·부가 거점기관이 가족정책 서비스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정 위탁되고 있어 미혼모에 대한 접근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없지 않다.

III. 미혼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과제: 배제에서 포용으로

한국사회의 미혼모·부와 그들의 자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지원대상의 선정과 내용이 명기되어 있지만, 실제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혜택을 받는 한부모가족의 비율은 전체 한부모가족의 소수에 불과한 만큼 미혼모나 부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율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미혼모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형태는 구비했지만, 이 제도에 의해 미혼모, 특히 양육미혼한부모 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수혜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의 한부모 지원정책에 명시된 미혼모·부 지원정책은 주로 시설중심으로, 출산을 목전에 둔 미혼모여성의 산전후 회복과 임시보호의 기능을 갖춘 긴급구호 차원에 머물러 있을 뿐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구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김혜영, 2009:121). 이는 무엇보다 노인이나 장애인, 실업자 지원정책과는 달리 미혼모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용이하지 않으며, 관대한 지원정책이 자칫 미혼모의 양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협애한 보수주의자적 주장 또한 적지 않음에 기인하는 것이다.

미혼모지원정책은 단순히 복지정책의 한 분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규정은 곧 미혼의 여성, 혹은 청소년의 섹슈얼리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인식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에서 특정 사회의 젠더인식과 함께 성문화의 특성이 모두 배태된 상징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 또한 효과적인 성교육과 낙태접근권의 인정여부, 나아가 여성의 몸과 출산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접근권으로부터 미혼모·부에 대한 학습권보장,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생계지원과 직업훈련지원에 이르는 다양한 범주의 정책패키지들

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특정국가의 복지수준을 한눈에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부모지원법을 중심으로 한 현행 미혼모지원정책은 시설중심의 지원서비스와 초보적인 양육지원서비스만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한국사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가족의 개인화 현상으로 가족 돌봄의 기능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기 위한 정책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 본다면, 미혼모지원정책의 확대 및 강화가 한국의 정책환경 맥락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거나 지원정책의 중요성이 쉽게 부정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향후 미혼모 지원정책은 보편적인 가족정책과 그 궤를 같이 하면서 한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미혼모들의 특수성을 인정하되, 미혼모 내부의 다양성에 주목하여 보다 다양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나 제도가 보완될 가능성 역시 적지 않다. 실제로 최근 한부모 관련 입법화 방안이 다양하게 강구되고 있어 이같은 전망을 밝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2011년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을 목적으로 발의된 제안법안이 5~6개에 달하고 있다(국회여성가족위원회, 2011).

향후 미혼모가족 지원정책의 주요 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혼모의 자녀양육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출산 시대에 더 이상 부모의 선택이나 가구형태와 무관하게 태어난 이땅의 모든 아동은 사회가 책임지고 키워야 된다는 대국민 인식전환 캠페인이 필요하다. 가족과 사회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홀로 자녀를 키우는 미혼모가족을 적극 지원하려는 사회적 노력은 곧 출산과 자녀양육이라는 개인과업을 국가가 함께 고민하고 적극 지원한다는 믿음을 가시화하는 첫 걸음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들 자녀에 대한 양육지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선제적 투자인 동시에 여성한부모의 빈곤화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범사회적 투자전략이라는 공감대 확보가 우선될 때에야 비로소 이들 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둘째로는 미혼한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10대 청소년과 성인미혼모를 막론하고, 자녀를 양육하기로 결정한 미혼모들에게는 일정기간 자녀돌봄의 기간을 사회적으로 인정하여 취업수준이나 급여액에 상관없이 기초수급자 자격을 인정해줌으로써 이들이 최대한 자신들의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은 사별이나 이혼한부모와 유사하게 혼자서 자녀양육 및 소득활동을 전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의 미혼한부모들에게 지급되는 양육비를 현실화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동 1인당 총양육비가 한부모가구가 양부모가구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나 아동기부터 양육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김승권, 2009). 이러한 격차는 아동의 성장 후에도 인적자본의 부족으로 인한 사

회적 성취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부모 가족의 아동에 대한 보다 선제적 투자를 함으로써 이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화과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양부모가구와 비교하여 한부모가구는 자녀양육을 위한 추가지출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현재와 같이 동일한 기준이 아닌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별화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지원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녀 교육비 지원은 등록금과 수업료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의 교복비용, 수학여행비, 현장학습비, 교재구입비 등 기타 학교교육에서 필요한 비용에 대한 부담 역시 적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등록금이나 수업료 이외의 소요경비에 대한 지원방안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로는 여성한부모가족이 종사하는 일자리는 임시 일용직이거나 장시간 또는 야간 근무, 휴일 근무, 3교대 근무 등이 많으므로 이러한 근무조건에 맞출 수 있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들 가족은 한부모가 홀로 취업과 자녀 양육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예를 들어 학교 급식당번이나 긴급히 병원에 가야할 경우 등 일시적인 보육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육도우미 인력을 파견하여 지원하는 서비스가 제도적으로 마련된다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의 보육시설은 월단위, 연간단위로 정기적 이용자 우선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시보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탄력적 운영과 더불어 한부모들의 경우에는 돌보미 서비스 이용시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직하다. 여기에 덧붙여 한부모에 대한 부모역할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미혼 부모들의 경우에는 원가족과의 관계단절이나 소원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부모역할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부족할 수 있으므로, 지역별, 권역별로 개소되어 있는 가족지원기관을 통해 미혼부모 및 한부모의 부모역할 교육 및 자녀 교육상담이 밀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로는 이들에 대한 다양한 주거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미혼부모를 위시하여 대부분의 한부모들이 직면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이들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의 어려움과 연관되어 있으며, 실제 한부모가족 주거의 질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으로 미혼부모시설이나 모부자시설, 영구임대주택 등의 방식으로 주거 지원이 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물론 임대주택우선분양제도가 있으나 신청 후 대기기간 등으로 인해 긴급한 주거 욕구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전세대출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대대의 임대주택이 직장이나 주변의 도움이 될 친척들과 멀 경우에는 입주를 꺼리는 것도 사실이며, 특히, 최소한의 입주자금이 없어 주택공사가 제공하는 주거지원에도 선뜻 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임대주택제공이나 정부에 의한 소규모 주택의 우선구매를 통해 이를 다시 미혼한부모 가족에게 우선 임대하는 주거지원방식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번째로는 미혼모의 자녀양육지원과는 별개로 이들의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방안이 필요하다. 미혼부모의 경우에는 비취업상태이거나 불안정한 노동시장진출입을 반복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고용보험 적용대상 직업훈련제도 만으로는 미혼부모를 위시한 여성한부모의 직업훈련기회는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취업경험이 없거나 취업경험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가입경력이 없는 여성한부모를 배려한 무료 혹은 저가의 취업훈련프로그램의 개발은 물론 고용알선 등 취업상담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되어야 한다.

네번째로는 10대 청소년의 학업지원에 관한 것이다. 이들은 미혼모가 되기 이전에 이미 학업을 중도 포기한 경우부터 임신으로 인해 퇴학을 종용당한 사례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임신여부와는 무관하게 이들의 인적자본을 최대화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곧 빈곤여성의 핵심계층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청소년 학습지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의 학교복귀가 여전히 어렵다는 것이 우리 교육계의 현실이다. 주지하듯 과열 경쟁체제는 이미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내려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같은 교육풍토에서 입시에 전념하길 강요하는 공교육시스템이 청소년 미혼모를 수용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단순히 청소년 미혼모나 미혼부로 제한하기 보다는 다양한 이유로 학교에서 이탈한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미래를 위해 공교육 현장에서 수업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그들의 탈락이나 포기사유와는 무관하게 이들의 고유 권리로서 학습권을 보장해주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물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2010년부터 청소년 한부모 가운데 고등학교 이하 중퇴자들에게는 검정고시 학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검정고시 합격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학창시절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비공식적 커리큘럼을 학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학교당국이 이들을 포용하지 못해 청소년들이 중등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학교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교육 제도권을 중심으로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지원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하겠다.

끝으로는 미혼한부모를 포함한 대다수 양육한부모들은 비양육부모와 더불어 자녀양육책임을 공유해야 하지만, 한국의 경우 미혼부모뿐만 아니라 이혼한부모들조차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는 커녕 협력적인 부모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부계의 혈연성을 강조해온 수백년의 가족문화전통에도 불구하고 한부모들의 경우 남성보다는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인 상황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2009년 양육비지급관련한 법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으나, 여전히 법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미혼모들의 경우 미혼부를 대상으로 양육비를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더욱이 정부가 미혼모들의 경우 양육비 청구소송을 지원하고 있지만, 다수의 미혼모들은 장기간의 청구소송에 할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급판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고의로 양육비를 미루는 비양육부모인 남성에게 제재를 가할 방법 또한 뚜렷하게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매월 양육비지급여부를

놓고 당사자간 지루한 공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비양육부모의 양육비지급제도만으로는 관련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어렵다. 따라서 양육비를 지급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나, 현시점에서는 미혼부의 소득 및 재산정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가가 먼저 자녀양육비를 지급하는 대지급제도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비양육부모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 양육비의 지급여부가 결정될 경우 혼자서 당장 생계를 꾸리고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한부모들에게 있어 양육비의 지급은 우선적인 대안으로 다가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화과정을 위해 일정액을 대지급하고, 이후에 전문기관을 통해 비양육부모로부터 자녀양육비를 징수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최근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와 제도마련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음은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국회여성가족위원회, 2011).

참고문헌

- 김유순, 김은영, 2008, 청소년양육미혼모의 삶과 미래, 늘푸른여성지원센터.
- 김혜영, 2008, “미혼모정책 어디로 가야하는가”, 「미혼모를 둘러싼 현황과 쟁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혜영, 안상수, 2009, “미혼부·모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와 의식”, 「미혼모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혜영 외, 2009, 「미혼부모와 그들자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 김혜영 외, 2009, 「미혼부모 사회통합방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혜영 외, 2010, 「미혼모의 자녀양육 및 자립기반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서울시 부녀복지연합회, 1996, 「한국미혼모복지의 현황과 발전방향」, 제 1 회 여성복지세미나 자료.
- 석창훈, 2008, 「학생미혼모 실태와 학업지속을 위한 교육복지적 대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안순덕 외, 1984, 「미혼모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이미정, 2008, “미혼모를 외면하는 한국의 현실”, 「제47차 여성정책포럼 미혼모를 둘러싼 현황과 쟁점 자료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_____, 2009, “국내외 입양과 미혼모복지”, 「미혼모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장인협, 1980, “모자복지사업의 전망과 그 정책방향”, 「여성」 166:20-27,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한국여성개발원, 1987, 「미혼모발생 예방대책에 관한 프로그램」,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노동자회, 국회의원 홍미영 의원실, 2006, 「한부모 빈곤여성 자립정책 진단

및 법·제도 개선과제 토론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1990 「여성」 109:4-7

허남순, 2006, 「미혼모부자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홍순혜 외, 2007,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2008, 「2008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9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여성가족부, 2011, 「2011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Duncan, Alison/Edwards, Rosalind(1999), Lone Mothers, Paid Work and Gendered Moral Rationalities, London, Macmillan.

Freud, David(2007), Reducing Dependency, Increasing Opportunity: Options for the Future of Welfare to Work. An Independent Report to the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Leeds, Corporate Document Services.

Martin, C./Vion, A.(2002), "Lone Parent Families, Work and Social Care", EU-Soccare Project, Work package 2.

Millar, Jane (2003), "Social Policy and Family Policy," in: Alcock, Pete u.a. (2003), Social Policy, Blackwell Publishing, Oxford, pp. 153-159.

부록

싱글맘의 날 메세지

언론보도

입양특례법 개정을 위한
팜플렛

입양특례법 개정 촉구를
위한 해외입양인 성명서

입양특례법 개정
법률안(2011.6.29 국회통과)

싱글맘의 날 메세지

To. 싱글맘의 아이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습니다.
축복해요...
“축복의 통로” 우리가 함께 응원합니다.
나 그대 위해 축복의 통로 되길 원해요.
어두운 밤길 홀로 가는 그대의 발길 비추는
빛나는 별 하나 되리...
#당신은 그 자체로 소중한입니다.
#모두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기대고 싶을 때, 잠시 쉬고 싶을 때,
지친 몸을 잠시 쉴 수 있게
어깨를 빌려드리고 싶어요.
힘들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으셨으면 해요.
#우리 함께 잘 살아가자!
#세상에서 가장 이쁜 아이들아,
항상 응원할께!!!
즐거운 일만 가득하길^^v
#아가야, 이 세상이 너희를 환영한다. Welcome!!!

To. 정부

#궁핍과 사랑의 마음으로
싱글맘의 어려움을 살피
실현가능성 있는 정책을 펴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주세요.
#언제나 기쁜 일만 함께 하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할게요. 파이팅!!!
#저는 제 아들이
대한민국 사회를 원망하면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게,
잘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GOOD WORK! GOOD JOB!
#KEEP UP THE GOOD WORK!
#WORK FOR CHANGE NOW~!
#임시방편보다는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우선이 아닐까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가 됩시다.
#PLEASE APPROVE MY F4 VISA SOON. THANK YOU~!
#정부는 국민을 대표하는 단체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 더욱 전문적으로!!!
그리고 보다 인간중심적으로 정책을 펼쳐 가세요.

To. 국내 · 해외 입양인들

#GREAT JOB! GOOD WORK!
#LOVE!
#가끔 슬픈 일도, 속상한 일도 있겠지만...
함께 힘을 내도록 해요.
#FIGHTING!! FIGHTING!! FIGHTING!! FIGHTING!!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1)
생명을 주관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 ♡!!
함께 하십니다.
#SORRY. 미안합니다.
#웃고 싶을 때, 함께 웃어드릴게요.
울고 싶을 때, 함께 울어드릴게요.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힘이 되어드릴 수 있을까요?

To. 싱글맘들

#주를 의지하세요!!(로마서 8:18)
#모두가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으면 안돼요!
#It's OK!
Single moms
Single papas
Various families!
#힘내세요. ♡
당신의 용기와 사랑은 세상에 전달되고 있어요. ♡
#힘내세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KEEP UP THE GOOD WORK!
#항상 희망을 가지세요~. 모두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리기보다,
세상을 바꾸는 엄마가 되세요.

용기와 사랑에 박수....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사랑합니다.
#늘 행복하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하지 말고
 꾸밈하게 살아가세요.
 늘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용기있는 엄마입니다.
 당신의 용기에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사회 모든 구성원들은 서로 꼭 필요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힘들고 외로울 수 있지만 절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힘내세요!
#행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Thank you for hosting this wonderful event!
 Single Moms' Day~!
 대한민국 가족들 그리고 미혼모분들 파이팅~!
#항상 응원할게요.
 파이팅!
#GREAT JOB! GOOD WORK!
#LOVE!
#싱글맘도 싱글파파도 여러가지 가족이 있어 좋다!

싱글맘의 날 관련 언론보도

언론사	한겨레	글쓴이	김도현 목사
보도일자	2011.05.06		(해외입양인센터 뿌리의집 원장)
제목	[왜냐면] ‘입양의 날’ 대 ‘싱글맘의 날’		

입양의 날을 대신한 싱글맘의 날은우리 사회의 우선적인 역량을 모아결별의 위기에 몰린 미혼모 가족을함께 보듬자는 대항담론이다

김도현 목사 · 해외입양인센터 뿌리의 집 원장

오는 5월 11일은 ‘입양의 날’이다. 그런데 귀환 입양인 단체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 입양인 모임’ (TRACK)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고, ‘뿌리의 집’이 뒤따르고, ‘한국미혼모 가족협회’와 ‘한국한부모연합’이 거들면서 5월 11일을 ‘싱글맘의 날’로 기념하기로 하고, 국제 컨퍼런스와 기념행사를 준비 중이다. 국제 컨퍼런스는 이날 하루 종일 서울 중구 정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에서, 기념행사는 낮 12시 광화문 교보문고의 선큰가든에서 열기로 했다.

입양의 날에 맞추어서 싱글맘의 날을 지키겠다는 것은 일종의 대항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입양의 뿌리에는 가족 해체가 있고, 특히 미혼모 가족의 결별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우선적인 역량을 모아 결별의 위기에 내몰린 미혼모 가족을 보듬자는 것이다. 입양을 통해 문제를 풀고자 하기 전에, 미혼모들에게 입양이 아닌 다른 선택지, 즉 양육이란 선택지를 제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대항담론은 종종 한 사회 내부에 이미 강고히 자리잡고 있는 관념들에 균열을 내기도 하고 그 사회를 재구성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그러기에 대항담론은 그 대항의 목소리에 맞서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항담론에 갇힌 지혜에 귀를 기울여 미래를 재구성하는 일에 동참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매년 10월 둘째 주 월요일은 연방공휴일 ‘콜럼버스의 날’이다. 그러나 사우스다코타 주정부는 여태 이날을 거부하고 대신 ‘아메리카 원주민(인디언)의 날’로 지킨다. 콜럼버스의 날이 그들에게는 유럽인의 아메리카 대륙 침탈을 미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항담론은 힘을 얻어 하와이를 비롯한 미국의 다른 주들과 도시들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비슷한 방식으로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미국의 최대 명절 ‘추수감사절’을 ‘국가 애도의 날’로 명명하여 지킨다. 백인 이주자들의 첫 추수감사절 이후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한 대대적인 침탈과 학살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상기하기 위해서이다. 대항담론이란 이와 같이 일종의 기억 투쟁이자 역사 해석을 교정하는 일인 동시에 자기 사회의 미래를 다른 방식으로 구성하겠다는 열정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오스트레일리아의 서부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 1970년대에 정부 주도 아래 이루어진 미혼모와 아동의 강제 격리와 입양 조치에 대해서 오늘의 정부가 당시의 미혼모들에게 사죄하고, 동시에 친가족과 결별해야 했던 입양인들의 마음에 위로를 보내는 뜻

에서 의회 뜰에 장미 꽃다발을 놓은 일은 입양에 관한 대항담론이 일궈낸 성과물이라 할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입양의 날’ 을 제정하고 기리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사회에서도 미혼모와 싱글맘의 단위가족 형성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이 친자녀와 결별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를 진작하기 위한 대항담론으로서 ‘싱글맘의 날’ 의 등장은 환영 받아야 할 일이 아닐까.

언론사	한겨레	글쓴이	김도현 목사
보도일자	2011.05.06		(해외입양인센터 뿌리의집 원장)
제목	'Adoption Day' vs. 'Single Moms' Day'		

The celebration of 'Single Moms' Day' instead of 'Adoption Day' is a confrontational discourse to prioritize encouraging society to embrace single mother families facing the crisis of separation

This coming May 11 is 'Adoption Day.' However, the returning adoptee organization 'Truth and Reconciliation for the Adoption Community of Korea' (TRACK), followed by 'KoRoot' and then assisted by the 'Korean Unwed Mothers and Family Association' and 'Korean Single Parent Alliance' rolled up their sleeves to celebrate May 11 as 'Single Moms' Day,' and are preparing an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commemoration even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will be held all day long on that date at the Community Chest auditorium on Seoul, Jonggu, Jung-dongm, and a commemoration event will be held in the "Sunken Garden" of Kyobo Bookstore at noon.

It is a kind of confrontational discourse to mark 'Single Moms' Day' on the same day as 'Adoption Day.' At the root of adoption is family dissolution, especially the separation of unmarried mothers' families. We should gather our society's power and give consideration to single mothers' families facing the crisis of separation. What we want to say is that before we try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adoption, shouldn't society provide unwed mothers with the alternative of raising their children?

Confrontational discourses often fissure ideas that were strongly held inside a society and also function as a driving force for reconstructing that society. Because of that, confrontational discourses can be uncomfortable for people who have to go against the voice of opposition. However, by closely listening to the wisdom lodged in these discourses, participating in the recomposition of the future should be healthier.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the second Monday of October every year is the

national holiday 'Columbus Day.' However, the government of South Dakota refuses to celebrate this day and instead celebrates 'Native American Day.' To them, 'Columbus Day' is nothing but beautifying the exploitation of the American continent by the Europeans. These kinds of confrontational discourses gained support, being accepted in Hawaii along with several different states and cities in the U.S. In a similar matter, American natives renamed the biggest American holiday 'Thanksgiving Day' as the 'National Day of Mourning.' This is to recall the fact that after the first Thanksgiving Day, the white immigrants began huge-scale attacks and genocide against the American natives. Like these, a confrontational discourse is some type of struggle to not forget and at the same time, to revise the interpretation of history with a passion to construct the future of the society in a different way.

Likewise, last year in Australia's Western State of Australia, the government apologized to the women who had been subjected to forced separations of unmarried mothers and children as well as adoption measures from the 1940s to 1980s. At the same time, they comforted adoptees who were separated from their birth families by placing a bouquet of roses in the courtyard of the Parliament. These were all achievements of the confrontational discourse cultivated with regard to adoption.

If we reflect on the reality in which the government has instituted 'Adoption Day' on its own, we should welcome the advent of 'Single Moms' Day' as a confrontational discourse that tries to guarantee the rights of unmarried mothers and single mothers' unit family formations and provide social consideration to them, in order to prevent them from being separated from their children.

출 처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476712.html>

언 론 사 보도일자 제 목	오마이뉴스	글 쓴 이	김도현 목사
	2011.04.24		(해외입양인센터 뿌리의집 원장)
	‘입양활성화가 국가정책?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인터뷰] 해외입양인센터 ‘뿌리의집’ 원장 김도현 목사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 불 기준, 주요선진국의 GDP 대비 복지지출을 비교하면 프랑스(1990년) 24.9%, 독일(1990년) 21.7%, 영국(1996년) 19.6%, 미국(1988년) 13.1%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0년 1인당 GDP가 2만 불을 넘었지만 GDP 대비 2009년 복지지출은 7.5%에 불과하다.

열악한 사회복지제도의 가장 취약한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다. 우리나라 경제력에 걸맞지 않은 열악한 사회복지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외치는 '공정사회'의 구호와도 맞지 않을뿐더러



▲ 해외입양인센터 '뿌리의집' 원장
김도현 목사

러, 공정경쟁이나 기회균등을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보편적 원칙과도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 건강하고 문명화된 사회의 기준은 그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런데 지금도 아이 1인당 약 10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지난 반세기 동안 20만명 이상의 아이를 해외에 입양보내며 세계 4위 해외입양 국가의 위치를 고수하는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정말 한국인인 것이 국제사회에서 너무 부끄럽다.(관련기사 : “나는 한 살 때 버려졌다,

내 말 좀 들어줘”)

해외입양의 근본원인 중 하나는 사회적 약자인 미혼모(싱글맘)에 대한 정부지원이 극도로 빈약하다는 데 있다. 현재 한국에서 입양되는 아동의 90%는 미혼모의 아이들이다. 그래서 정부의 인색한 입양정책과 관행의 변화를 위한 인식과 활동을 고취시키기 위해 5월 11일 '싱글맘의 날' 기념 콘퍼런스가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TRACK)과 뿌리의집(KoRoot)에 의해 공동으로 개최된다.

한국의 국내외 입양 원인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이번 콘퍼런스의 공동개최자인 김도현 목사를 만나봤다. 그는 현재 해외입양인센터인 '뿌리의집' 원장이기도 하다. 다음은 지난 21일 김도현 목사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한국의 해외입양산업이 뿌리박은 것은 가부장제 사회의 거대한 압력"



▲ 입양특례법 개정을 위해 국회전문위원
면담하는 모습

_ 미혼모와 입양인 문제를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하게 된 의의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콘퍼런스 개최의 의의는 두 가지다. 하나는 ‘입양의 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미혼모들이 자기가 낳은 아이와 더불어 편견에 내몰리지 않는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삶에 연대와 지지를 표명하고자 함이다.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5월 11일은 사실 우리 정부와 사회가 '입양의 날'로 지키는 날이다. 입양문화를 창달하고 입양가정을 축하하는 날이다. 2006년부터 지키기 시작했으니 올해로 6년째다.

입양의 날이 비록 입양하는 부모들을 중심으로 볼 때는 축복된 날이라 할지라도, 아이를 입양으로 상실한 이 땅의 침묵하고 있는 여성들에게는 오히려 애도의 날일 수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입양의 날에 대한 대안으로서 싱글맘의 날을 우리 사회에 제안하고자 한다. 입양하는 가족에 대한 축제로 요란한, 결국 입양이 입양 홍보 수단으로 전락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싱글맘의 날을 통해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일은 이미 일어났는데, 미혼모들에게 도덕적 잣대를 대는 것은 일어난 현실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과거를 비난하고 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미래를 위한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이 진정한 방식이라고 본다. 자신의 아이를 스스로 양육하겠다는 것을 성숙한 인격의 결정으로 소중하게 여겨줄 줄 알며, 그들의 자녀들이 노출될 사회적 편견의 감소를 위해서도 마음을 모아

해법을 찾아내고자 해야 할 것이다.

싱글맘의 날은 그런 점에서 싱글맘에 대한 격려의 날일 뿐 아니라 그들이 양육해서 우리 사회의 성원으로 자라갈 아동들에 대한 환영과 친밀감을 표현하는 날이기도 하며, '생명친화적'인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열어가는 일이기도 하다."

— 최영희 국회의원(민주당)이 한국 입양특례법 개정활동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무엇이고 어느 정도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의 핵심 사항은 기존 법의 명칭인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인데 이것을 '입양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꾸고 국내·외 입양 허가가 가정 법원과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던 걸 모두 가정 법원 허가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여기에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마약 중독 등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입양할 수 없도록 하는 '가정조사제도'의 도입, 입양 관행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등이 있다.

이 입양특례법 개정안은 2009년 초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TRACK)'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과 함께 개정작업에 착수했는데, 초기 단계에 '뿌리의집'이 결합했고 이어서 '국외입양인연대(ASK)'와 '한국미혼모가족협회'가 추가로 결합해서 2009년 약 1년 동안 작업을 해서 최영희 의원실에 검토와 발의를 부탁한 것이다.

최영희 의원실에서 이 법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손질해 2010년 5월 11일 입양의 날에 발의했다. 민간단체에서 개정작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법안 개정 작업을 시작했고 2009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정부개정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 개정안이 곧 제출될 줄 알고 기다려왔다. 그러나 결국 정부 법안 제출이 현재로서는 불발되었고, 결국 발의 후 거의 1년이 다 된 시점인 지난 4월 중순 국회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 중에 있다. 적어도 오는 6월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

— 사회복지가 열악한 우리나라에서 미혼모들의 삶이 극도로 열악할 것이라 짐작된다. 한국 여성계에서는 미혼모나 입양문제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에 의하면 미혼모들의 삶이 극도로 열악하다. 내가 2001년부터 3년 동안 영국에 거주하면서 '국제간의 입양과 한국의 생모에 대한 신학적 성찰'이라는 논문을 하나 썼다. 그 논문에서 한국 생모들의 빈곤화 과정, 가부장제의 폭력에 노출되는 일, 유럽중심주의에 의해 기망되는 문제를 다뤘다. 결국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적 폭력성 아래 노출된 생모들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과 응답이 요청된다는 내용이었다. 가부장제 사회의 거대한 압력 아래에서 친모와 아동의 결별이 일어나고 있고, 그 터 위에 소위 한국의 해외입양산업이 뿌리박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외입양을 한국사회 내부분제로 한정해서 성찰하고자 할 때, 해외입양의 발생요인과 전개과정 전체가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남성중심주의문화의 폭력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얼마 전 아이가 해외로 입양된 친모가 입양관련 토론회에 직접 패널로 참석해서 자신의 삶에 관한 증언을 했던 적이 있다. 자기 자식을 입양 보낸 엄마로서의 깊은 수치감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드러내어 입양이 자신의 일생을 어떤 방식으로 트라우마를 남겼는지 증언했다.

이일이 입양을 통해 자식을 상실한 엄마들의 모임 '민들레'의 출현을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 주제를 한국 여성운동단체들과 공유하기 위해 <여성신문>을 공동주최로 모시기까지 했지만, 한국 여성단체들에게 입양이 여성과 가족의 문제라고 하는 점을 환기시키는 데는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다. 큰 반향을 불러내진 못했고 조금은 씁쓸했다.

그럼에도 지난 7년 사이에 한국미혼모가족협회가 등장했고 이들과 연대하는 여성단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번에 주최하는 제1회 싱글맘의 날 기념행사에 한국여성연합 대표가 자리를 같이한다. 그 동안 한국 여성운동 시민단체들에 대해서 무관심 때문에 좀 서운했었는데, 이젠 감사하고 기쁘고 기대가 된다."

"입양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담론이 문제"

— 해외입양이 외화벌이로서는 한국에 경제적 이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G20를 개최하는 우리나라 경제규모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비인도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많다. 국내외 입양문제에 대해 정부, 특히 행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실상은 어떤가?



▲ 뿌리의 집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필름 <나를
닮은 얼굴> 포스터

“보건복지부 통계로 봤을 때, 6·25 이후 해외입양아동의 숫자가 1968년까지는 매해 몇 백 명에 불과했는데, 1969년에는 1190명 1970년에는 1932명이 된다. 급격하게 입양아동의 숫자가 증가한다. 결국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1950~1960년대보다는 1970~1980년대에 가장 많은 아동을 해외 입양 보냈는데, 심지어 60년대 해외입양아동 숫자의 10~20배까지 보냈다. 이것은 산업적·경제적 이익을 떼어놓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1988년 미국신문 <프로그레시브>에 의하면, 당시 한국 아동 하나에 5000달러가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나온다. 그 해 6463명의 아동이 입양보내졌으니, 유입된 달러는 총 3200만 달러로 추정할 수 있다. 당시 국민소득이나 물가, 국민총생산액이나 외환보유고 등을 비교 분석하면 3200만 달러가 한국경제에 어떤 의미를 지닌 외화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금액은 당시 한국정보로서도 무시할 수 없는 경제요소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또 입양인들이 모국을 방문하면서 들고 오는 자신에 관한 서류몽치들 속에서 종종 당시 유럽 주재 한국 대사들이 개별 입양가정에 보낸 감사서신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입양이 보건복지부만 관여한 일이 아니고 외교부까지 관여한 일이라는 증거다. 복지를 담당하는 한 부처를 넘어 범정부적으로 이 일에 관여한 것을 볼 때, 입양을 통해 외화벌이를 정부차원에서 독려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경제적 번영의 한 꼭지는 아동의 해외입양을 통해서 일구어 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번영이 국내 기지촌의 여성들이 벌어들인 달러와 월남전 참전용사들의 죽음을 담보로 전쟁참가, 중동 근로자의 피땀 어린 노동, 독일로 간 광부와 간호사들의 노고, 해외입양 아동의 낯선 땅에서 떠도는 삶, 자기 아이를 입양 보내고 일생 트라우마를 안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이 땅 여성들의 아픔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번영에 대해서 자랑할 것도, G20 정상회의 개최국이라며 대단해 할 것도 없다. 아이를 팔아 자국의 번영을 추구한 나라, 이 수치를 우리 세대에서는 벗어날 길이 없을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문제는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의기양양한 우리 모습을 세계 속에 각인시키고 싶어 하는 오늘도 우리는 하루 3명 아이를 해외입양 보내고 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1년에 약 천명 이상을 해외로 입양 보낸다. 이 숫자는 6·25를 겪었던 1953년부터 1957년까지 5년 동안 보냈던 해외입양 아동의 숫자와 비슷한 숫자다. 다시 말하면 한 해 동안 해외입양 보내는 아동의 숫자가 50년대 보다 5배가 많다. 그러니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아동을 입양 보낸다는 것도 우리의 복지가 아직 문제여서 등등 어떤 설명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며, 입양이 산업화되었음에도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우리와 경제력을 비교할 수 없는 남미의 과테말라도 아시아의 베트남도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도 유럽의 루마니아도 해외입양을 금지한 지 오래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같은 나라는 심지어 자국 내 입양조차도 1년에 10명 내외에 불과하다. 미국도 미혼모의 98%가 자기 아이를 자기가 키우는 나라다. 그러니까 입양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이 이미지, 이 담론이 사실 문제다. 친생가족 그 누가 입양의 이름으로 헤어지길 원하겠나? 그 정책을 집행하는 관리와 입양기관의 사회복지사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겠나?

결국 문제는 우리 속에 내재하고 있는 관념이다. 입양은 입양하는 사람에게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일 수 있어도 생이별을 겪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생 지울 수 없는 비극이고 슬픔이다. 이 슬픔에 연대하는 대신에, 그래서 그들에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고뇌하고 그것을 성숙한 시민사회의 응답과 정책으로 만들어 가지 않는 정부와 사회복지학과와 입양기관들은 그 게으름에 대해, 그 인간성의 결핍에 대해 통석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입양활성화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거드는 학자들과 입양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그렇다고 내가 입양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부모가 마약이나 알콜 중독자거나 가족 내 성폭력 역사가 있거나 중범죄로 부모가 다 감옥에 있거나 부모가 다 사망하고 다른 친인척이 돌볼 여력이 없는 경우는 아마도 입양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경우 소위 아동보호 시설에서 성장하는 아이들도 참 많다. 거기에다가 경제적으로 가장 열악한 상황으로 출생하는 장애아들도 있다. 이들을 입양하는 일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국내외 입양 아동의 90%가 미혼모가 낳은 영아라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아무리 변명을 둘러대도 영아 입양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연장아나 장애아의 입양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입양활성화 운동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정부나 입양기관이나 입양부모단체들의 주장이다. 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입양 활성화 운동이 아니라, 미혼모들이 자신이 낳은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충분히 만들고, 그래서 입양을 통한 가족의 결별을 최소화하는 운동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꼭 필요하다면, 일반적인 입양 운동이 아닌 연장아와 장애아 입양운동 나아가서 공개입양 운동을 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나 시민사회 지도력의 성숙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나는 내 가슴도 설레게 하는 아름다운 말, '가슴으로 낳은 사랑'이라는 슬로건 아래 90% 미혼모의 영아가 국내외로 입양되는 현실에 분노한다. 미혼모 가족도 하나의 단위 가족인데, 단지 미혼모라는 이유만으로 저들의 결별을 당연시 되고 있는 현실... 아직도 입양활성화를 국가정책으로 삼고 있는 우리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어느 선진국도 입양활성화를 국가 정책으로 삼고 있는 나라는 없다. 입양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도모했던 과거 관행, 입양산업이 복지체계 내에서 구조화된 일, 정부 관료의 전문성 결핍, 입양문제를 가족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통전적 전망 안에서

연구하는 학자군의 부재 등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현실에 우리를 머물게 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거친 틀이 입양인의 삶을 가두고 침묵 강요"



▲ 뿌리의 집에서 있었던 입양인 모임

— 생활고로 인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던 친엄마들의 가슴 아픈 사연 몇 경우를 소개하면?

“미국으로 입양 보내어진 민진이 엄마 이야기다. 민진이가 뿌리의집에 머무는 동안 민진이와 민진이의 오빠와 두 언니들은 몇 차례 뿌리의집에서 가족 재회를 했고, 민진이 엄마와 아빠는 경상북도 상주에서 살았다. 너무 어려워 아빠는 대구로 나가 지나

가는 자동차에 발을 들이밀고 싸움을 걸어 입에 풀칠하는 참 어처구니없는 방식으로 가족의 생계를 꾸리는 그런 사람이었다.

결국 그는 민진이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 있었고 10여 년 동안 병원에 있다 세상을 떠다. 오빠 하나에 언니가 둘인 집의 넷째로 태어난 민진이는 다 쓰러져 가는 시골집에서 태어났다. 당시만 해도 대부분 여성들은 병원에서 출산했는데, 민진이 엄마는 그럴 형편이 못되었다. 결국 난 지 이틀 만에 동네 아주머니를 통해 고아원에 맡겨졌고, 고아원에서는 입양을 권했다. 생활이 너무 어려워 얼떨결에 그렇게 하마하고는, 막상 민진이가 서울로 보내지고 나자 민진이 엄마는 매일 고아원을 찾아갔다. 아이를 내어 놓으라고 울고불고 고아원 마당에 아예 까무러치기도 했다.

어려운 중에도 딸 셋을 키웠으니 그 가슴에 고인 모성이 얼마나 풍부했겠는가. 가난이 그녀로 하여금 그녀의 말로는 무서운 죄를 짓게 한 것이었다. 민진이 엄마 가슴의 트라우마가 얼마나 무겁고 거칠었던지 그녀는 아이들을 다 팽개치고 머리를 형클은 채로 매일 낙동강가로 나가 개천에 몸을 누이고 하루 종일 꿈쩍않기를 1년여. 그 동안 일곱 살 난 민진이 언니가 울며불며 살림을 했다. 문제는 재회가 정말로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의 눈물에 본의 아니게 눈물을 보태면서 재회의 통역자로 딸과 엄마와 언니들과 오빠 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었지만, 끝까지 엄마와 딸은 진정한 소통에 이르지 못했다.

미국으로 간 딸의 마음에 있는 아픔과 상처가 얼마나 깊었던지, 딸은 좀처럼 엄마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고, 엄마는 25년간 굳어져 버린 상처가 너무 두터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엄마와 아이의 결별은 생명을 조갰 듯한 상처와 분노와 거부의 그늘을 일생에 걸쳐 드리우곤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끝도 없다. 시댁에서 생모 몰래 입양 보내버린 이야기, 생모의 친모나 언니들이 입양을 통해 아이와 엄마를 떼어 놓은 이야기, 아이 맡긴 고아원이 생모와 의논 없이 입양 기관에 아이를 보내버린 이야기... 이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사실은 엄마와 아이의 결별은 아프고 상처는 깊고 오래 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대개 혼자만의 비밀로 가슴 깊은 곳에 묻은 채로 산다. 6·25 후 20만 명이 해외입양을 갔고, 국내 입양도 6만을 넘는다. 26만 명의 상실! 이걸 개인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우리사회의 거친 틀이 이들의 삶을 가두고 침묵을 강요해온 것이다."

_ 개인적으로 입양문제에 깊이 관여하게 된 계기나 동기는?

"나와 나의 가족은 1992년부터 2001년까지 9년 동안 스위스에서 살았다. 스위스 국가교회의 한국담당목사로 일을 했는데, 했던 일 중의 하나가 스위스에 살고 있는 한국계 입양인들을 사회적으로 목회하는 일이었다. 나는 8년 동안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했다. 이후 영국에서 3년 동안 지내며 입양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미처 마치기 전에 '뿌리의집' 시작하신 분들이 불러 '뿌리의집' 운영을 부탁했고, 벌써 7년을 일하고 있다. 근 18년여를 입양인들과 교제하고 또 그들로부터 날마다 배운다. 이 배움이 나로 하여금 오늘의 한국 입양에 관련된 현실에 대해서 발언하도록 하고 있다."

_ 입양인들 중 입양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유형별로 정리하면?

"입양을 부정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한국의 해외입양을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 편으로 많은 성숙한 입양인 들은 개인의 입양의 경험이 행복하나 아니냐에 기초해서 해외입양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한국의 시민사회가 가져가야 할 바람직한 아동복지 내지 가족복지 체계가 무엇이냐를 묻는 것이다. 입양이 결별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우선적으로 위기에 처한 가족이 헤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바람직한 것임을 지적한다."

_ 미혼모들 중에서도 주위 눈총과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용기 있게 아이들을 스스로 키우는 분들도 있다. 정부의 어떤 지원이 이분들에게 가장 절박하고 필요한지? 또한 한국 사회에 바라는 요청사항이 있다면?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편견의 불식이 필요하다. 교육기회와 직업훈련 기회의 제공, 취업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 보육체계의 확충, 주택문제에 대한 지원, 적절한 위기상담과 위기개입 등이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오는 5월 11일 '입양을 넘어 싱글맘 가족 권리보호로!'라는 주제로 국제콘퍼런스를 연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다. 국내외입양인, 아이를 입양 보낸 친모,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모 등 이분들의 가슴 아픈 삶에 관한 증언을 경청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그런데 현재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내어 줄 국내 입양인을 찾지 못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약 6만 명의 아동이 국내 입양되었다. 이 아동의 80% 이상이 친생자로 비밀 입양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입양된 아동이 지금 20대 이상에 이른 이들도 많다. 우리들은 이들의 목소리에 기초해서 입양이 그들에게는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규명하고 싶다. 혹시 이 기사를 보시는 분 중에 국내 입양인이며 이 문제에 관하여 발언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뿌리의집'으로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전화 02-3210-2451, 메일 admin@koroot.org)."

*덧붙이는 글 _ 김도현(57)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목사로 새문안교회의 부목사를 거쳐, 1992~2001년까지 스위스개척교회연맹의 선교동역자로 일했다. 스위스에서 일하는 동안 스위스에 살고 있던 한국계 입양인들의 친구가 되어 자조단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일들을 도왔다. 2001~2004년까지 3년 동안 영국 버밍엄대학교에서 '문화간 입양과 한국의 생

모들'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썼다(MPhil). 2004년 2월 한국으로 돌아와 서울 종로구 청운동 소재의 해외입양인센터 '뿌리의집(KoRoot)'를 운영하고 있다.

출 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55731
&PAGE_CD=12](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55731&PAGE_CD=12)

언 론 사

한겨레

보도일자

2011.05.05

제 목

미혼모라는 이유로 생이별 언제까지...

글 쓴 이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11일은 입양의 날... '민들레 어머니회' 노금주 회장



▲ 노금주 '민들레 어머니회'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 '뿌리의 집'에서 아들과 헤어지던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노 회장 뒤에 있는 사진은 자신과 아들의 재회를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 <나를 닮은 얼굴>의 포스터에 실린 아들의 어릴 적 사진이다. 이정아 기자leej@hani.co.kr

18살때 뜻하지 않은 임신, 가족이 나몰라래 국외 입양
30년만에 다시 만났지만 힘든 형편에 또다른 고통
미혼모 양육 틀 만들어야 국가도 입양 고민 탈게돼

5월11일은 '입양의 날'이다.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2006년에 만들었다. 그러나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가슴이 저며오는 이들이 있다. 생때같은 자식을 이역만리로 떠나보낸 엄마들이다. '민들레 어머니회'는 1970~80년대에 하릴없이 자식을 외국으로 입양 보낸 어머니들의 모임이다. 어머니회는 서로 동병상련의 마음을 나누고 의지하며 아이들의 한국 방문 정보를 공유하는 자조모임으로 3년 전에 만들어졌다. 지금까지 회원 12명 대부분이 헤어진 아이와 다시 만났다.

“또다른 시작이에요. 말이 안 통해서 설명을 해줄 수도 없고, 조금만 미흡해도 모두 내 탓이다 싶고... 국외 입양은 당사자에게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할 고통입니다.”

어머니회 노금주(52) 회장은 “아이를 다시 만난 2005년 이전에는 ‘해외입양’이란 말조차 몰랐고, 국내에서 살고 있을 줄 알았다”고 했다. 자신도 모르게 가족들이 아이를 한 산부인과에 보내면서 친권 포기 각서를 냈던 것이다. 그는 “나중에 알고보니 병원이 아이를 기관에 보냈고, 나라가 내 아들을 팔아먹은 거였다”며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느냐”고 말했다.

노 회장은 1976년 공장에서 일하던 18살 나이에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아들 성욱(35·미국 사우스다코타 거주)씨를 낳았다. 당시엔 “끓기를 밥 먹듯 해서 젖도 나오지 않았다” 고 한다. 도박에 빠진 남편을 더는 볼 수가 없어서 이듬해 한달간 집을 비운 사이 아이를 잃어버려 “환장해서 찾으러 다녔다” 고도 했다. 그런 아들을 30년 만에 다시 만난 것이다.

민간단체인 해외입양인연대를 통해 아들이 어머니를 먼저 찾았다. 한눈에 “나를 꼭 닮은 얼굴, 내 자식” 이었다. 그러나 아이의 얼굴엔 그늘이 가득했다. 어렵사리 얘기를 들어보니 양부모에게서 적절한 도움을 못 받고 자라 어린 나이에 가정을 꾸리느라 가난했고, 딸아이까지 심장에 문제가 생겨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노 회장은 “친엄마인데도 형편 탓에 맘껏 도와줄 수 없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 고 했다.

모자의 삶은 입양인 감독 태미 추가 3년 동안 찍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첫선을 보인 다큐멘터리 <나를 닮은 얼굴>(2010)로도 제작됐다. 친어머니를 다시 만났지만 일찍 여의고 만 추 감독을, 노 회장은 수양딸로 삼기도 했다.

오는 11일은 입양인단체와 미혼모단체 등이 함께 정한 제1회 ‘싱글맘의 날’ 이기도 하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 과 해외입양인 센터 ‘뿌리의 집’ 이 이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대강당에서 여는 국제 콘퍼런스에서 노 회장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줄 계획이다. 그는 “나 같은 엄마들이 더 많이 모습을 드러내야 사회가 바뀐다” 며 “나는 아이를 해외에 입양 보낸 엄마이고, 미혼모이기도 해요. 미혼모들이 아이를 키우며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면 국가의 입양 고민도 없어져요. 당사자들이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가야 할 고통을 덜어줘야죠” 라고 말을 맺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권희정 코디네이터는 “국가 지원 시설 미혼모의 70%가 아이를 입양 보내는데, 미국은 엄마가 아이를 포기하는 비율이 고작 1%에 머문다” 며 “입양을 장려하기 이전에 친엄마 손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편견을 거두고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말했다.

출 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6598.html

언 론 사 보도일자 제 목	한겨레	글 쓴 이	이유진 기자
	2011.05.05		(frog@hani.co.kr)
	Single Moms' Day shifts focus to family preservation		

TRACK and KoRoot to host international conference May 11 placing the spotlight on single moms



▲ Noh Keum-ju (Noh Myung-ja) discusses the circumstances of separation from her son pictured on the poster for the film “Resilience” at Koroot in Seoul, May 5.(Photo by Lee Jeong-a)

May 11 is “Adoption Day.” The government created the day in 2006 to activate for domestic adoption. Every year around this time, however, there are people whose hearts are cut to pieces. They are the mothers whose children were sent overseas. The Dandelion parents’ group is a group of mothers who were compelled to send their children overseas for adoption in the 1970s and 1980s. The mothers formed the group three years ago to commiserate, help one another and share information on their children visiting Korea. Most of the 12 members have been reunited with their children.

“It is another start. Because we cannot communicate due to language, I cannot explain, and even if it is a bit insufficient, I want to say it’s all my fault... Overseas adoption, to those involved, is a pain that must be endured for a lifetime.”

Noh Keum-ju (Noh Myung-ja), 52, the chairwoman of the group, said, “Before 2005, when I was reunited with my son, I did not even know the phrase ‘overseas adoption,’ and I assumed he was living in Korea.”

Noh continued, “Without my knowledge, my husband’s family sent my child to an ob/gyn and signed a statement relinquishing parental rights. Later, I found out the hospital sent my son to an institution, and the country [Korea] sold my child off. My world collapsed when I heard the news.”

“When I was 18 and working in a factory, I gave birth to Seong-wook (35, living in South Dakota, United States) due to an unwanted pregnancy. My starvation was so serious that I was unable to lactate. My husband gambled and was never around, and the next year, while I was away for a month, I lost my child,” said Noh. “I went out of my mind, so I went to find him.” 30 years later, she found him again.

Through the adoptee-founded organization Global Overseas Adoptees’ Link (G.O.A.L.) assisting returning adoptees, Seong-wook found her first. At a glance, she could tell, “He looks just like me. He is my child.” His face, however, revealed the gloom of his own family troubles. Listening to his story with difficulty, she learned he grew up without the appropriate help from his adopted parents. He started his own family at a young age, and they were poor, and his daughter even developed a heart condition. Noh said she felt most sorry that she could not help him though she wanted to because of her situation, despite being his birth mother.

Their story was the subject of adoptee filmmaker Tammy Chu’s documentary film “Resilience.” The film was shot over a three-year period and premiered at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Noh also made Chu, who met her birth mother before she passed away at an early age, an adopted daughter.

May 11 is the first “Single Mom’s Day,” created by adoption and single mother groups. Noh plans to tell her story at an international conference that day at the Community Chest Auditorium hosted by Truth and Reconciliation for the Adoption Community of Korea (TRACK) and KoRoot, a guest house for overseas adoptees returning to South Korea.

“Society will only change if mothers like me show themselves more. I am a mother whose child was sent for overseas adoption, and a single mother. If a base is created so that single mothers can also raise their children, the nation’s concerns about adoption will also disappear,” said Noh. “We must lessen the pain that must be suffered to the day they die by those affected by overseas adoption.”

Kwon Hee-jong, a coordinator at the Korean Unwed Mothers Support Network (KUMSN), said, “70 percent of the mothers at state-supported facilities relinquish their children for adoption, while in the United States, the ratio of mothers who give up their children is just 1 percent.”

Kwon added, “It is absolutely necessary that we eliminate prejudices so that birthmothers can raise their children on their own and expand support before encouraging adoption.”

출 처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476672.html

언 론 사	프레스이안	글 쓴 이	태미 고 로빈슨 (한양대학교 사
보도일자	2011.05.22	*번 역	범대학 응용미술교육과 교수)
제 목	‘빛을 향한 노스텔지어’, 우주적 변화를 요구하는 어머니들 [해외입양인, 말걸기] G20국가로 진입한 한국, 계속되는 해외입양		

필자는 2011 전주 영화제에서 선정된 190개의 영화 중 패트리샤 구즈만(Patricio Guzmán)의 〈빛을 향한 노스텔지어〉(Nostalgia for the Light)가 선택된 것이 기뻐다.

이 영화의 배경인 아타카마(Atacama) 사막에는 콜럼버스 이전 시대 거주민의 거대한 땅 그림(geoglyphs)과 아우구스토 피노체트(Augusto Pinochet) 정권 당시 사막에서 사라진 정치범의 역사가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천문시설인 파라날 천문대(Paranal Observatory)가 있기도 한 곳이다.

구즈만의 영화는 아타카마 사막에 있는 지질학자, 천문학자 그리고 실종된 자식의 어머니들 등 세 그룹이 각각 현실의 취약함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날카롭게 그리고 있다. 실제로 태양계와 인류의 근원에 대해 연구하는 과학자들 밝혀냈듯이, 우리는 행성과 어머니 시신의 유골의 화학적 구성이 같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영화에서 한 정치범의 어머니가 "나는 천체

망원경이 하늘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찾을 수 있도록 지구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한 인터뷰와 같이 인간을 물질과 에너지로 보는 역사와 칠레의 사회 정치적 역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들에서도 영화제 이외에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기가 어렵다. 마이클 무어의 <화씨 9/11>(2004, 미국)와 한국 다큐멘터리인 이충렬 감독의 <위낭소리>(2008, 한국)는 정도를 예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관객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지속적으로 제작되고 있음에도 자주 접할 수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감사하게도 전주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감독의 최신작을 보게 되었고, 지난 10년 동안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영화였다. 전주국제영화제에 의해 소개된 내용 중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이 영화를 프랑스어와 한국어 자막을 넣어 상영한다는 것이었다. 한국과 칠레가 그들 스스로 독재 이후 민주화로의 이행을 용이하게 설명하며, 이는 필자가 함께 극장에서 영화를 감상한 관객들이 보이는 정서적 반응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 반면 필자의 제 2외국어인 불어로 감상한 본 영화에 대한 경험은 내가 한국에서 경험한 특별한 역사적 트라우마인 국외입양의 관점에서 영화에 대한 질문을 재고하도록 만들었다.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자막은 특정한 역사적 출현과 유용성을 지닌다. 나는 미국에서 김동원 감독의 <상계동 올림픽>(1998)을 처음으로 봤던 때를 명확히 기억하며, 영어 자막이 외부의 제작 후원에 대한 필요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자국의 이슈에 대한 국제적 관심의 요청도 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스페인어로 진행되고 프랑스어 자막이 있는 <빛을 향한 노스텔지어>의 경우 모국어도 한국어가 아니고 제2외국어도 한국어가 아닌 한국계 디아스포라들을 위해서도 제공된다. 1950년 이후 해외 입양을 받는 15개국 중 한 국가로 입양된 한국 입양인들과 같이, 나 또한 한국어가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 중 하나이고 스페인어와 프랑스어가 가장 쉬운 언어들 중 하나라고 순위를 매긴 미국 국무부의 조사 결과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영화에서 구즈만은 독일에서 태어난 한 기술자를 인터뷰하는데 그는 피노체트 독재 정권의 영향으로 독일에서 칠레로 망명하여 살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의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자신을 칠레인으로 규정하는 이 기술자는 아타카마 사막에 일을 하기 위해 돌아왔고, 이 영화의 촬영 과정을 통해 자식들의 유해를 찾기를 애원하는 어머니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디아스포라의 언어들로 해석된 구즈만의 영화 속에서 나는 뜻밖에도 아이를 해외로 입양보내고 한국에서 법적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는 어머니들과의 화해의 가능성을 엿보게 되었다.

1990년대부터 많은 수의 성인 한국 입양인들이 시민단체가 후원한 모국 문화 여행, 교환 학생, 사업 등으로 한국에 돌아오고 있으며 이들 중 많은 수가 그들 자신의 출생기록과 가족 기록을 찾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어떤 입양인들은 법률의 개정 혹은 국외입양을 최우선시 하는 법의 취약성 등을 바꿔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세계 2차대전 이후 사실상 해외입양국으로 세계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 윤리적 기준, 전문적 실천 그리고 국제입양에 관한 헤이그협약(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지난 3월에 통과되었으나 법적 이행을 위한 서약이 되지 않은)을 개시하는 원칙을 비준하는 것에서는 늦었다. 게다가, 한국은 UN아동 권리 협약의 서명도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결과적으로, 많은 실종된 아이들의 예에서 보듯이 불법적으로 (양육이) 포기된 아이들이 국외입양을 통해 사라져왔고 이런 국제입양 시스템은 규제 받거나 감시되지 않아왔다. 실제로, 스칸디나비아의 NGO들이 한국의 전체 입양 건수를 30만 건으로 보는 것에 반해 한국

정부는 그 수를 17만 건으로 보고 있다. 입양 특례법 개정안이 성공적으로 통과되고 정부가 법원을 통해 입양을 심사하는 것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한국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 대한 적절한 해명을 할 수 없을 것이다.

G20 국가로 진입한 한국에서 아직도 국외입양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입양인들 그리고 입양인이 주도하는 단체인 ASK(국외입양인연대)와 TRACK(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은 미혼모들의 활동에 수년째 동참하고 있다.

이런 활동의 결과로, 오늘날 국외로 입양되는 90%의 아이들은 낙태 대신 출산을 선택하고 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아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느끼는 미혼모들의 아이라는 것이 알려졌다. 미혼모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특히 기초생활, 주택과 교육 지원 등의 (사회)복지 지원이 한부모 보다 국내입양을 선택한 부부에게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UN 아동권리 협약은 국가가 아이들이 출생국 내에서 가족과 거주하도록 돕는 것이 아동의 권리 중 하나라고 옹호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은 입양기관들이 아무런 모니터 없이 입양하도록 허가하는 등의 역행을 해오고 있으며, 공익과 사익이 상충되어 자본을 가지고 있는 서구의 불임부부들의 수요와 로비로 인해 고아가 아닌 아이들을 고아로 만들어 입양 보내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내가 아는 입양인 중에는 친부모님이 죽기 전에 꼭 아이들을 만나려고 했으나 친부모의 정보 노출을 꺼린 입양기관들이 정보를 주지 않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한국은 지금껏 많은 트라우마들은 겪어왔고 수많은 가족들이 이러한 경험들을 감당해야만 했다. 한국 민속 문화로부터 그 트라우마의 목록을 보자면, 바닷길이 열릴 때에만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진도 뽕 할머니 이야기'에서부터 '오세암', '햇님 달님' 등과 같이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날 때에만 가족과 다시 재회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무수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상에 가까운 해결책들에 만족할 수 없는 미혼모들의 아이들을 지켜내려는 노력과 입양인들의 부모 찾기에 대한 몸부림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구즈만의 영화는 밤하늘을 찍고 사막을 조사하는 책략과 사라진 자식들을 찾아 헤매는 어머니들의 끊임없는 의지 사이를 중재한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심오한 영화와 그 어머니들은 과거사를 통해 우리에게 우주적이고 철학적이며 사회 현신적인 변화와 유사한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헤이그 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해 통과되고, 한부모를 위한 지원과 입양 특례법 개정에 대한 지원들이 늘어나면서 빛을 찾는 친구들(fellow light seeker)이 생겼다.

2010 유럽 영화 아카데미상 최고 다큐멘터리상 prix ARTE를 수상하고 전주국제영화제에서 4월 30일과 5월 6일에 상영된 〈빛을 향한 노스텔지어〉는 현재 일부 상영관에서 상영되고 있다.

언론사

코리아중앙데일리

보도일자

2011.05.20

제목

A day redefined to honor single moms

글쓴이

Lee Sun-min

(summerlee@joongang.co.kr)

We challenge the government to support children in the families in which they were born.

-Jane Jeong Trenka



The stories of adoptees are often recounted in the media, especially around this time of year, when focus on the government-designated Adoption Day produces articles about adoptees who have returned to Korea or are seeking to reunite with their birth family.

But behind every adoption there is another story to tell about a woman who has surrendered a child, and oftentimes not by choice.

What keeps these women from raising their children is a persistent stigma in a still patriarchal society that says they are unfit to raise their children alone and don't deserve the social or financial support to do so.

Until recently, their stories remained hidden, a dark secret at the core of the adoption issue.

But many of these women have begun not only to fight the system and demand support for their choice but also to speak about their experiences in an effort to gain recognition for the rights of other women to keep their children.

One adoptee group joined the fight by organizing a Single Moms' Day on Adoption Day, May 11, to shift the focus from adoption to family preservation. At a conference organized for the occasion, single mothers recounted the sometimes harrowing experiences of seeing their children sent for adoption by relatives or agency workers while adoptees voiced their support for the actions of a single moms group that is working to change the law so future generations will have the option of raising their children.



▲ Jane Jeong Trenka, far left, and Single Moms' Day participants distribute cakes celebrating single mothers and those who spent their first birthday away from their family. By Jes Eriksen

Track-ing adoption

Single Moms' Day was organized by Truth and Reconciliation for the Adoption Community of Korea (Track), an adoptee-founded group that advocates for family preservation and adoptee rights; KoRoot, a guesthouse for adoptees returning to Korea; the Korean Unwed Mothers & Families Association (Kumfa), a single mothers' advocacy group; and the Korean Single Parent Alliance. It included a gift drive, conference and cake give

away and was held May 11 at Community Chest of Korea in Jeong-dong, central Seoul.

"By raising public awareness about this issue, we can challenge the Korean government to meaningfully and sufficiently support children in the families in which they are born instead of sending them for adoption either domestically or internationally," said Jane Jeong Trenka, a Korean adoptee who was adopted to the United States when she was 6-years-old and the author of two autobiographies and an anthology about adoption.

Single moms speak out

Having few options and little money, one single mother, who wishes to remain anonymous, signed papers relinquishing her rights to her child before giving birth. She was 24-years-old and on her own and it was the best option she could imagine.

But after her daughter was born, she decided she couldn't bear to give her daughter up and decided to do what she needed to do to raise her. She returned to the agency to try to get the child back, but was unsuccessful, though the agency did allow her visits. The last time she went, the social worker told her that she wouldn't be able to see the child anymore if she kept asking to get her back. When she persisted, the social worker told her that even if it were possible to reverse the adoption process, she would have to repay the agency the money spent on the baby and the birth.

At the conference, she encouraged the government to support women who want to raise their children and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a woman can raise a child on her own.

"A child is not something we can give to someone else," she said. "Adoption should be considered after the birth mother is given a chance to raise her own child."

History

The kind of institutionalized international adoption that exists today began on a large-scale following the 1950-53 Korean War with orphaned and mixed-race children. But it is a different entity today, with around 90 percent of international adoptees the children of unwed single mothers.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58,703 children were adopted abroad from 1953-2005, though some estimates put the number closer to 200,000 because of the large number of unrecorded adoptions.

But of the 1,250 children adopted abroad in 2008, 1,114 were the children of unwed mothers, or 89.1 percent, according to a 2009 study by the state-run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The Korean government has tried to stem the tide of overseas adoption, most notably following an article published in *The Progressive* in 1988 that branded the country as a "baby exporting nation." The article, which appeared ahead of the Summer Olympics in Seoul the same year, shamed the country and lowered adoption rates, but it wasn't long before the numbers rose again.

Later, in the face of a plunging birth rate, one of the world's lowest in 2008 at 1.19, the government began making policies to encourage couples to have children - offering money to families with more than three children and, recently, by providing free day care for multiethnic famil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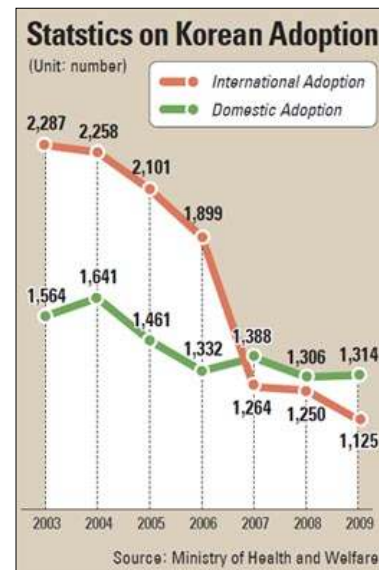
But experts say the government's effort to boost the birthrate while ignoring the needs of unwed single mothers is indicative of its bias against these women, who are viewed as unfit to raise their children.

The government created Adoption Day in 2005 to promote domestic and reduce international adoption.

Although the international adoption rate is on the decline, with 1,125 children adopted abroad in 2010, the increase in domestic adoption has been minimal, from 1,306 children in 2008 to 1,314 in 2009,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t the conference, Trenka pointed out that the imbalance in gender roles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women's rights and unwed single mothers in particular.

Lack of adequate social-welfare support, Trenka said, is another obstacle for single women raising a child. She cited a 2010 Alternative Report by Korean NGOs to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at said child and family expenditures accounted for 1.7 percent of the national budget, the lowest level among OECD countries.



Conference participant Gahm Eun-nam, a single mother, spoke about her own struggle to apply for welfare support.

When she went to register as the head of a single-parent family, she was told she was ineligible because she earns more than 800,000 won (\$737) a month.

“Wealthy or poor, old or young, single mothers share similar problems,” Gahm said. “It is not right to equate our social status with the amount of money we make.”

Many of the experts and single mothers who spoke at the conference pointed to a need for greater social acceptance of a woman’s right to raise her child, in addition to an increase in welfare support.

Choi Young-hee, a Democratic Party lawmaker, is working on a revision to the country’s Special Adoption Law in a coalition with several groups including the Single Moms’ Day event organizers. She said that through the law, which shifts the focus of the current law from adoption promotion to family preservation, she would strive to set a new paradigm for single mothers and adoption.

“Children in adoptive and foster families get 1.07 million won per year from the government,” Choi said. “But a single mother raising a child only receives a monthly subsidy of 50,000 won until the child turns 12. We are now challenging this archaic system.”

Though the law revision, which is set to be considered in an upcoming National Assembly session, focuses largely on adoption, there are also provisions for single mothers, most notably a requirement for unbiased counseling that is free from adoption agency interference.

At the conference, several adoptees spoke about their experiences, including Jes Erikson, a Danish adoptee, who also discussed his view of Korean society.

“I grew up in a society with a very robust welfare system in which equal opportunity, including gender equality, is a primary asset. So I find it only natural to question which laws and social norms constitute the root causes for inequality,” he said. “And this is why I find it interesting to question the system of overseas adoption as a symptom of an underlying social infrastructure that can and should be changed over time.”

During the conference, all of the single moms, whether their child had been relinquished for adoption or not, pointed to the social stigma against single mothers in Korean society. But what’s changed is that more of them are willing to stand and be recognized.

“I’m ready to go out in public and say I’m a single mother. I’m ready to say that out loud, but I don’t know if the public is ready to accept me as I am, and of course my child as well,” said Choi Hyong-sook, a single mother.

Choi has a 7-year-old boy who used to ask why people called his mom a “single mom” and Choi remembered having to explain her situation to him. Now, she says, he is proud to be the son of a single mother. He even says it out loud in restaurants

when talking to his friends, she said.

“I’m happy he is not ashamed of who his mother is, and he doesn’t need to be,” Choi said. “But it hurts when I sense how other people at the restaurants stare at him.”

출 처

<http://joongangdaily.joins.com/article/view.asp?aid=2936429>

언 론 사
보도일자

여성신문

2011.05.13

제 목

제1회 싱글맘의 날 국제 콘퍼런스

‘우리도 행복한 가정 꾸릴 수 있어요’

입양인 · 생모 · 미혼모...한자리에 복지 사각지대 어려움 토로

글 쓴 이

박길자 · 김희선 기자

(muse@womennews.co.kr)



▲ ‘싱글맘 벙글맘 짹짹~’ 11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싱글맘의 날’ 국제 콘퍼런스에서 생일잔치를 제대로 치러보지 못한 싱글맘 자녀들을 위해 입양인과 싱글맘들이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입양을 통해 문제를 풀기 전에 미혼모들에게 양육이라는 선택지를 먼저 제공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김도현 ‘뿌리의집’ 원장)

입양의 날’인 11일 국내외 입양 아동의 약 90%가 미혼모 자녀라는 현실을 지적하고 미혼모·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행사가 열렸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모임(TRACK)’과 뿌리의집, 한국

미혼모가족협회, 한국한부모연합은 이날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제1회 싱글맘의 날 기념 국제 콘퍼런스를 진행했다.

이날 대강당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식을 남의 품으로 떠나보내야 했던 어머니들의 한 맺힌 절규가 들리는 이들의 눈물을 자아냈다. 가족에게 떠밀려 해외 입양 시킨 자녀를 30년 만에 찾았다는 민들레어머니회 노금주 대표는 “남편은 도박에 중독돼 젖도 안 나오는 나를 끌고가서 피를 뽑아 팔게 했다”며 “남편 이 보기 싫어 20여일 집을 나온 사이 가족이 아이를 해외로 입양을 보내버렸다. 아이 없이 보낸 30년은 뭐라 말할 수 없이 가슴 아픈 시절이었다”고 고백했다.

김도현 원장은 “정부가 제정한 ‘입양의 날’을 ‘싱글맘의 날’로 대체해 이름 붙인 것은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입양 정책과 관행에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싱글맘들의

책임 있는 양육 태도는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고 강조했다.

한국미혼모가족협회 감은남씨는 “나 홀로 어렵게 출산한 후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받고 싶었지만 소득 기준에 맞지 않아 싱글맘을 위한 금전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고 말했다. 한국 미혼모가족협회 최형숙 대외협력팀장은 “결혼하지 않고 헤어진 상태에서 아이를 낳겠다고 결정하니까 한 남자의 인생을 망치는 여자라거나 미혼모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보는 시선이 많았다” 며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로부터 멀어지고 이를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고 회상했다.

그는 또 “세상이 무섭고, 살아가는 것이 무서워 아이를 포기하는 엄마들이 사라지길 바란다” 며 “미혼모 자녀에 대한 인식이 아빠 없는 아이가 아닌 아빠와 함께 살지 않는 아이로 바뀌어야 한다” 고 역설했다. 한국인 남편과 이혼해 싱글맘이 된 소냐 백달 미국 콘코디아대 교수도 “아이들이 자라는 데 많은 어른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꼭 엄마, 아빠일 필요는 없다” 며 “싱글맘, 싱글대디도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다” 고 힘주어 말했다.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낸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5개년 계획을 세워서라도 해외 입양 금지를 이뤄내자고 주장하며 “세상이 변해도 여전히 해외 입양이 아이들을 국제 인재로 키울 수 있고 미혼모는 재혼이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와 안타깝다. 미혼모가 아이를 키우려면 사회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 강조했다.

공통된 문제의식으로 입양인, 생모, 미혼모가 한자리에 모인 이날 콘퍼런스에선 전문가들이 나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김혜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정책센터장은 “자녀를 돌보는 일정 기간 동안 취업 수준이나 급여액에 상관없이 기초수급자 자격을 인정해줘 자립 기반을 다지게 해야 한다. 주거 지원과 직업교육 강화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 며 “이와 함께 10대 미혼모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주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여성 한부모 가족이 종사하는 일자리는 임시직이거나 장시간 또는 야간 근무, 휴일·3교대 근무 등이 많으므로 이 같은 근무조건에 맞춘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을 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박은성 인천 부자보호시설 ‘아담채’ 원장은 “싱글 대디들은 비정규직에 취업한 경우가 많다” 며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 연계해 취업을 지원하고, 직업훈련원에서 무료 교육을 해주는 동안 일정액의 생계비를 줬으면 한다” 고 제안했다.

언론사	여성신문	글쓴이	박길자 · 김희선 기자
보도일자	2011.05.13		(muse@womennews.co.kr)
제목	‘싱글맘의 날’ 만든 주역 제인 정 트레카 TRACK 대표 “이제는 한국 사회와 화해하고 싶어요.”		

생후 6개월에 미국으로...고등학교 때 생모 존재 알고 서신 왕래
‘피의 언어’ 등 자전소설로 입양의 상처 드러내며 대중의 관심 촉구



▲ 지난 2009년 TRACK이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벌인 해외입양 반대 캠페인.

“우리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란 질문을 던지며 해외입양에 둔감한 우리 사회의 각성을 촉구했다.

“해외 입양의 역사를 드러내고 이와 함께 생모의 고통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 문제는 바로 미혼모의 문제임을 드러내는 데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사람들이 이를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대했는데, 요즘 우리 사회가 보여주는 폭발적인 관심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깜짝 놀라고 있다.”

2006년 ‘입양의 날’로 정부가 제정한 5월 11일이 올해엔 좀 특별했다. 한편에서는 ‘싱글맘의 날’ 제정이란 상반된 개념의 기념행사가 열린 것. 입양을 우선순위에 두기보다는 입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미혼모들의 처지를 먼저 이해하고 이들이 자신의 아이와 함께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급하지 않느냐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 액션이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바로 ‘싱글맘의 날’ 제정을 처음으로 제안한 제인 정 트레카(39·사진)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TRACK) 대표가 있다.



▲ 제인 정 트레카 by 장철영 기자

생모의 첫 마디 “아이 러브 유”
감동 영원히 잊지 못할 것

사실 그의 어머니는 미혼모가 아니었다. 일약 미국 문단의 주목을 받은 자전소설 ‘피의 언어’에도 나타나지만, 그의 엄마는 남편의 폭력에 견디다 못해 바로 위 네 살 된 그의 언니와 생후 6개월 된 그를 부득이하게 미국으로 입양 보내야 했다. 전처가 낳은 두 딸이 있

는 아버지에게 재가해 그를 포함해 딸만 셋을 낳자 늘 술에 절어 살던 아버지는 형편이 어려워니 딸 둘을 입양 보내라고 엄마를 괴롭혔고, 심지어 갓난아기인 그를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기까지 했다.

엄마로서는 딸들의 생존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입양’이란 힘든 결정을 했지만 이후 ‘제인’이란 인형을 등에 업고 딸들이 떠난 공항을 전전하며 자식을 애타게 찾는 등 거의 실성한 채 세월을 보내야 했다. 그러다가 딸들의 입양을 주선한 입양 기관을 찾아가 양부모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해 드디어 딸들의 미국 주소를 알게 된 이후론 딸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그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고등학생이던 어느 날 집 우편함에서 한국어로 쓰인 생모의 편지를 발견하고부터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양부모는 생모의 편지를 감춰왔던 것. 이쯤 되면 왜 그가 이끄는 단체명에 ‘진실’과 ‘화해’라는 두 단어가 키워드로 들어가 있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에게 가장 상처가 됐던 말은 “너의 생모가 입양을 결정했다”는 것. 그는 “입양은 시민권에 관련된 문제이고, 국가가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입양을 촉진시켰다면 입양인 당사자의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분명히 말한다. 때문에 한국 정부가 입양인이 자신의 기록을 찾는 과정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사실을 바로잡아 진실을 드러내고 이들 해외 입양인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할 때 비로소 입양인들과 한국 사회와의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다.

“엄마의 편지를 발견한 이후 1988년부터 10여 년간 엄마와 편지를 주고받았지만 엄마의 존재가 그동안 내 삶 속엔 존재하지 않았기에 참 비현실적이었다. 엄마와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했을 때의 그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엄마는 영어를 못하고 난 한국어를 못했지만 전화 통화 내내 엄마는 번갈아 이 말썽만 되풀이하셨다. ‘경아(당시 호적에 남아있던 그의 한국명) 사랑해’ ‘경아야, 아이 러브 유’라고. 엄마와의 만남이 없었더라면 내 삶은 계속 괴로웠을 것이다.”

생모 존재 인정 않는 양부모와 절연 한국에 정착해 시민운동가로 변신

엄마와의 만남과 이후 엄마의 죽음은 이제까지의 그의 삶을 온통 뒤흔들어 놓았다. 그는 자신의 근거지인 미네소타에서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기로 하고 양부모와 언니를 초청했지만 그들은 이를 거부했다. 이를 계기로 그는 양부모와의 절연을 결심했다. “양부모님이 한국 사람과 한국 엄마를 ‘인간’으로 인정 안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니는 달랐다. 언니 역시 ‘입양인’이기에 생모에 대해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전적으로 그의 권리라는 것이다. 이후 4개월 예정으로 방문했던 5년 전의 한국행은 결국 정착으로 이어졌다.

“생모와의 만남이 내 인생을 변하게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에 대해 배웠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시간은 별로 없다는. 사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엔 내게 급한 일이 별로 없었다. 엄마의 죽음 때문에 한국과 관련해 내 삶이 끝나기 전에 더 중요한 일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고국 정착 이면엔 동양 여성으로 서양인들 틈에 살면서 느껴야 했던 강박관념도 한몫했다.

“여기선 마음이 안정되고 안전하다는 생각이 든다. 내 얼굴이 다른 사람과 똑같다는 사실이 특히 그렇다. 미국 사회에선 동양 여성에 대한 환상이 있고, 그래서 강간 시도도 많

다. 내 경우도 백인 스토키 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는 아직 감옥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두렵다. 이곳에선 성폭행 걱정 없이 다른 여자들 뒤에 숨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안도감을 준다.”

그는 정착 초기 연합뉴스에서 일하며 글쓰기를 병행하다가 올 가을엔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과정을 밟을 계획이다. 주요 관심사는 여성·아동 관련 복지정책. 2009년엔 미국에서 또 하나의 자전소설 ‘Fugitive Visions’를 펴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 떠돌아다닌다는 맥락에서 ‘변주되는 희망’ 정도로 번역될 듯 싶은데, 내년쯤 국내 출간을 목표로 창작과비평사에서 작업 중이다.

“산문과 시가 섞인 일종의 회상록 형식이다. 타의에 의해 미국으로 ‘도망’ 갔던 내가 서울과 미국을 오가며 입양에 대한 기억을 풀어놓는 형식이다. 입양인들이 국적을 다시 회복하고 친가족을 만나는 것이 일견 행복해 보이긴 하지만 다시 가족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지난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다.”

그가 2007년 TRACK 결성에 참여하게 된 것은 우연한 계기에서다. 해외 입양인 출신 5명이 모인 모임의 리더가 그의 친구였기 때문. 덴마크에 입양됐던 친구는 현재는 박사과정으로 활동을 중단했고, 자연스럽게 그가 모임의 구심점이 됐다. 이 과정 중에 “한국에서의 중요한 일”로 그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바로 미혼모 문제였다. 입양아 90%가 미혼모의 자식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그런데도 미혼모에 관련된 뚜렷한 사회적 움직임이나 커뮤니티가 거의 없다는 것도 문제로 다가왔다.

“미혼모 시설에서 나의 ‘과거’를 봤다”

“서울에 사는 입양인들이 애란원에 가서 미혼모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 속에 입양인들은 그 옛날 자신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의 모습을, 미혼모들은 미래 자신의 아이의 모습을 마주하게 됐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성이 혼자 힘으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은 위대한 선택이란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런 여성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란 문제가 대두됐다. 이후 양육 미혼모들이 뿌리의집을 빈번히 방문해 입양인 모임과 교류하기 시작했고, 모임은 어린이날,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 기념일을 서로 가족처럼 축하해주는 이벤트와 파티로 발전했다. 그러면서 온라인상에 미혼 양육모들의 커뮤니티 ‘미스 맘마미아’가 만들어졌고, 이후 이것이 ‘한국미혼모가족협회’란 오프라인 모임으로 확대됐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싱글맘의 날’이 제정돼 11일 그동안 같이 활동해왔던 이들과 함께 국제 콘퍼런스를 열기에 이른 것이다.”

현재 TRACK과 미혼모가족협회 회원 각 100여 명이 서로 왕래하며 ‘따로 또 같이’ 연대 중이다.

“아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생부들을 법정에 세우자”

“앞으로 우리들은 매해 싱글맘의 날마다 사회인식을 바꾸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한편 해외 입양 금지와 미혼모 지원을 골자로 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의 출생신고제를 출생등록제로 바꾸는 새로운 운동도 기획하고 있다.

핏줄이 중요한 한국 사회에선 입양 부모가 아이를 ‘친생자’로 등록하곤 하는데 장차 이 아이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자 한다면 이 또한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생물학적으로 태어났는데도 출생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며 1년여를 버티다 보면 그동안 아이는 사회적으로 ‘실종’ 되는 것 아닌가. 유럽에선 의사가 아이 출생 후 36시간 내에 출생신고를 동사무소에 보고하는 출생등록제를 실시한다고 알고 있다. 이처럼 제3자가 아이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보고하게 되면 그 아이의 과거에 대해 그 누가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한국의 정서를 감안해 ‘입양 아동’이란 사실을 입양인 본인, 친부모는 알 수 있으나 공식 서류에는 드러내지 않는, 그런 이중 방식을 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와 TRACK은 내년 싱글맘의 날엔 자신의 아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생부들을 법정에 세우는 상징적인 이벤트를 벌일 것도 생각 중이다. 한편으론 미국 뉴욕의 한 대학 교수인 김호수 박사에게 아이를 입양 보낸 60대 여성에 대한 심층 인터뷰 프로젝트를 맡겨 “입양을 통해 여성들의 삶이 어떻게 깨지고 고통 받는가”를 학문적으로 방증해낼 계획이다.

우리 사회 한편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지각변동. 제인 정 트렌카 대표와의 오랜 얘기를 끝내고 뿌리의집을 나오면서 문득 떠오른 생각이다. 제인 등이 벌이는 일련의 노력을 통해 입양 당사자뿐만 아니라 생모의 목소리까지 담아낸 ‘입양백서’가 나온다면 우리 사회는 ‘고아 수출국’이란 오명과 죄책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까. “왜 나를 버려야만 했어요?”란 입양인들의 절박한 질문에 이제 우리가 진실되게 답할 때다.

*한국말이 서툰 제인 정 트렌카 TRACK 대표를 위해 해외 입양인을 위한 비영리 게스트 하우스 뿌리의집 김도현 원장이 인터뷰 진행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출 처 <http://www.womennews.co.kr/news/49412>

언 론 사	CTS 기독교 TV	글 쓴 이	최기영 기자
보도일자	2011.05.11		
제 목	입양의 날? 싱글맘의 날!		

슬 이처럼 입양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중요하지만 입양의 아픔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싱글맘에 대한 지원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최기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입양이 이뤄지는 규모는 어느 정도가요?

기 지난 60년간 해외로 입양된 한국인은 20만명이 넘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 전쟁 이후 해외입양아동 숫자는 1960년대 매 해 백 여 명 정도였던 것이 1970년대를



기점으로 80년대까지 매 해 2천명 가까이 입양되면서 60년대에 비해 10배~20배까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해외입양이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1년에 1000여명, 하루 3명 정도가 해외 입양길에 오르는 세계 4위 입양 국가인데요. 과거에는 전쟁의 잣더미 속에서 아이들을 배 곡리지 않고 교육도 받을 수 있게 하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지만, G20 의장국이자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고 있는 현재를 비춰

봤을 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슬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입양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가요?

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의 싱글맘 즉, 미혼모의 아기 중 90%가 입양 되고 있다는 것이 이 문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섯 번째 입양의 날 기념 행사가 열린 5월 11일 또 다른 장소에서는 첫 번째 싱글맘의 날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제6회 입양의 날을 맞은 5월 11일, 하지만 이 날을 제1회 싱글맘의 날로 기념하고 입양 문제의 뿌리를 알리려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 TRACK과 해외입양인센터 뿌리의 집 주최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는 여성단체와 입양 기관, 국내외 입양인 등 100여명이 참가해 한국 사회 입양 문제의 해법을 진지하게 모색했습니다.

제인 정 트렌카 / TRACK 대표

먼저 싱글맘 가족과 입양-싱글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컨퍼런스를 통해 입양과 싱글부,모에 관한 정책에 영향을 받아온 당사자들이 중심에 서도록 할 것입니다.

'가족의 재정의, 입양을 넘어 싱글맘 가족 권리 보호로'를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에서 최영희 국회여성가족위원장은 "오늘은 입양 문제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이 탄생하는 날"이라며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최영희 / 국회여성가족위원장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입양관련 전문가들의 발제와 함께 아이를 입양 보낸 어머니와 국내, 외 입양인 등 입양을 직접 경험한 참가자들의 발표와 질의 응답이 진행됐습니다. 이를 통해 미혼모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낙인과 자녀를 기를 수 있는 권리의 부족함, 현실적 법제화의 필요성 등이 논의 됐습니다.

노금주 회장 / 민들레 어머니회

첫 번째 싱글맘의 날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맞은 우리나라의 입양문제. 입양으로 상처와 구멍이 남겨진 부모와 아이들의 가슴이 가족의 따뜻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슬 정말 몸보다 가슴으로 아파해야하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간의 문제일텐데, 이처럼 입양으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기 가장 중요한 것은 입양이 미혼모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암묵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입양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입양을 촉진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요. 현재 이뤄지고 있는 입양특례법 개정활동을 통해 이 명칭을 ‘입양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꾸는 한편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마약 중독과 같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입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가정조사제도’의 도입, 또 미혼모 복지를 위한 지원 확대 등이 지난 4월 국회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상정돼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친생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INT 김도현 목사 / 해외입양인센터 ‘뿌리의집’ 원장

슬 정부의 정책 마련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인식의 개선일텐데요. 어떤가요?

기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는 동성애자 다음으로 많은 차별을 경험하는 집단으로 조사됐는데요. ‘미혼모가 인식하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정도’를 살펴보면 편견이 ‘매우 심각하다’와 ‘심각한 편’이라고 답한 미혼모가 전체의 89%로 조사됐습니다. 이와함께 실제로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를 대상으로 사회적 편견이 개선될 경우, 양육할 의사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뿌리의집 김도현 원장은 이와 같은 미혼모의 사회적 인식 개선과 생활 지원을 위해 한국교회가 나서서 보듬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INT 김도현 목사 / 해외입양인센터 ‘뿌리의집’ 원장

기 세계적인 토크쇼의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 잘 아실텐데요. 이 사람이 미혼모의 딸이자, 자신 또한 미혼모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모르실겁니다. 이렇게 편견을 버린 따뜻한 시선이 또 하나의 위대한 인생을 만들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주길 바랍니다.

슬 가정의 달 5월을 맞은 만큼 형태를 떠나 이 시대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출 처

http://cts.tv/news/news_view.asp?PID=P368&DPID=119944

언 론 사	KBS 뉴스9	글 쓴 이	김민철 기자
보도일자	2011.05.11		
제 목	입양 [이슈&뉴스] 부끄러운 ‘고아 수출’ , 갈 길 먼 국내 입양		

◀ A N C ▶

티없이 맑게만 보이는 이 아이들은 친부모의 손을 떠나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입니다. 한때 고아 수출국 1위라는 오명을 불식시키려고 정부가 몇 년 전부터 해외입양을 제한했는데요, 대신 국내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이렇게 입양대기 아동들로 홍보영상까지 만들었지만 입양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제6회 입양의 날인 오늘은 우리나라 입양 문제에 대해 살펴봅니다. 먼저 정홍규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 V C R ▶

서울 신림동에 자리잡은 이종락 목사의 교회 건물에는 아기들을 놓아두는 작은 함이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이곳에 버려진 아기는 모두 16명. 대부분 미혼모들에게 버려진 장애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아기들을 하나 둘 맡아 키우다 보니 어느새 20명이나 되는 아이들의 아빠가 됐습니다.

◀ I N T ▶ 이종락(목사)

"장애 아이들도 입양돼 축복받으면서 살 수 있다. 제가 입양 대사가 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장애 아이들을 입양할 수 있도록..."

해외 입양을 앞둔 아이들을 위해 한 입양기관이 합동 돌잔치가 열었습니다. 몸무게 790그램의 미숙아로 태어난 주은이, 위탁모의 보살핌 속에서 1년 만에 8.6킬로그램의 건강한 아기로 자랐지만 두 달 뒤면 미국으로 떠나야 합니다.

◀ I N T ▶ 최순미(위탁모)

"미숙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후유증도 있다 보니까 국내 입양이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마음이 더 아프죠."

구개파열 장애가 있는 민지, 필리핀계 혼혈인 지민이도 모두 국내에서는 새 부모를 찾지 못했습니다.

◀ I N T ▶ 김진숙(동방사회복지회장)

"여자 아기를 선호하고 건강한 아기, 혈액형이 같은 아기, 심지어는 사주까지 보는 경우가 있다 보니..."

지난해 국내 입양된 장애 아동은 단 47명. 해외 입양의 1/4도 채 안 됐고, 남자 아이의 국내 입양은 여자 아이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 A N C ▶

이렇게 국내입양이 제자리라면 시설에서 자랄 수 밖에 없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질텐데요. 디지털 스튜디오에 김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현재 입양 추이는 어떤가요?

◀ 기 자 ▶

네, 먼저 국내와 해외 입양추이를 보면 지난 2006년 이후 해외입양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실시한 뒤 이처럼 해외입양이 점차 줄어 들어 올해는 천 명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시설 등에서 보호중인 요보호 아동이 한해 9천명이나 되는 현실에서, 국내 입양을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몇 년째 천 4백명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엔 입양뒤에 입양관계를 끊는, 파양 건수가 크게 늘어서 입양건수의 절반을 훌쩍 넘는 8백건 이상이 파양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아이들을 참사랑으로 키우는 입양 부모들이 있어서 김나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 V C R ▶

예순의 나이에 아이들과 놀아주기 바쁜 탁정식 씨. 정부기관의 방호원으로 넉넉치 않은 생활이지만 입양한 자녀가 여덟 명이나 됩니다. 다섯 명에겐 크고 작은 장애도 있습니다. 친부모에게 버려지고 입양에서도 소외됐지만 새 부모를 만나 미소를 찾아갑니다.

◀ I N T ▶ 강수숙

"다른 사람들은 아이가 많다고 해도 저는 많다는 생각 안들어요. 입양돼야 할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걸 알기 때문이에요."

남들이 꺼리는 아이를 더 보듬고 싶은 게 남은 소망입니다.

◀ I N T ▶ 탁정식

"잘생긴 인간이든 못생긴 인간이든,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 V C R ▶

"가자~ 하하하!!!"

다녕이와 다윤이네도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 만난 가족은 아니지만 친아들인 오빠와도 스스럼없는 가족이 됐습니다.

송다녕 : "엄마 아빠는 저를 키우는 재미가 너무 좋아 동생도 입양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다."

가족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은 입양가족사진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 I N T ▶ 강은미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고, 한 명이라도 보고 입양해도 저렇게 살 수 있구나 할수 있게."

새 부모를 만나 행복을 찾은 아이들, 하지만, 이런 행복이 멀기만한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 A N C ▶

저 아이들처럼 모든 아이들이 더이상 버림받는 일 없이 행복하게 자라도록 해야 할텐데 김기자, 대책은 없나요?네, 그동안은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활성화에 주력했다면 이젠 입양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때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기 자 ▶

미혼모인 신 씨는 2년전 딸 지아를 임신한 뒤, 한 입양기관의 안내로 해외입양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출산 뒤 크는 모습을 보고는,형편이 어려워도 스스로 키우기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 I N T ▶ 신00(미혼모)

"내가 키워야되겠다. 좋은 환경이 아닐지라도 엄마가 키우는게 옳다, 내가 엄마니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입양 아동 열에 아홉은 미혼모의 아이들인게 현실입니다. 친자식과 떨어지는 아픔에도 주변 시선 때문에 숨어 울던 미혼모들이 입양의 날인 오늘 말문을 열었습니다. 입양보다 친가족보호가 먼저라는 겁니다.

◀ I N T ▶ 목경화(한국미혼모협회장)

"입양이 최상의 선택이 아니라 최후의 선택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미혼모 엄마들도 내 아이 내가 키울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혼모가 친자식을 키울때 지원하는 양육비는 불과 10여만원. 입양부모나 시설에 대한 지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 I N T ▶ 김도현(목사/입양인 위한 ‘뿌리의 집’ 대표)

"보다 더 인간성과 모성애의 인권을 존중 하는 그런 방식으로 법이 개정돼야 된다..."

또, 미혼모들이 입양을 결정할 때 충분한 시간을 주는 입양숙려제나, 법원을 통한 입양허가제 도입 등 친생부모와 아동 권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출 처

<http://news.kbs.co.kr/tvnews/news9/2011/05/11/2290014.html>

언 론 사

MBC 뉴스데스크

보도일자

2011.05.11

제 목

미혼모 지원 ‘턱없이 부족’ ..경제지원 절실

글 쓴 이

양윤경 기자

(yangyang@imbc.com)



◀ A N C ▶

못살았던 과거는 그렇다 치고 세계 0위 경제 대국의 위치에 오른 지금도 왜 해외입양 대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걸까요. 양윤경 기자가 문제점과 대책을 알아봤습니다. 양 기자, 해외입양 추세가 어떤가요.

◀ 기 자 ▶

해외 입양이 조금씩 줄고 있기는 합니다. 2005년만 해도 2천 명이 넘었는데 작년엔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 러시아, 이티

오피아 등에 이어 세계 5위로 여전히 최상위권입니다. 그런데 이 애저집양자 가운데 80%가 미혼모의 자녀입니다. 결국 해외입양을 줄이려면 미혼모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해법은 없는지 고민해봤습니다.

◀ V C R ▶

어두운 저녁, 골목길에 들어선 여성의 품에 두터운 포대기가 안겨 있습니다. 잠시 후 이 여성은 포대기 없이 빈 손으로 돌아 나옵니다. 버려진 것은 갓난 아이. 이 아이는 다음날 숨졌습니다. 태희 엄마 김현진씨는 미혼모입니다. 낳는 게 당연했고, 키우는 것도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 I N T ▶ 김현진/싱글맘

"입양 보내면 내가 키우는 것보다 행복할까? 내가 더 잘 키울 수 있는 거 아닐까? 나랑 살아야 아이가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낙천적이고 똑부러지는 성격이지만 주위의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여전히 강합니다. 누가 가장 차별받을 것 같은지 설문조사한 결과 미혼모가 동성애자에 이어 2번째로 많았습니다.

◀ I N T ▶ 싱글맘

"시선 같은 게..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보는데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들어요, 이 상황이 되면, 어쩐지 내가 죄인 같고."

싸늘한 시선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육아의 무게입니다. 한 조사에서 미혼모의 월수입은 100만원 이하가 90%에 달했습니다. 수입이 없다는 대답도 21%나 났습니다. 보육료를 제

하고 나면 월세방 구하는 것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 I N T ▶ 이미정 박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경제적인 지원이 제일 절실해요. 내가 키울 수 있다는 가능성, 확신이 있어야 아이를 떠나보내지 않고 엄마가 키우지 않겠나."

미혼모들은 아이 한 명의 양육비 월 5만원에 기초수급비 같은 지원금을 더해 생계를 꾸려나갑니다. 소득이 없는 엄마에게 많게는 170만원을 주는 프랑스와는 비교조차 어렵습니다. 이런 현실이라면 미혼모로 살겠다는 결심은 어쩌면 진정 용기있는 자의 선택인지도 모릅니다.

◀ S Y N ▶ 싱글맘

"왜 입양 보냈어? 왜 애 안 낳고 낙태했어?라는 질문이 당연한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해외입양 대국의 오명을 씻으려면 미혼모, 싱글맘들이 당당해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와 경제적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뉴스 양윤경입니다.

출 처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847364_5780.html

언 론 사

MBC 뉴스데스크

보도일자

2011.05.11

글 쓴 이

임소정 기자

제 목

아직도 한해 1천 명 '해외 입양' ..해외 입양의 그늘

◀ A N C ▶

해외 입양 하면 대개 과거 잘 못살았던 시절의 슬픈 역사로 알고 있죠. 그럼 지금은 많이 줄었을까요? 아직도 한 해 평균 1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외국 가정에 입양되고 있습니다. 오늘 입양의 날에 준비한 해외 입양 실태 먼저 임소정 기자가 취재한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 V C R ▶

곤 돌을 앞둔 슬기, 슬하.

두 쌍둥이 아들 덕에 나병양 씨 부부 가정에는 지난 열달 동안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다. 하지만 이제 이별을 준비해야 합니다.

◀ S Y N ▶ 나병양, 최옥화

"속상하죠. 이렇게 예쁜 애가 외국에 가서 적응하려면...."

벌써 여섯번째 생이별,
해외입양길까지 아이들을 맡아 기르는 위탁가정들은 매번 홍역을 치릅니다.

◀ S Y N ▶ 오상렬, 김영애

"집 사람은(아이를 보낼 때) 기절했죠. 그냥 진짜...이게 사람이 못 할 짓이구나."

◀ S Y N ▶

"내 일부가 사라진 거예요" "내가 왜 입양됐는지 항상 궁금했어요."

수십년 전, 한국을 떠났던 아이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 속에서 물음표를 안고 산 지난 세월. 뿌리를 찾고 싶었지만, 단서라고는 정신병원에서 태어나 고아원으로 버려졌다는 서류 한 장 뿐입니다.

◀ I N T ▶ 카밀라 로스/덴마크 입양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은 우리의 과거를 찾는 데도 마치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작가로 이름을 떨친 제인 정 트렌카. 사회적인 성공도 입양아의 그늘을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금발이 되고 싶어 머리에 레몬주스를 부어대던 소녀, 다시 아기 진열대로 돌려보내질까 두려움에 떨던 날들은 그녀를 해외입양 반대운동으로 이끌었습니다.

◀ I N T ▶ 제인 정 트렌카/미국 입양

"입양의 결과가 감옥으로 이르든, 성공으로 이르든 그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소중한 우리 어린이들을 보살피는 정부정책이 어떤 것이냐이지..."

◀ S Y N ▶

"아들...잘 있었어? 엄마 보고 싶어. (몰라요) 많이 많이 사랑해."

친척들에 의해 몰래 입양보내진 아들을 30년 만에 TV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노금주 씨. 아들을 다시 찾아 행복하지만, 말 한 마디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현실이 원망스럽습니다.

◀ I N T ▶ 노금주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못 한 말. 내가 죽을 때까지 너한테 엄마가 미안해 미안해..."

다시 만날 수 있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혼한 남편에 의해 프랑스로 보내진 딸.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채로 앞으로 얼마나 더 가슴을 치며 살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 I N T ▶ 신경희

"다시는 그런 일(해외입양)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내 아이니까 부모가 키워야지..."

지난 60여년 동안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은 20만 명, 슬픈 역사는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출 처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847365_5780.html

언 론 사

국민일보 쿠키뉴스

보도일자

2011.05.11

제 목

내 말 한마디가 미혼모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글 쓴 이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쿠키 사회] “내 말 한마디가 다른 미혼모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다”

해외입양인 지원단체인 뿌리의 집과 한국미혼모가족협회가 ‘입양의 날’ 인 11일 ‘제1회 싱글맘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아이는 버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지, 결코 버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서울 중구 사회복지모금회 대강당에서는 자녀를 해외에 입양보낸 어머니 두 명이 참석해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자식을 남의 품으로 떠나보내야 했던 어머니의 한맺힌 절규가 듣는 이들의 눈물을 자아냈다.

김모(37)씨는 “1999년 스물 넷의 나이에 혼자 딸을 낳아 친권포기각서를 쓰고 입양기관에 맡겼다”며 “처음에는 모성애를 못 느꼈는데 막상 아이 얼굴을 보고나니 도저히 보낼 수 없어서 돌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각서와 경제력을 이유로 들어주지 않았다”며 흐느꼈다.

김씨는 “내 말 한마디가 다른 미혼모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다”며 “정부가 나서서 엄마가 혼자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래도 안되면 입양을 추진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1976년 18살에 낳은 아들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국으로 입양보냈다가 29년만인 2005년에서야 상봉한 노모(52)씨는 “노름에 빠진 남편이 젖도 안 나오는 나를 끌고가 피를 뽑아 팔게 했었다”며 “남편 정신 차리라고 20일 정도 집을 나온 사이 다른 가족들이 아이를 입양 보내버렸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아이를 ‘버렸다’ 는 그 단어가 너무 싫다. 내가 버린 게 아니라 주위에서 그렇게

만들었다”며 “어찌 됐든 엄마로서 자식을 지키지 못했기에, 죄인이기에 언제든 돌로 치면 맞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왔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어 “지금 당장 나이 어린 미혼모들은 막막하겠지만, 끝까지 용기를 잃지 말고 자신의 손으로 아이를 지켜내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가 엄마 혼자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제발 손가락질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출 처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4945071&cp=nv>

언 론 사

한국일보

보도일자

2011.05.12

제 목

‘입양의날 대신 미혼모를 챙기자’
제1회 ‘싱글맘의 날’ 기념 컨퍼런스
미혼모 등 150명 한자리 지원대책 호소
‘부모 다 있어야 정상적 가족이란 시선은 폭력’

글 쓴 이

김혜경 · 송옥진 기자
(thanks@hk.co.kr
click@hk.co.kr)



▲ 해외입양인센터 뿌리의집 등 입양단체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정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에서 '제1회 싱글맘의날 기념 컨퍼런스'를 열고 "정부의 미혼모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케이크는 그간 입양 등으로 생일축하를 받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 준비했다. by 김주성기자 poem@hk.co.kr

"우리는 입양을 1명이라도 줄이고 싶은데, 정부는 입양의날을 정해놓고 부추기는 것 같아요." (아이를 입양 보낸 어머니 모임 '민들레어머니회' 노금주 회장)

5월11일은 '입양의날'이다. 2006년 정부는 한 가족이 한 아동을 입양해서 새로운 가족(1+1)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를 담아 기념일로 제정했다. 그러나 올해 일부 해외입양인 단체 등이 입양의날을 '싱글맘의날'로 바꿔 챙기기 시작했다.

반세기 넘도록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입양 정책과 관행에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들은 입양 아동의 90%가 미혼모 자녀란 점에서 정부의 미혼모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진실과화해를위한해외입양인모임'(TRACK)과 해외입양인센터 '뿌리의집'은 한국미혼모가족협회·한국한부모연합과 함께 서울 중구 정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에서 '제1회 싱글맘의날 기념 컨퍼런스'를 열었다.

싱글맘은 미혼과 이혼뿐 아니라 남편을 사별한 엄마를 모두 포함하는 단어다. <피의 언어>라는 자전적 소설을 쓴 미국 입양인 출신 작가 제인 정 트렌카 TRACK 대표와 덴마크 입양인 엘리 박 소렌슨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같은 입양인과 미혼모 등 150여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먼저 민들레어머니회 회장 노금주(52)씨가 1976년 아들을 미국으로 입양 보낸 사연을 힘겹게 털어냈다. 그는 "아이 아버지는 피를 팔아 도박하고 늘 술에 절어 있었다"며 "잠깐 돈을 마련하려 친정에 맡긴 사이 어머니가 아들을 입양 보냈다"고 말했다. 장성한 아들을 찾고 난 뒤에도 그는 "만나면 아픔이 끝일 줄 알았는데, 새로운 아픔이 시작됐다. 그늘진 아들의 얼굴, 항상 억지웃음을 짓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죄스러웠다"고 했다.

갓난아기 때 네덜란드로 입양된 한국인 알리스 플리커트씨의 사연도 소개됐다. 그는 어린 시절 정체성 혼란에 힘겨워했다. 해외 입양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다. "'백인 세계' 속에 살면서 외계인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한국은 가난한 나라가 아닌데, 왜 해외입양이 계속되나요." 그는 "아이들에게는 친부모의 돌봄이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며 "해외 입양은 가장 마지막에 고려돼야 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미혼모가 직접 아이를 키우는 건 쉽지 않은 일. "정부는 미혼모가 낳은 아이를 시설에서 키울 때 매달 105만원, 대안가정의 일종인 그룹홈은 107만원, 위탁가정에는 25만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본인이 키울 경우 매달 7만원 정도의 혜택밖에 받지 못한다."(국회여성가족위원장 최영희 의원)

더구나 이마저도 지원 받기가 쉽지 않다. 8개월 된 아기를 혼자 키우고 있는 감은남(36)씨는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2인 가구 기준 80만원 이하의 소득이더라"며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혼모들이 가장 고통스러워 하는 부분은 편견 어린 시선이다. 정책보다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기도 하다.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 최영숙 팀장은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서 내가 미혼모라는 사실을 두고 수군거려 5일 만에 그만둔 적이 있다"며 "미혼모라고 하면 사람들이 먼저 부도덕하다, 문란하다고 연상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미정 연구위원은 "아버지 어머니가 다 있어야 정상적인 가족이라는 시선은 한부모가정에게 일종의 폭력이 될 수 있다"며 "가족의 의미를 재정의 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출 처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5/h2011051202374021950.htm>

언론사	The Korea Herald	글쓴이	Hannah Stuart-Leach (hannahsl@heraldm.com)
보도일자	2011.05.04		
제목	First Korean Single Moms' Day		

Celebrations during Korea's family month of May are to recognize single mothers in the country's first ever Single Mom's Day.

Unwed mothers and their children are to be celebrated and supported at a conference exploring issues ranging from international adoption to the discrimination these small families often face.

Attendees will celebrate the event on May 11 by sharing enough birthday cakes to feed 1,000 people outside Kyobo bookstore in Seoul's Gwanghwamun.

The cakes made by Mi n Mi Cake bakery will be given out at the bookstore's sunken garden at 12 p.m. to wish a collective happy birthday to kids raised by single moms — who often lack support in Korea.

Children will also be given presents bought through a gift drive for the conference hosted by the Korean Unwed Mothers and Families Association (Miss Mama Mia), the Korean Single Parent Association, Truth and Reconciliation for the Adoption Community of Korea and KoRoot.

Miss Mamma Mia member, Jo Su-yung, 41, who requested a toy car for her son through the gift drive, told why she decided on raising her child without a husband on falling pregnant: "Forty is somewhat of an old age, so I decided to have my child. It has been hard, but I don't regret it one bit and we are living a strong and bright life together."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aims to raise awareness about challenges facing single mothers, and to encourage the Korean government to provide more support to help them raise their children rather than feeling the need to resort to adoption.

TRACK president Jane Jeong Trenka, who has written three books about her own experiences as a Korean adoptee in America, said: "We decided to organize single mom's day because this year is the 6th year that the government and adoption agencies have organized adoption day to promote domestic adoption.

"Since around 90 percent of Korean children put up for adoption come from single moms, we want to promote family preservation and support for them rather than adoption."

Kwon Hee-jung, executive director of event sponsor, the Korean Unwed Mothers'



▲ An unwed mother with her baby taken at a support group facility. (by Jeanne Modderman)

Support Network, which also works to change attitudes toward unwed mothers, agreed: “Our society has not accepted their (unwed mothers’) right to be mothers for a long time and the majority of people naturally think they are supposed to give up their babies for adoption.

“This is against human rights and now it is time to recognize motherhood out of marriage as legitimate as motherhood inside marriage.”

Unlike in many Western countries, Korean single mothers are often aged 25 or older.

Single mother Kim Deuk-won, 33, said: “Education is so important because I believe it is the most efficient way to change prejudices around us.”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titled, “Redefining Family: Moving from Adoption to Family Preservation” is to be held at the Community Chest of Korea conference room on May 11 from 8:30 a.m. to 5 p.m.

Speakers will discuss official positions on international adoption as well as hearing first-hand stories from international adoptees and single mothers.

One such mother, Choi Hyung Sook, has stood up to tell her story — in the face of discrimination by those around her.

She initially gave her baby up for adoption after becoming pregnant at the age of 35. The father refused to be involved in the child’s life, and her older brother warned her that raising the baby would affect their parents too.

“In Korean society, raising a baby alone is not just my problem,” she explained, referring to the stigma imparted on the entire family.

But when she took her son back to care for him herself she was forced to close her beauty shop after people discovered she was an unwed mother. After the local press reported that she did not have a husband, people began calling to check that it was true.

After six months, sales dropped, and coworkers began discriminating against her. “The drop in sales was difficult, but more difficult was the hurt I received from other people,” she said.

“These people were like my family, they came to my home and we ate together. But because I am an unwed mother ... they thought badly of me.”

Although she has struggled financially and emotionally, she says she has no regrets.

“Even though life is difficult, when I see my son smile, I live for that.”

No registration is required for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freewill donations are accepted from those attending on the day. Visit <http://justicespeaking.wordpress.com> for

more information, details on donating to the gift drive or to contribute in other ways.

출 처

<http://www.koreaherald.com/national/Detail.jsp?newsMLId=20110504000899>

언 론 사

뉴스시스

보도일자

2011.05.10

제 목

입양공화국 슬픈 자화상... '미혼모→고아→입양' 연결고리 어떻게 끊나?

글 쓴 이

류난영 기자

(you@newsis.com)

미혼모 김미희(28·가명)씨는 6년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뒤늦게 임신 3개월이라는 사실을 알게됐다. 자신의 임신 사실을 부모와 친구에게 알리자 돌아온 말은 '임신을 했다고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면 안되니 당장 낙태해'라는 말이었다. 고심 끝에 낙태를 결심하고 병원에 간 김씨는 초음파 검사로 들리는 아이의 심장박동 소리에 차마 아이를 지울 수 없었다.

배가 불러오면서 다른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때문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둬야 했다. 마땅히 도움을 받을 곳이 없었던 김씨는 결국 미혼모 보호시설에 입소 했고 사회복지사의 재촉에 아이를 낳지 마자 입양동의서와 친권포기서까지 작성했다. 아이를 입양기관에 보낸 후 고통에 시달린 그는 결국 기관을 찾아 사정한 끝에 닳새 뒤 출산 비용 등을 지불하고 나서야 다시 아이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는 "출산에 임박했는데 입양기관은 양부모의 재력과 나의 무능력함을 비교하면서 모욕적인 말과 함께 아기를 빨리 포기할 것을 권유해 매우 불쾌했다"며 "아이를 입양기관에 보냈을 때는 마치 쓰레기처럼 아이를 버린 느낌이었다"고 토로했다.

미혼모를 가족의 형태로 인정하고 선입견이 거의 없는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의 미혼모들은 따가운 시선과 편견을 감수하며 살아야 한다.

실제로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의식조사에 따르면 미혼모가 3.18점을 기록해 동성애자(3.48점) 다음으로 가장 많은 차별을 경험하는 집단으로 조사됐다.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이웃으로 동성애 가족과 외도로 갈등하는 가족 다음으로 미혼모 가족을 꼽았다.

미혼모가 인식하는 미혼모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 정도도 매우 크게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미혼모를 대상으로 '미혼모가 인식하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정도'에 따르면 '편견이 매우 심각하다'와 '심각한 편'이라고 답한 미혼모가 전체의 89%로 조사됐다. 반면 '전혀 없다'와 '거의 없는 편'이라고 답한 미혼모는 각각 2%와 9%로 매우 적었다. 대부분의 미혼모들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미혼모 이지현(32·가명)씨는 "믿었던 동료에게 어렵게 미혼모라는 사실을 털어놨는데 다음날 회사에 소문이 나 있었다"며 "미혼모를 마치 범죄자라도 되는 양 취급하고 비도덕적이고 실패한 것으로 바라보는 눈초리를 견디지 못해 결국 퇴사를 하고 말았다"고 호소했다.

6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미혼모 박희영(38·가명)씨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가 '학교에서 아빠가 누구냐고 놀림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는 가슴이 미어졌다"며 "동네 아주머니들도 아이가 아빠가 없는 것을 알고는 불쌍한 사람 취급을 하거나 멀리해 매우 불쾌했다"고 말했다.

미혼모는 현재 제도적인 혼인 관계에 있지 않으면서 아이를 출산했거나 현재 임신 중인 여성을 말한다. 사전에는 미혼모를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 절차 없이 아기를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으로 정의한다. 미혼모라는 용어에 자녀 출산은 결혼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위반한 것에 대한 비난이 내포돼 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미혼모가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입양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 입양 활성화나 입양법의 개선 보다는 정부가 근본적으로 미혼모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권희정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미혼모 대부분이 자녀 양육을 선택하는 외국과 달리 한국의 미혼모 90% 이상이 자녀를 입양하고 있다"며 "이들 대부분은 미혼인 상태로 임신과 출산을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와 편견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 같은 편견을 없앨 수 있는 캠페인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혼모 지원을 동의하는 사람들도 미혼모가 어릴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는데 한 조사에 따르면 평균 나이가 30세이며 결혼이 늦어지면서 20대 후반의 미혼모도 많이 늘고 있다"며 "성인 미혼모가 급격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우리 사회에 알려지지 않아 청소년 미혼모 중심으로 정책이 이뤄지고 있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엄마 나이 기준을 완화하고 아이 나이(24개월) 기준으로 지원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이며 가구당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내인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 월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다.

실제로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를 대상으로 미혼모의 자녀 양육에 걸림돌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이 개선될 경우, 양육할 의사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경제적 지원이 제공된다면 양육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53.0%로 나타났다. 또 '사회적 편견이 개선된다면 양육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57.0%에 달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미혼모가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10대와 성인기를 막론하고 자녀를 양육하기로 결정한 미혼모들은 일정기간 자녀돌봄의 시간을 사회가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해 주는 분위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 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846497>

언 론 사	뉴시스	글 쓴 이	류난영 기자 (you@newsis.com)
보도일자	2011.05.10		
제 목	[인터뷰]"미혼모 자녀도 떳떳하게 거리활보 했으면..."		



▲ 권희정,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권희정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은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미혼모를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사무국장은 9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미혼모의 아이는 21세기 사회적 고아라고 불리는 데 미혼모들이 우리사회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외 입양아 중 90%가 미혼모에게서 태어난다고 한다. 입양 보내지는 아이 10명 중 9명은 자신을 낳아 준 엄마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을 살아있는 생모와 분리해 고아로 둔갑시켜 입양으로 내 모는 것은 우리 사회에 미혼 임신과 출산에 대한 심각한 편견과 차별이 보여주는 슬픈 초상이라는 지적이다.

권 사무국장은 "미혼모들에 대한 낙인이나 차별, 편견 등은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다"며 "미혼 여성들이 출생에 대한 부끄러운 인식을 스스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권 사무국장과의 일문일답.

_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미혼모는 동성애자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회적 차별을 경험한 집단'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미혼모 가족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펴야 한다고 보는가.

"미혼모 지원을 동의하는 사람들조차도 미혼모들이 다 어릴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미혼모의 평균 나이가 30세다. 현재 정부는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이며 가구당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내인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 월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다. 결혼이 늦어지면서 미혼모들의 나이도 다양해 지고 20대 후반의 미혼모도 많이 늘고 있다. 성인 미혼모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우리사회에는 그 부분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청소년 미혼모 중심으로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 나이가 많아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30대 넘어도 차별을 경험한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엄마 나이 기준을 완화하고 아이 나이(24개월)를 기준으로 지원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 어린 미혼모들이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청소년 기준정책도 완화하는 것이 좋다."

_ 한국은 세계 4위 아기 수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외국은 미혼모 대부분이 자녀 양육을 선택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미혼모 90% 이상은 자녀를 입양하고 있다. 미혼모들의 경우 양육 환경이 좋지 못하면 아이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미혼모를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미혼모의 아이는 21세기 사회적 고아라고 불린다. 미혼모들이 우리사회에서 차별이나 편견을 당하지 않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캠페인처럼 말이다."

_ 우리나라 미혼모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점은.

"우리사회가 미혼모들의 고충을 몰라 준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다. 우리사회가 다문화 여성도 아닌 미혼모들이 왜 어려운지 관심조차 없다. 사회적으로 출산과 임신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된다. 언발에 오줌 눈 것과 같은 미혼모들에 대한 목마른 지원이 미혼모는 물론 아이들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수급자가 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거의 없다. 미혼모들이 시설로 모이게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한부모들이 필요한 것은 아이들과 안정되게 살수 있는 보금자리다. 지역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임대주택을 신혼부부 위주가 아닌 한 부모에게도 분양을 해야 한다. 그들을 위한 복지도 현실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

_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20년 전 한국에서 딸을 입양한 리차드 보아스 박사가 설립한 미혼의 임신여성, 미혼모와 그들 자녀들을 위한 권리옹호 단체다. 미혼모네트워크는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미혼모들과 그들 아이들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미혼모가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알리고 있다. 또 사회적으로 미혼모가족 지원의 필요성을 교육하고, 홍보해 논의를 활발히 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_ 미혼모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나 당부하고 싶은 말은.

"미혼 여성들이 출생에 대한 부끄러운 인식을 스스로 바꿀수 있어야 한다. 미혼모들에 대한 낙인이나 차별, 편견 등은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만큼 일단 아이를 기르기로 결심했다면 엄마로서 자긍심을 갖고 당당하게 사회에 요구할 것을 말하고 어려운 점을 얘기해 주길 바란다."

출 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846498>

언 론 사	SBS 8 뉴스	글 쓴 이	이용한
보도일자	2011.05.11		(영상취재)
제 목	입양 가정보다 ‘미혼모 홀로서기’ 지원 시급		

<앵커>

오늘(11일)은 입양의 날입니다. 입양가정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혼모 스스로가 낳은 아기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게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혼모들이 자립하기엔 현실이 녹록치 않습니다. 보도에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모자보호 시설에서 생활하는 24살 미혼모 김 모 씨. 지난해 12월 갓 태어난 아들을 입양기관에 보냈다가 두 달 만에 아이를 직접 키우기로 마음을 고쳐 먹고 다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어떻게 키울 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김모 양/미혼모: 아무래도 계속 여기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애기와 단둘이 있는데 그런 생활 거처도 문제고 경제적인 것도 문제죠.]

25살 이상 미혼모가 보호시설을 나와 독립할 경우, 매달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돈은 단돈 5만원. 아이가 다른 가정이나 복지시설에 맡겨졌을 때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감은남(35세)/미혼모: 분유 한통으로 5일 정도 먹이는데 5만원가지고는 거의 1주일 정도 분량을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달에.]

현재 입양아동의 85%는 미혼모가 낳은 아이들입니다. 학업과 경제적 문제 때문에 대부분 입양을 보내고 있지만 여건만 허락된다면 직접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미혼모가 대다수입니다. 입양가정을 찾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혼모의 실질적 자립을 돕는 입양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출 처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911830
-----	---

언론사	연합뉴스	글쓴이	김효정 기자 (kimhyoj@yna.co.kr)
보도일자	2011.05.04		
제 목	〈사람들〉 미혼모·입양아 돕는 김도현 목사 "미혼모 지원이 입양정책보다 우선...순서 잘못" '제1회 싱글맘의 날' 행사 11일 개최		

"미혼모들에게 아이를 키울 권리를 충분히 확보해 주고 입양 대상이 되는 아동의 수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정책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해외 입양인 지원단체인 '뿌리의 집'(KoRoot) 원장 김도현(57)牧사는 입양의 날인 이달 11일 한국미혼모가족협회와 함께 '제 1회 싱글맘의 날' 행사를 연다.

정부가 입양 활성화에 나서기에 앞서 어려운 현실에 처한 미혼모들이 편견에 시달리지 않고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 행사의 취지다.

김 목사는 4일 "미혼모들이 아이를 포기하는 이유는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라며 "국내외 입양 아동의 90% 가까이가 미혼모 가정의 아이인데 입양만 독려한다면 문제를 푸는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생각하는 우리 사회 입양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 태어난 그 자리에서 양육의 위기를 어떻게 풀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 목사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입양 기관이 운영하는 미혼모 시설에서 양육을 결심하는 미혼모 비율이 30% 가량이었던 반면, 양육을 지원하는 미혼모 시설에서는 80%에 달했다"며 "입양이 우리 사회에 이미 주어진 해답으로 존재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스위스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해외 입양인들과 만나고, 이후 영국 버밍엄대에서 입양을 주제로 논문을 쓰면서 우리 사회가 한 번도 입양을 보낸 어머니들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그는 말했다.

'뿌리의 집'은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는 입양 과정이 보다 신중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 최영희 의원과 함께 입법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최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입양특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김 목사는 "현행법은 해외 입양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허가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고 있는데, 국내외 입양 모두 가정법원의 허가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라며 "아동의 시민권 이동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권력에 맡겨 둘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어머니들이 한 달 정도 육아 경험을 한 뒤 충분히 사려깊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입양 숙려제' 도입을 법안에 명시한 점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입양숙려제는 아동이 태어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부모가 입양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그는 인터뷰 말미에서 "보건복지부가 준비하는 TV 입양 광고는 '이 아이를 키워 달라'고 한국 사회에 부탁하는 거나 다름 없다"며 "미혼모들을 위해 양육이라는 선택지를 만들어주는 일이 바로 정부의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출 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8b%b1%ea%b8%80%eb%a7%98%ec%9d%98%20%eb%82%a0&contents_id=AKR20110503231900004

언 론 사

KBS 대전 뉴스9

글 쓴 이

지숙 기자

보도일자

2011.05.11

제 목

〈입양의 날〉 미혼모 올리는 지원정책

〈앵커멘트〉

오늘은 '입양의 날'인데요. 국내외 입양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싱글맘' 바로 '미혼모 가정'입니다. 그러나 입양 장려도 좋지만 그에 앞서 미혼모 가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보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하루종일 좁은 단칸방에서 3살 된 딸 아이와 생활하는 미혼모 박 모씨. 월 60만 원의 기초생활비 만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어 입양을 할까 생각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생필품 지원마저 중복 지원을 이유로 끊기면서 생활형편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인터뷰〉 박지영(가명) / 미혼모

"별거 아니지만 큰 힘이 됐었어요. 내년에는 지원 받으면서 일도 할 수 있겠다 했는데 끊겨서 너무 속상하고 힘드네요."

미혼모인 김 모씨 역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어쩔 수 없이 입양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이처럼 기초생활수급비 외에 미혼모에 대한 별도의 정부지원이 사실상 전무하다보니 대부분의 미혼모 아이들은 입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기준으로 국내외 입양에서 미혼모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81%와 89%에 이릅니다.

〈인터뷰〉 김도현/ 뿌리의 집 원장

"더 이상 아이가 입양가지 않아도 되는 사회 그리고 더 이상 아이와 엄마가 헤어지지 않아도 되는 사회 우리가 그런 사회를 함께 꿈꾸면서 나가야 한다"

입양 장려를 하기에 앞서 미혼모가 제대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요구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출 처 http://daejeon.kbs.co.kr/news/news_01_01_view.html?no=2988056&find_date=20110511

언 론 사	한겨레	글 쓴 이	박태우 기자
보도일자	2011.05.04		
제 목	[이사람] ‘싱글맘’도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정부 정책 실패로 입양아 늘어” 교육·노동 보장…양육기회 줘야		

“입양 장려는 출구전략일 뿐이죠. 미혼모가 아기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는 뿌리를 봐야 합니다”

국외 입양인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뿌리의 집’의 원장 김도현(57) 목사는 해마다 어린이 날을 맞는 심정이 착잡하다. ‘입양 주간’이 시작되는 오는 11일 오는 11일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TRACK)”과 “한국미혼모가족협회” 그리고 “한국한부모연합”과 공동으로 ‘제1회 싱글맘의 날’ 행사를 마련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날 입양인과 미혼모, 관련 전문가들이 싱글맘 가족의 권리보호 방안을 토론할 예정이다.

김 목사는 9년 동안 스위스 국가교회의 한국 담당목사로 일하면서 스위스 국가교회의 부탁을 받아 한국계 입양인에 대한 지원 활동을 하는 중 자연스럽게 한국계 입양인에 관심을 갖게 됐다. 특히 23살의 한국계 입양인이 ‘엄마를 찾으러 간다’는 한 줄 유서를 남기고 라인강에 몸을 던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게 결정적인 계기였다. 입양으로 인한 결별의 아픔을 줄여야겠다고 결심한 그는 2004년 귀국해 뿌리의 집을 운영해왔다.

김 목사는 특히 국외 입양인의 가족찾기 사업을 진행하며 전체 입양아의 90%가 미혼모의 자녀라는 점에 주목했다. 김 목사는 서울에 살고 있던 귀환 입양인들이 미혼모 지원시설인 ‘애란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입양이나 양육이나를 두고 번민하던 미혼모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그는 “이런 소통을 통해 많은 미혼모들이 아이 양육을 결심하게 됐다”며 “사회적으로도 미혼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모자란 현실을 그는 안타까워했다. “일반적인 부부도 아이 키우기가 힘든 마당에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직장에서 해고당한 미혼모들이 어떻게 아이를 키우겠어요? 미혼모에 대한 교육과 노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는 “서구사회처럼 우리도 미혼모의 결정을 격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목사는 입양 주간 동안 국정홍보채널인 <케이티브이>(KTV)에 입양 홍보 광고를 하기로 한 보건복지부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입양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한 정부부터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며 “어린이 양육을 위한 환경을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없이 아이를 입양해 달라고 광고까지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고 꼬집었다.

김 목사는 “더 이상 입양인 지원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목표” 라고 말했다. 결별의 아픔을 견뎌야 하는 원치 않는 입양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때문이다.

출 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6356.html

언 론 사

연합뉴스

보도일자

2011.05.11

제 목

자식 입양보낸 모성의 절규 "버린 거 아니에요"

글 쓴 이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 자식 입양보낸 모성의 절규 "버린 거 아니에요"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해외입양인 지원단체인 뿌리의 집과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등이 11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모금회에서 제1회 싱글맘의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자녀를 해외에 입양보낸 어머니 두 명이 참석해 가슴 아픈 사연을 털어놓았다. 노금주(52.왼쪽) 민들레어머니회 회장은 1976년 18살에 낳은 아들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국으로 입양보냈다가 29년만인 2005년에서야 상봉한 과거를 눈물로 고백했다. noanoa@yna.co.kr

제1회 싱글맘의 날' 행사서 눈물로 호소

"아이는 버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지, 결코 버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입양의 날’인 11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모금회 대강당에서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식을 남의 품으로 떠나보내야 했던 어머니의 한맺힌 절규가 듣는 이들의 눈물을 자아냈다.

해외입양인 지원단체인 뿌리의 집과 한국미혼모가족협회가 이날 개최한 제1회 싱글맘의 행사'에서 자녀를 해외에 입양보낸 어머니 두 명이 참석해 가슴 아픈 사연을 털어놓은 것.

김모(37)씨는 "1999년 스물 넷의 나이에 혼자 딸을 낳아 친권포기각서를 쓰고 입양기관에 맡겼다"며 "처음에는 모성애를 못 느꼈는데 막상 아이 얼굴을 보고나니 도저히 보낼 수 없어서 돌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각서와 경제력을 이유로 들어주지 않았다"고 흐느꼈다.

그는 "어떻게든 키우고 싶었지만 가진 게 없었고, 같이 살 곳이 없었다.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게 아니었다"며 "아이를 보내고 나서 미칠 것 같아서 못 마시는 술도 마시고 별짓을 다했었다"고 고백했다.

김씨는 "내 말 한마디가 다른 미혼모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다"며 "정부가 나서서 엄마가 혼자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래도 안되면 입양을 추진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1976년 18살에 낳은 아들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국으로 입양보냈다가 29년만인 2005년에서야 상봉한 노금주(52)씨도 용기를 내 마이크를 잡았다.

노씨는 "노름에 빠진 남편이 젖도 안 나오는 나를 끌고가 피를 뽑아 팔게 했었다"며 "남편 정신 차리라고 20일 정도 집을 나온 사이 다른 가족들이 아이를 입양 보내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 '아이를 버렸다'는 그 단어가 너무 싫다. 내가 버린 게 아니라 주위에서 그렇게 만들었다"며 "어찌 됐든 엄마로서 자식을 지키지 못했기에, 죄인이기에 언제든 돌로 치면 맞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왔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이어 "지금 당장 나이 어린 미혼모들은 막막하겠지만, 끝까지 용기를 잃지 말고 자신의 손으로 아이를 지켜내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가 엄마 혼자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제발 손가락질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노씨는 "마치 입양을 부추기는 듯한 입양의 날'을 입양인의 날'로 바꿔야 한다"며 '입양'이라는 말만 나오면 마르지 않는 샘처럼 눈물이 흐르는 엄마의 마음을 정부가 조금만 더 헤아려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출 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057114>

언 론 사 연합뉴스
보도일자 2011.05.11
제 목 '싱글맘의 날' 국제 콘퍼런스

글 쓴 이 임현정 기자
(kane@yna.co.kr)



◀ (서울=연합뉴스) 임현정 기자=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 트랙(TRACK)' 운영자 제인 정 트렌카 씨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싱글맘의 날 기념 국제 콘퍼런스'에서 소개발언을 하고 있다. 2011.5.11/ kane@yna.co.kr

출 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055911>

언 론 사
보도일자
제 목

연합뉴스

2011.05.11

'싱글맘의 날' 국제 콘퍼런스

글 쓴 이

임헌정 기자
(kane@yna.co.kr)



◀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싱글맘의 날 기념 국제 콘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프레젠테이션을 지켜보고 있다. 2011.5.11/ kane@yna.co.kr

출 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
&mid=sec&sid1=102&oid=001&aid=0005055918](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055918)

언 론 사
보도일자
제 목

연합뉴스

2011.05.11

'싱글맘의 날' 국제 콘퍼런스

글 쓴 이

임헌정 기자
(kane@yna.co.kr)



◀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싱글맘의 날 기념 국제 콘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프레젠테이션을 지켜보고 있다. 2011.5.11/ kane@yna.co.kr

출 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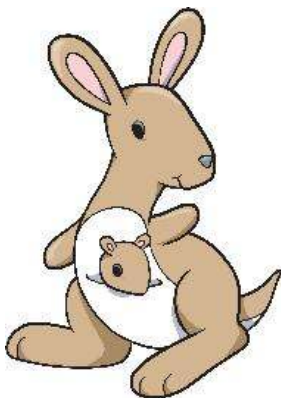
[http://news.naver.com/main/read.nhn?
mode=LSD&mid=sec&sid1=102&oid=
001&aid=0005055917](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055917)

언 론 사	프레스시안	글 쓴 이	수잔 백달 교수 (Concordia University)
보도일자	2011.05.11		
제 목	싱글맘, 그녀들의 용기에 박수를! [해외입양인, 말걸기]〈13〉한국의 싱글맘들을 지지한다		

나는 2011년 5월 11일 한국에서 있게 될 제1회 "싱글맘의 날"에 대한 지지를 천명한다

결혼하지 않은 채로 아이를 낳은 대부분의 한국 여성들은 아이들을 입양 보내도록 강력하게 권고 받는다. 실제로, 1990년대부터 해외입양 보내어진 아동의 90%가 미혼모가 낳은 아이들이다.

2010년 세계경제포럼(WEF)가 낸 "세계성별격차지수"의 보고에 의하면 한국은 134개국 중 104위에 자리매김 되었다. 한국에서 작동하는 성차별의 한 방식은 미혼모들과 그 자녀들은 마치 그들이 한 남성과 어떤 사회적 결합도 되어있지 않은 것처럼 취급되는 것이다. 싱글맘들은 친구들과 가족과 일터의 동료들로부터의 거절에 직면한다. 그들을 향한 낙인과 그들의 자녀들의 낮은 사회적 지위와, 적절한 사회복지의 결핍을 겪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결국 많은 싱글맘들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유이다. 한편으로 정부는 2008년 요보호아동 한 아이에 대해서 8 달러를 배분했는데, 이는 OECD국가 중 최하위였다.



▲ 싱글맘의 날 마스코트.
©프레스시안

이런 도전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자신들의 아이를 양육하기로 선택하는 싱글맘들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다.

다른 나라 여성들이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여성들 역시, 자신들의 아이를 키울 부모로서의 권리를 포함해서, 출산에 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본 인권을 가지고 있다. 1960년대 서구의 국가들에서 미혼모들이 미래에 싱글맘이 되어갈 수 있는 조건이 확장된 것처럼, 오늘날 한국의 싱글맘들의 활동을 격려하는 일은 한국 엄마들과 아이들이 가족으로서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예비할 것이다. 나는 한국의 싱글맘들에게 용기가 되도록 박수를 보내는 일에 전세계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고자 한다.

진심을 담아.

수잔 백달 교수(Concordia University)

* 제1회 싱글맘의 날에 모든 분들을 초대한다. 초대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싱글맘의 날 축하 생일케이크 한 조각을 드릴 것이다. 이 축하행사는 5월 11일 수요일 점심시간에 광화문 교보문고 선릉가든(종로쪽 출입구)에서 열릴 것이다.

다음은 '싱글맘의 날'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혀 온 외국인들 명단이다.

-Don Schweitzer, MSW, BSW
Assistant Professor & Director of Field Education
Pacific University Oregon, Forest Grove, OR

-Karen Knight MSW, PhD

-Nathan Chang, MSW, ACSW
Chair, BSW Program, Honolulu, HI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Suzanne R. Rabon, MSW
Director of Field Education
Social Work Program
Meredith College
Raleigh, NC

-Delmar Stone, MSW
Executive Director
Oregon and Idaho Chapters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JaeRan Kim, MSW, LGSW
Center for Advanced Studies in Child Welfare
University of Minnesota, School of Social Work
St. Paul, MN

-Kimberly Williams Pettway, MSW, MS
Instructor
University of South Alabama
Department of Sociology, Anthropology, and Social Work, Mobile, AL

-Carol Brownstein-Evans, PhD, LMSW, ACSW
Program Director
GRC MSW Program

-Carol Jabs, PhD, LCSW, LMFT
Director of the Social Work Program at Concordia University Chicago, River Forest,
Illinois

부록 - 싱글맘의 날 관련 언론보도

-Susanna Jones, PhD, MSW
Associate Professor &
BASW Program Coordinator
Long Island University
Brooklyn, NY

-Jade Stanley, EdD, LCSW

-Patricia Sherman, PhD, LCSW
New Jersey

-Katherine Morrow
Programs Administrator
Institute for Asian Studies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Portland State University
Portland, Oregon, USA

-Delores Butler, MSW
Tennessee State University

-Monica Pignotti, MSW, PhD

-Anne Biddlestone, Mother

-Craig R. Mosher, Ph.D. LMSW
Associate Professor & Director of Social Work Program
Luther College, Decorah IA

-Patricia W. Ivry, Professor of Social Work, Western Connecticut State University

-Anissa Rogers, Ph.D., L.C.S.W., M.A.
Professor of Social Work
Chair, Department of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Practicum Director & Hartford Faculty Scholar
University of Portland
Portland, OR

-Quintin E. Sullivan, Chair
Department of Social Work
University of Wisconsin Oshkosh

-Anna R. Holster, MSW, PhD ABD
Accreditation Associate
Office of Social Work Accreditation (OSWA)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Alexandria, VA

-Lucinda King-Frode, Ph.D., LICSW, Professor Bridgewater State University
Bridgewater, MA

-Daphne McClellan, Executive Director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NASW)- Maryland Chapter

-Sonja Vegdahl, PhD, LCSW
Director, Social Work Program
Concordia University, Portland, OR

출 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10511100625

언 론 사

조선일보

보도일자

2011.05.11

제 목

[편집자에게] '입양 보낸 엄마'를 철저히 외면하는 사회

글 쓴 이

김호수

(뉴욕시립대 사회학 교수)

지난 55년간 '혼혈아동, 기아, 미아, 결손가정 아동, 장애아동, 미혼모의 아이들'이라는 이유로 해외로 입양된 아동이 약 20만명, 국내 입양도 약 6만여명에 이른다. 이처럼 입양을 권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입양이라는 '선택 아닌 선택'을 해야만 하는 친생부모의 상황에 대한 관심은 전무하다. 지난 세월 동안 입양은 사정상 키울 수 없는 자식을 다른 누군가가 키우는 아름다운 실천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안전망과 복지의 미비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였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5월 11일 제6회 입양의 날을 맞으며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TRACK)과 해외입양인 센터 '뿌리의 집'을 주축으로 '싱글맘의 날'로 선



▲ 김호수 뉴욕시립대 사회학과 조교수

포했다. 입양을 권장하기보다는 싱글맘들의 권리를 보장해 입양을 최소화하자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원의 조사에 의하면,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 중 반수 이상이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이 개선될 경우 양육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수많은 미혼모들이 선택 아닌 선택으로 입양을 보내게 되는 이면에는 친부의 책임회피, 가족으로부터의 소외, 취업 제한, 그리고 미혼모 복지정책 미비가 자리하고 있다. 사실상 미혼모를 위한 복지정책은 곧 입양으로 귀결되어 왔으며, 이는 미혼모에 대한 단죄와 미혼모 가정에 대한 배제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미혼모를 입양 보내야만 하는 여성으로 보는 시선은 입양을 보낸 미혼모들이 겪는 상실과 고통을 외면한다. 그러나 친권포기는 친생모에게 만성적인 우울증, 고립감, 무력감, 좌절, 죄책감과 수치심을 일으키는 등 정신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입양 보낸 미혼모들의 상실감은 더욱 중층적이다. 이들은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자녀와의 소중한 관계를 상실했음에도 그 상처를 스스로 은폐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입양 보내야만 했던 여성들의 이야기는 한국의 근·현대 여성사나 입양담론에서도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스스로 아이를 키우지 못하고 입양을 보내야 했다는 죄책감과 상실은 많은 이들의 인생에 내려놓을 수 없는 짐으로 남아 있다. 그래서 입양의 날을 싱글맘의 날로 재정의하는 의의는 크다. 싱글맘의 날은 미혼모자 가정을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 공표하는 날인 동시에, 반세기 넘는 입양의 역사로 말미암은 가슴 아픈 이별과 상실의 고통을 애도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출 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5/11/2011051102551.html

언 론 사

오마이뉴스

보도일자

2011.05.11

제 목

오늘은 '싱글맘의 날', 그러나 미혼모자는 우울하다
[주장] 싱글맘 배려 않고, 최저출산율만 고민하는 대한민국

글 쓴 이

허영구

오늘(5월 11일)은 정부가 제정한 제6회 입양의 날이다. 가정의 달인 5월에 한 가정에 한 명의 아이를 입양하자는 운동의 일환으로 정해진 기념일이다. 경제선진국을 자처하는 한국이 해외입양 메달권에 있어 고아수출국의 오명을 떨쳐버리지 못하자 노무현 정부 당시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시작됐다.

그러나 전쟁 직후 전쟁고아들과 달리 오늘날 입양아동들 대부분은 미혼모를 생모로 두고 있다. 미혼모들은 아이를 양육할 여건만 되면 '미혼부모', '싱글맘'으로 친권을 포기하지 않

고 아이를 키우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국가나 사회는 이들의 여망을 외면하고 있다. 거기다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부정적 인식과 냉대까지 당해야 한다.

2009년 10월 26일자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노동민원과 권고자료 중 '미혼모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 자료에는 미혼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 공식통계는 없고 따라서 미혼모에 대한 정책도 없다. 80% 이상의 미혼모들은 출산아동의 직접 양육을 희망한다. 그러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미혼모 출산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정책은 없고 지원책도 도움이 안 된다.

2008년 현재 미혼모자 보호시설은 25개소,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15개소에 불과하다. 그것도 미혼모 출산전후 회복과 시설거주 제공 정도에 그치고 임신, 출산, 양육과정에 제공되는 기초생활보장, 의료서비스 등 국가차원의 지원책은 없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는 미혼모가 직접 출산 아동을 양육할 경우 양육수당, 양육보조금(장애통아동), 의료비 및 주거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현재 국내 입양아동의 경우 매월 아동수당(13세까지 월 10만 원)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결국 지원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실토하고 있는 셈이다.

또 아동 양육능력이 없는 미혼모를 위해 일정기간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미혼모자 시설 확충 및 관련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실행되지 않고 있다. 겨우 미혼모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전문기관을 거점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 미혼모를 지원한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입양과 100만 이산가족



▲ 국제적인 입양단체 중 하나인 홈트. 홈페이지 메인 이미지

미혼모가 아이를 낳아 양육하고 싶어도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혼모들은 친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낳은 아이들 대부분은 입양되고 있다.

2008년의 경우 국내입양아동 1306명 중 1056명(80.9%), 해외입양아동 1250명 중 1114명(89.1%)이 미혼모 출산 아동이었다. 나머지가 시설보호아동, 저소득층 자녀, 결손가정아동 등이다. 우리나라 입양의 역사는 한국전쟁 직후부터 시작된 전쟁고아들의 해외입양이었다.

1960년대 1만1481명(국내 4206명, 해외 7275명), 1970년대 6만3551명(국내 1만5304명, 해외 4만8247명), 1980년대 9만1824명(국내 2만6503명, 해외 6만5321명), 1990년대 3만5619명(국내 1만3296명, 해외 2만2323명) 등 지금까지 약 20여만 명이 해외로 입양되었다. 입양 당사자가 부모와 조부모와 헤어진 것을 감안하면 '100만 이산가족'이라 할 수 있다.

한국경제가 고도로 성장하던 시기이자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시절인 1970~80년대에 해외입양은 정점에 달했다. 해외입양아동의 70%는 미국으로 입양되었다. 한국은 고아수출국의 오명을 얻었다.

한국은 1990년 초 UN과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했고, 1996년 12월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다. 그러나 여전히 해외입양은 지속되었다. 이에 정부는 해외입양을 국내 입양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폈다. 2006년 정부는 국내입양을 촉진시키기 위해 입양의 날을 제정하고 국내입양조건을 대폭 완화(입양 수수료 본인부담 면제, 입양부모 나이 연장, 독신

자도 입양 가능 등)했다. 그러자 다음 해인 2007년 국내입양 1388명, 해외입양 1264명으로 국내입양이 더 많아졌다. 국내에 있는 입양전문기관은 홀트 등 4개(해외입양전문기관), 성가정입양원(국내입양전문기관) 등 5개에다 입양지정기관 18개가 있다.

국가가 미혼모의 양육권을 보장해야



▲ 미혼모와 아이가 함께 머무는
애관원 모습. 아이 이불이 곱게
깔려 있다.

해외입양의 경우 입양기관들의 사후관리는 전무하다. 따라서 입양된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지는 알 수 없다. 가끔 입양아를 대상으로 하는 논문이나 입양 자신의 수기를 통해 밝혀질 뿐이다. 아니면 성공한 입양아들이 한국의 생부모를 찾거나 재회를 통해 알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양으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내용은 알려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국내입양이라고 해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1~2006년 사이 파양된 아동은 5201명(협의 파양 4896명, 재판 파양 305명)으로 연간 평균 866명에 달한다. 13세까지 지자체로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양육 보조비(장애아동의 경우 50만 원 정도)와 1급 의료보호대상자로 지원하고 있을 뿐 사후관리나 조치는 거의 없다. 입양부모(요즈음은 '생부모'에 대비해 '친부모'라 부름)의 경우도 입양을 개인 가족의 문제로만 감당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내입양의 경우도 사후관리와 지원,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뿌리를 찾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경기도 미혼모 부자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2010,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실태 조사한 내용을 보면 '미혼모의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서비스'로 양육지원과 양육위탁시설 필요 43.3%, 미혼부/미혼모에 대한 인식변화 14.2%, 직업훈련 및 직장알선 강화 13.4%, 미혼모 부자 의료지원 8.9%, 미혼부/미혼모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7.3%, 상담서비스 3.4%, 산전산후 보호시설의 확대 2.4%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사회는 미혼모 부자를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 일반가정과 마찬가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과 보호를 해야 한다. OECD국가 중 최저출산율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회, 향후 노령사회에 대비해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한국사회가 미혼모와 싱글맘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하지 않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싱글맘의 날을 환영하며

최근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TRACK)', '해외입양인센터 뿌리의 집', '한국 미혼모 가족협회', '한국한부모연합' 등이 주창하여 2011년 5월 11일을 '싱글맘의 날'로 기념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입양이 아니라 생부모가 자신의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하지 않는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할 수 없다.

싱글맘의 날을 제정한다고 해서 기존의 입양의 날을 폐지하거나 긴장을 만들 필요는 없다. 여전히 싱글맘들의 자유로운 양육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누군가는 완충



▲ 김윤진이 전문직(변호사) 싱글맘으로 분한 영화 <세븐 데이즈>의 한 장면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입양에 대한 정부 지원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싱글맘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싱글맘의 날 제정은 해외입양을 국내입양으로 전환한 것보다 더 획기적인 일이다. 금년부터는 '입양의 날'과 '싱글맘의 날'을 함께 기념할 수 있게 되어서 좋다. 그러나 점점 '싱글맘의 날'이 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5월이 가정의 달이듯이 '싱글맘의 날' 역시 평범한 '가정의 날'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결혼과 가

족만이 정상적 가정이 아니라 독신이든 싱글맘이든 다문화가정이든 모두 정상적인 가족과 가정으로 인정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싱글맘들에게 격려와 지원을 보내자!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함께하자!

출 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64173

언 론 사

프레스리안

보도일자

2011.05.09

제 목

국내입양이 최선? 아이들의 권리를 지키자

[해외입양인, 말걸기] 제1회 싱글맘의 날을 맞아

글 쓴 이

제인 정 트렌카 작가

해외입양은 한국 사회로 하여금 오랜 동안 굴욕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런 이유로 해서, 6전 전 한국 정부는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선포했고, 매년 이 날을 기념하는 일을 통해서 국내입양을 증진시키고자 했다.

영어에는 "죽은 말 두들겨 패기(Beating a dead horse)"라는 속담이 있다. 이미 말이 죽었다면 아무리 발로 차거나 채찍질을 해도 말은 일어나 달릴 수 없다. 영어에서 어떤 사람의 특정한 행동에 대해서 "죽은 말을 두들겨 패듯"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일에 바보처럼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입양의 날' 제정이 바로 그런 일이다. '입양의 날'이 제정된 2005년에 2102명이었던 해외입양 아동의 숫자가 2010년에는 1013명으로 감소하는 실제로 감소하긴 했다. 그러나, 이 기간 중 처음 4년 동안 국내입양도 덩달아 감소했고, 2010년에 이르러 서야 겨우, 2005년에 비해 오직 1명(!)이 증가했을 뿐이다(1461명→1462명). 그러니 해외입양이 줄었다고 해서 국내입양이 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국내입양 촉진은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불쌍한 말은 내버려두자; 그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교통수단이다. 대신에 우리 시대에 걸맞은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자.

아동보호의 다른 모델

국제입양에 관한 헤이그협약사무국에 제출된 국가 보고서에 따르면 북유럽의 선진국들에서는 국내입양이 거의 없다. 미혼모들이 자신들의 아이를 키우는 일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 때문이다. 이 나라들에서 손가락으로 셀 정도로 작은 숫자의 국내입양은 가족 학대와 방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들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엄마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성품이 못됐다는지, 아니면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치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엄마가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는 엄마와 분리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해외입양아동의 약 90%가 미혼모의 아이들이다. 국내입양의 경우도 거의 같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미국과 같은 나라들은 1970년대 초까지, 아이를 입양 보내는 것을 통해서 미혼모를 처벌했다. 하지만 이 나라들에서 점점 양성평등이 실현되면서, 아이들을 키울 싱글맘의 권리는 강화되었고, 친인척간의 입양을 제외한 아동 입양은 점점 더 줄어들었다.

여성의 권리가 아이들의 권리다

여성의 권리에 관한 한, 한국은 선진국들에 비해서 많이 뒤쳐져 있다. 2010년 세계경제포럼의 성별격차지수에 관한 보고에 의하면, 한국의 성별격차지수는 총 134개 나라 중에서 103위인 아랍에미리트와 105위 쿠웨이트 사이인 104위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UN 아동권리협약위원회에 보고된 2010년도 한국 NGO단체들의 문서에 의하면, 2008년 한국 정부는 8800명의 아동을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했으며, 아동과 가족에 대한 정부예산은 전체 정부예산의 1.7%에 지나지 않았고,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였다. 같은 보고서에서 아동의 권리들을 보호하도록 몇 가지의 권고사항이 제시되었는데, 그 중의 하나는 민법을 개정하여 입양인들이 친생부모와 재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라는 것이었다.

이런 와중에, 국회가 민간단체들이 입양인과 친생부모와 미혼모들의 권리보호를 담은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중,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조회하자, 보건복지부는 이 법안에 대해 지난 4월 아래와 같은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친생부모가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친생부모는 입양결정시 아동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것이므로 친생부모에게는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UN 아동권리협약위원회에 보낸 정부보고서에서 정부가 자랑스럽게 주장한 것처럼 입양은 "다른 방식의 출산"일까, 아니면 (생체)절단일까? 아이들을 영구적으로 분리하는 것보다 아이가 이미 태어난 그 가족들을 강화하는 것이 명백하고 현대적이며 윤리적인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해결책이다.

아기야, 생일 축하해

결혼을 했건 하지 않았건 어떤 부모들도 아이들을 학대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결혼한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미혼모들도 공정한 기회와 약간의 격려를 받는다면, 자신들의 아이를 사랑하고 돌볼 수 있다. 이제는 골동품의 자리에 놓여 있어야 할 오래된 편견에 의해서 직업을 잃거나 사회적 관계망을 유린당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합리적인 사회복지와 창의적인 직업 문제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은 싱글맘과 그들의 아이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이것이 몇몇 단체가 해외입양이나 국내입양보다 더 나은 해결책을 제안하기 위해 5월 11일을 싱글맘의 날로 선포하는 이유이다. 미혼모들을 지원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입양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길이며 동시에 해외에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길이기도 하다.

세계 경제 포럼(WEF)의 2010-2011 글로벌 경쟁력에 관한 보고서에서 한국은 22위를 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한국은 자기 나라 사람을 상품처럼 수출하는 나라로 매우 잘 알려진 나라이다. 그 까닭은 LCD 패널, 자동차, 컴퓨터칩들은 그 나라들에서 인간관계를 형성 할 수 없는 반면에, 입양인들은 먹으러 다니고, 대화하며 살고, 학교와 교회를 가고, 결혼하며 아이를 낳고 손자 손녀를 낳으며 인간관계를 일구어 가기 때문이다. 서양국가 내부에서조차도 한국의 국제입양은 지속되는 하나의 유산이 되었는데, 한국이 현대 국가에 걸 맞는 행동으로서 점점 다양성이 증가하는 시민들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결머질 때라야 비로소 자국민을 수출하는 나라라는 인식을 지워낼 수 있을 것이다.

매일, 한국에서, 아이들은 싱글맘의 자녀로 태어난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미혼모는 소중한 자기 아이들의 출생을 축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사회가 기꺼이 미래로 나아가길 기대하고, 한국에 살고 있는 많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게 더 관대해진다면, 우리는 모든 태어나는 아기들을 축복할 수 있다. 이 아이들을 한국사회로 기쁘게 맞이하고, 그들을 키우는 엄마들을 응원하자.

* 제1회 싱글맘의 날에 모든 분들을 초대한다. 초대된 모든 사람들에는 싱글맘의 날 축하 생일케이크 한 조각을 드릴 것이다. 이 축하행사는 5월 11일 수요일 점심시간에 광화문 교보문고 선릉가든(종로쪽 출입구)에서 열릴 것이다.

출 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10509094632

언론사	중앙일보	글쓴이	박유미 기자
보도일자	2011.05.09		
제 목	“예쁜 애기 ... 친엄마 두 마디 말이 내 인생 바뀔” 11일 입양의 날 ... 첫 싱글맘 행사 여는 제인 정 트렌카 입양인 모임 대표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아기들을 해외입양으로 내몰고 있어요.”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의 모임(TRACK)’ 대표 제인 정 트렌카(Jane Jeong Trenka · 39 · 사진)는 이렇게 말했다. TRACK는 한국의 입양제도를 개선하고 미혼모를 돕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민간 모임. 2007년 회원 5명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100여 명으로 늘었다. 그는 “지난 10년간 국내외 입양의 90%가 미혼모 자녀인데 미혼모 자녀는 무조건 입양과 연결 짓는 한국인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외 입양 아동은 2475명으로 이 중 해외입양은 1013명이었다.

생후 6개월 때인 1972년 미국으로 입양된 그의 직업은 원래 작가다. 2003년 미국에서 자전적 소설 『피의 언어』를 출간해 유명해졌다.

“엄마에게 당신의 ‘예쁜 애기’라는 두 마디 말이 내 인생을 바꿔 놓았다고 말해 주고 싶다. 여태껏 누군가가 나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거나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소설의 한 대목처럼 친엄마와의 만남은 그녀의 삶의 터전을 한국으로 돌려놓았다. 정 트렌카가 친엄마를 처음 만난 것은 미국 대학을 졸업한 뒤인 95년. 친엄마는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때문에 생활형편이 어려워 생후 6개월인 그녀와 네 살 위인 언니를 미국으로 보냈다고 했다. 미국인 양부모는 자매가 친부모와 연락이 닿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등학생 때 우연히 우편함에서 친엄마 편지를 발견했고 모녀는 극적으로 상봉했던 것이다.

친엄마와 만남의 기쁨도 잠시, 엄마는 2000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정 트렌카는 이때 잠시 한국에 귀국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떨칠 수 없었다. 그래서 2005년 다시 돌아왔다. 자신처럼 불행한 입양아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 TRACK를 만들었다. 입양인이 친부모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권리’라는 소신에서다.

“미국에서는 아동 학대 등 부모가 문제가 있을 때 위탁가정에 입양되는데 이때 아이가 성장한 뒤 친부모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정 트렌카는 지난해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활동도 벌이고 있다. 입양의 법원 허가제, 입양 숙려제 도

입, 입양인의 알 권리 등 입양인 단체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개정안이다. 11일 입양의 날에는 TRACK와 해외입양인센터 '뿌리의 집' 이 함께 한·미·일 미혼모와 입양인이 참여하는 '제1회 싱글맘의 날' 기념행사를 연다.

출 처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5461477&cloc=olink|article|default

언 론 사

연합뉴스

보도일자

2011.05.04

제 목

〈사람들〉 미혼모, 입양아 돕는 김도현 목사
"미혼모 지원이 입양정책보다 우선...순서 잘못"
'제1회 싱글맘의 날' 행사 11일 개최

글 쓴 이

김효정 기자
(kimhyoj@yna.co.kr)



▲ 해외입양한인들의 쉼터인 '뿌리의 집' 원장 김도현 목사가 지난 2006년 5월 9일 오전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제1회 입양의 날 기념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자료사진)

"미혼모들에게 아이를 키울 권리를 충분히 확보해 주고 입양 대상이 되는 아동의 수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정책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해외 입양인 지원단체인 '뿌리의 집'(KoRoot) 원장 김도현(57) 목사는 입양의 날인 이달 11일 한국 미혼모가족협회와 함께 '제 1회 싱글맘의 날' 행사를 연다.

정부가 입양 활성화에 나서기에 앞서 어려운 현실에 처한 미혼모들이 편견에 시달리지 않고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 행사의 취지다.

김 목사는 4일 "미혼모들이 아이를 포기하는 이유는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라며 "국내외 입양 아동의 90% 가까이가 미혼모 가정의 아이인데 입양만 독려한다면 문제를 푸는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생각하는 우리 사회 입양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 태어난 그 자리에서 양육의 위기를 어떻게 풀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 목사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입양 기관이 운영하는 미혼모 시설에서 양육을 결심하는 미혼모 비율이 30% 가량이었던 반면, 양육을 지원하는 미혼모 시설에서는 80%에 달했다"며 "입양이 우리 사회에 이미 주어진 해답으로 존재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스위스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해외 입양인들과 만나고, 이후 영국 버밍엄대에서 입양을 주제로 논문을 쓰면서 우리 사회가 한 번도 입양을 보낸 어머니들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그는 말했다.

'뿌리의 집'은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는 입양 과정이 보다 신중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 최영희 의원과 함께 입법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최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입양특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김 목사는 "현행법은 해외 입양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허가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고 있는데, 국내외 입양 모두 가정법원의 허가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라며 "아동의 시민권 이동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권력에 맡겨 둘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어머니들이 한 달 정도 육아 경험을 한 뒤 충분히 사려깊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입양숙려제' 도입을 법안에 명시한 점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입양숙려제는 아동이 태어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부모가 입양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그는 인터뷰 말미에서 "보건복지부가 준비하는 TV 입양 광고는 '이 아이를 키워 달라'고 한국 사회에 부탁하는 거나 다름 없다"며 "미혼모들을 위해 양육이라는 선택지를 만들어주는 일이 바로 정부의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출 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046282>

언 론 사	여성신문	글 쓴 이	김효정 기자 (kimhyoj@yna.co.kr)
보도일자	2011.05.06		
제 목	해외 입양인 단체들 ‘제1회 싱글맘의 날’ 행사 열어		

해외 입양인 단체와 미혼모·한부모 단체 등이 모여 제1회 싱글맘의 날 행사를 연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 입양인 모임(TRACK)과 해외 입양인 센터 ‘뿌리의집’은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한부모연합과 함께 5월 11일을 ‘싱글맘의 날’로 정하고 미혼모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콘퍼런스를 연다.

콘퍼런스에는 ▲미국 입양인 출신으로 ‘피의 언어’라는 자전소설을 쓴 작가 제인 정 트렌카 TRACK 대표 ▲덴마크에 입양됐다 올해 고국으로 돌아온 엘리 박 소렌슨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일본 미혼모 모임을 이끌고 있는 싱글맘 아카이시 치에코 ▲미국에서 싱글맘으로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소냐 백달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한 미국 대사관 외교관 부인으로 미국 국내 입양인인 낸시 토클라 등이 참석한다.

5월 11일은 원래 정부가 제정한 ‘입양의 날’. ‘뿌리의집’ 원장인 김도현 목사는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미혼모들에게 ‘입양의 날’은 고통스러운 날”이라며 “이날 행사를 통해 미혼모들이 당당히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사회적 시선과 제도 변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2-3210-2451

출 처

<http://www.womennews.co.kr/news/49304>

언 론 사

재외동포신문

보도일자

2011.05.03

제 목

싱글맘을 위한 ‘싱글맘의 날’ 세미나 개최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 뿌리의 집 주최로

글 쓴 이

김미란 기자
(jinmeilan613@hanmail.net)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싱글맘 및 입양아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행사가 펼쳐진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과 ‘뿌리의 집’ 등은 공동으로 제1회 ‘싱글맘의 날’을 기념하는 국제 컨퍼런스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5월 11일 ‘가족의 재정의: 입양을 넘어 싱글맘 가족 권리 보호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미혼모 가족,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 한국 사회 입양문제의 해법을 모색한다. 행사 1부에서는 국내·해외입양에 관한 공식 입장-어제와 오늘, 당사자들의 목소리I-아이를 입양 보낸 엄마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이어 제1회 ‘싱글 맘의 날’ 기념행사와 미혼모가족을 위한 선물 전달식이 진행된다.

2부에서는 당사자들의 목소리II-국내·해외입양인들의 이야기와 아이 양육을 결정한 미혼모들의 이야기들이 전해진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응답을 4개 패널로 나누어 진행한 후 폐막한다.

행사에는 뿌리의 집 김도현 원장, 최영희 국회여성가족위원장, 조형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등 인사들 외에 국내외 입양인, 싱글 맘 등 많은 참가들이 참석한다.

주최 측은 “우리 주변에는 미혼모가족, 한부모 가족과 그들의 자녀들은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사회적 차별로 인해 상처 받고 외면당하고 있어 현재 미혼모 자녀의 약 87%가 입양 보내지고 있다”며 “이런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에 맞서 자신들의 자녀를 지키고자 하는 미혼모와 한부모들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이번 행사를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출 처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8751>

언 론 사	동아일보	글 쓴 이	제인 정 트렌카 (입양인·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 대표)
보도일자	2011.04.22		
제 목	[시론/제인 정 트렌카] 입양특례법 개정 올바른 방향은		

뉴욕에서 발행되는 잡지 ‘미국의 입양 가족’에 따르면 2009년과 2010년 사이 미국 양부모들이 한국 아동 한 명을 입양하는 데 지불한 비용은 평균 3만7586달러였다. 반면 미국의 위탁보육 아동을 입양할 경우 그 비용은 2744달러에 불과했다.

사회복지 벗어나 산업으로 변질

이런 상황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입양이 사회 복지적 본질에서 벗어나 소비자를 위한 산업으로 그 성격이 변질된 까닭이다. 쉽게 말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공급하려는 사람에게 기꺼이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사람을 위한 사업이 된 것이다. 미국인 양부모들은 미국 사회의 위탁보육 아동들이 대부분 다섯 살을 넘었기 때문에 입양할 경우 골치 아픈 문제가 많은 반면 한국 아동들은 그런 문제가 없는 데다 똑똑하고 건강하다고 믿어 왔다. 아동이 나이가 들면 가치가 폭락하는 셈이다.

미국 양부모들이 한국 아동의 입양을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는 미국 법체계가 요구하는 아동 인권, 즉 입양 아동의 친생부모에 대해 알 권리와 친생부모와의 교섭에 관한 권리를 지켜줘야 할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한국 아동을 입양할 경우 이런 부담에서 자유로운 것이다. 아이로니컬하게 한국 아동은 인권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선호되고, 미국 입양부모들은 미국 사회 내부의 위탁보육 아동보다 14배나 많은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는 것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91개 의안과 함께 입양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입양특례법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입양이 무엇인가 하는 입양의 개념 정립에 관한 것이다. 입양이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산업이 아니라 아동의 복리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진정성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입양으로 내몰린 한국의 아동들과 그들 친생부모의 인권을 옹호하는 일이란 결국 입양의 본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과 연관된다. 입양이란 친생부모와 아동의 뼈아픈 결별에 기초해 시작되는 일이라는 점에서 입양을 촉진하는 현재의 패러다임을 폐기하고 친생부모와 입양 위기에 노출된 아동이 결별하지 않고 함께 살아갈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 즉 친생가족 권리 보호를 정책의 핵심으로 다뤄야 할 것이다. 이는 입양법 개정안에 포함된 다양한 요구 사항, 즉 모든 입양은 법원을 통해 이루어질 것, 미혼모들에게 그들의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줄 것, 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지킬 권리를 지켜줄 것, 중앙입양원(가칭)을 설립해 입양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과 같은 조항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친생가족 권리 보호가 핵심

국회와 정부 관련부처가 입양특례법 개정을 추진해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루어

지게 할 것을 요구한다. 혹시 입양인들이 좀 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입양인들은 이미 60년 동안 정부가 무방비 상태에 있는 가족들의 권리를 지켜 주길 기다려 왔다고 말하고 싶다.

한국 아동들이 달러화로 교환되는 이런 부끄러운 관습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 이 같은 해외 입양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내 입양 활성화를 외치기보다는 친생가족 권리 보호를 통한 근원적인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국제규범일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태어나 해외로 입양된 우리 입양인들이 사랑하는 ‘다이내믹 코리아’에서도 이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땅히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출 처

<http://news.donga.com/3/all/20110421/36609789/1>

언 론 사

프레시안

보도일자

2011.05.10

제 목

우는 아이 달랜 스튜어디스, 선하고 아름다운 일의 그늘
[해외입양인, 말걸기]〈12〉입양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응답을 촉구한다

글 쓴 이

김도현 목사

(해외입양인센터 <뿌리의집> 원장)

단정한 머리맵시의 한 항공사의 스튜어디스의 등에 업혀 잠들어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담은 사진 한 장과 함께 '우는 입양아 업어 달랜 스튜어디스'라는 제목의 기사가 지난 달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거의 모든 일간지 인터넷판을 달구었다. 낯선 미국인 입양부모의 품에서 비명을 지르며 우는 아기를, 서울에서 로스엔젤레스로 가는 10시간 동안 안고 업고 토닥인, 마음 따뜻한 스튜어디스 두 분의 아름다운 선행에 관한 이야기였다. 잠든 아이를 업고 있는 머릿결 고운 승무원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웬지 모르게 짝한 마음과 함께 무언가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구토증 비슷한 것이 찾아왔다. 그것은 마치 쓰레기더미 위에 피어난 한 송이 꽃을 관상하고 즐거워하는 대신, 악취 나는 쓰레기더미를 치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울컥하는 심정 같은 것이었다.



▲ 인터넷에서 화제를 모았던 한 스튜어디스가 입양아를 업고 있는 사진. ©뉴시스

사실, 60년에 가까운 긴 세월 동안 실천되어 온 우리나라의 해외입양은 어떻게 보면 쓰레기더미 위에서 피어난 인간애로부터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6.25 직후에 한국에 와서 활동했던 미국 선교사가 서울의 아침거리의 청소수레에 실려 죽어 나가는 아동들을 목격하고 이를 미국 사회에 전한 선교보고활동이 미국과 한국에서의 홀트아동복지회 설립을 촉발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6.25가 끝나고 60년 세월에 가까운 오늘

우리가 아직도 쓰레기더미 위에 피어난 꽃에 대한 찬탄과 감상에 젖어 있다면 우리 사회는 분명 정신 나간 사람들의 사회일 것이다. 비록 쓰레기 때문에 꽃이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작 해야 할 일은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다. 항공사 승무원의 아름다운 모습 뒤에는 우리가 아직도 우리 땅에 태어나는 아동에 대한 성숙한 시민사회로서 마땅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어두운 현실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수년 전 베트남은 자국 아동의 미국 입양을 중단했다. 남미의 과테말라도 그랬고 아프리카의 소국 라이베리아도 그랬다. 동구의 가난한 나라 루마니아는 유럽연합의 거친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국 아동의 해외입양을 금지했다. 브라질에서는 아동을 입양하는 외국인, 그러니까 미국인과 유럽인들은 브라질에 입국해서 브라질 법정에 출석해서 아동입양을 승인받아야 출국이 가능하다. 중국의 경우에도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면 입양부모가 중국에 가서 입양아동을 데리고 가야 한다.

이번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도하의 우수한 일간지를 장식한 한 항공사 승무원의 선행에 관련된 경우, 미국인 입양 부모가 한국에 와서 아이를 직접 데리고 가는 경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아동을 그 나라까지 데려다 주는 나라이다. 입양산업에서는 이를 통상 에스코트라고 하는데, 좀 심한 말로 아동을 택배로 배달해주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입양기관들이 아동에스코트라는 이름으로 유럽과 미국을 여행하는 사람에게 항공권을 제공하고 아동을 입양국가의 공항으로 데려가게 하는 것이다. 입양기관의 에스코트 봉사자 모집에 관한 안내를 보면 이는 대단한 휴머니즘에 해당하는 일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이는 입양부모 그러니까 수요자의 최대편익을 보장하는 일에 다름이 아니다. 구매자의 불편을 감소시켜야 더 많은 물건을 팔 수 있는 원리가 거기에도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사실, 해외입양이든 국내입양이든, 이것이 지나치게 미화되는 일에는 경계가 필요하다. 입양은 친생가족과 아동의 결별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친생모는 평생 동안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으로 시달리며, 입양 아동은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일생의 과업에 노출된다. 성숙한 시민 사회라면 이런 결별을 감소시키는 일, 그래서 사회적 슬픔과 불안정성을 최소화시킬 줄 알아야 한다. 입양은 최소화를 추구할 때만 선한 가치이며, 결코 최대화를 도모할 일은 아닌 것이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자국내 친생가족의 결별로 인해 이루어지는 입양은 통계학적으로 거의 0에 접근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1년에 자국 내 친생가족의 결별로 인해 입양되는 아동이, 마약 중독이나 중범죄에 연루된 부모의 아동인데 그 숫자는 15 명이 안 되며, 네덜란드도, 덴마크도 스웨덴도 비슷한 상황이다. 거기에 반해 우리나라는 개인 간의 합의에 의해 민법상으로 이루어지는 입양이 2008년의 경우 년 간 3000여 명이 넘고, 입양기관을 통해서 국내외로 입양된 아동이 2300명을 상회한다. 우리가 G20의 의장국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유럽의 국가들에 비해서 산술적으로는 500~1000배, 인구 대비로 따지면 50~100배에 가까운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인 셈이다.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닌 일이 50~100배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친생가족이 함께 살아갈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어 이 땅에 태어나는 아동이 국내로든 국외로든 입양되는 일을 통해서 그 생의 첫걸음을 내딛는 일을 어떻게 하면 줄여 나갈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성숙하고 책임 있는 시민사회의 구성원 자격을 얻는 일 중의 하나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외 입양아동의 90%가 미혼모의 자녀인 것을 고려할 때, 미혼모와 그 자녀 역시 하나의 단위가족인 것을 인정하고, 사회경제적 곤경에 내몰려 있는 그들에게 필

요한 지원을 하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향한 사회적 편견의 감소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꽃의 아름다움에 취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 꽃이 핀 자리가 악취 나는 쓰레기 더미라면 누군가 나서서 그 쓰레기 더미를 치워야 할 것이다. 입양을 산업화해서 그 산업의 유지와 확대와 성장을 도모하는 기관 종사자들과 입양 아동 숫자의 최대화를 통해서 아동양육에 대한 정부차원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정책입안자들의 대오각성이 필요하고, 자신이 미혼모에게서 태어나는 줄 모르고 이 땅으로 도착하는 아동에 대해서 편견을 퍼붓는 우리의 잔인함과 야만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돌이켜 이 땅에 태어나는 아동을 출생신분과 사회적 배경에 상관없이 따뜻하게 맞이하는 환대의 공동체를 일구어 가야 할 것이다.

출 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10509110841

언 론 사

아리랑 TV 뉴스

보도일자

2011.05.11

제 목

Korea Celebrates 6th Adoption Day to Promote Domestic Adoption

글 쓴 이

오지현 기자

The Korean government designated May 11th Adoption Day in 2006 to boost adoption rates within the country.

And this year, some 1-thousand government officials, social workers and adoptive parents participated in a special event in Seoul.

[Interview : Lee Hwa-sup, Adoptive parent] "People worry that they might not be happy because adopted children are not related to them. But look, we're a very happy, loving family. When a beautiful child joins your family, it brings so much joy."

The government started a new service on Wednesday, connecting adoption agencies and parents seeking to adopt a child, which will provide more information for both sides. And, although it is important to raise awareness about adoption, some say it is equally important to help change society's perception of single mothers.

"May 11th was also chosen as Single Mom's Day, to raise public awareness about the connection between adoption and single mothers and the discrimination the women face."

Several Korean organizations, including TRACK and KoRoot, came together to organize 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ingle mothers and a special party where adoptees and women who gave up their children spoke up.

Supporters say there is a prejudice against single mothers in Korea and this is driving

up the number of children being given up for adoption.

[Interview : Kim Do-hyun, Director KoRoot] "More than 2,4-hundred Korean children were adopte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last year, with 90 percent of them from single mothers. We want to support women who decide to raise their babies alone."

Experts demand that the government revise its adoption law so that mothers have at least 30 days to decide before giving up their child.

They also argue that the mothers need more support and that stricter measures are crucial when assessing potential adoptive parents.

Oh Jee-hyun, Arirang News.

출 처

http://www.arirang.co.kr/News/News_View.asp?nseq=115841&code=Ne2&category=2

언 론 사

제주도민일보

보도일자

2011.05.10

제 목

아름다운 선택 ‘입양’의 슬픈 자화상
[입양의 날] 주변의 따가운 시선에 힘든 결심
도내 입양 점점 감소 관심 절실
지원책 미비 양육 권리 보장해야

글 쓴 이

오경희 기자
(noke342@jejudomin)

[입양의 날] 5월11일은 ‘1가구 더하기 1아동’ 입양의 날이다.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입양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

△가슴으로 낳은 사랑

김준희씨(55·여·가명) 부부는 7~8년전 두 아이를 가슴으로 낳았다. 부부는 연을 맺으며 자식은 낳지 말자는 약속을 했다. 부부는 이미 한 차례 결혼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김씨는 우연히 찾은 아동복지센터에서 만난 두 아이의 모습이 내내 머리에 서 떠나지 않았다. 후원금만 내밀고 돌아선 그날 이후 그녀는 내 아이를 남의 집에 맡기고 온 것 마냥 안절부절했다.

결국 부부는 ‘입양’을 결심했고, 예쁜 두 아이의 엄마·아빠가 됐다. 부부는 이제 7살·11살이 된 아이들을 보며 이 아이들의 부모가 되기를 망설였던 시간을 후회할만큼 행복하다.

하지만 부부 역시 입양 결심이 쉽지않은 않았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은 부부의 결심을 흔들었다. 김씨는 “주변에선 재혼 전 낳은 자식도 못 키우면서 입양한 아이는 어떻게 키우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졌다고 했다.

입양 후에도 부부를 조금 불편하게 하는 것 역시 입양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다. ‘핏줄’에 대한 인식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입양 가정’이라는 주변 시선에 혹여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하는 우려가 부부의 가장 큰 걱정이다.

△입양은 “어렵다”

입양을 고민하거나 결심하는 사람들은 “입양은 아름답지만 어려운 선택” 이라고 말한다. 입양에 대한 선입견에 입양 지원 여건마저 열악해 선택 결심을 하기 어렵다. 특히 제주 지역문화적 특성 탓에 입양이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저조하다. 공개 입양도 잘 이뤄지지 않는다.

제주도의 도내 입양아동 현황에서도 이는 잘 드러난다. 도내 입양아동은 지난 2007년 11명, 2008년 12명에서 지난해 5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지난 2000년 17명, 2001년 19명, 2002년 18명 등 2000년 초반 실적을 감안하면 최근 수치는 급감했다.

입양 감소에는 경기불황·여아 선호·사회적편견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그러나 가장 주요한 요인은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부족하다는 문제다.

현재 제주의 입양지원책은 정부 일괄 지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에서는 13세 미만 아동을 입양할 경우, 입양수수료를 면제하고 매달 10만원 상당의 양육 수당을 지급한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 입양 가정 보육료 지원 등을 제도화하고 있다.

입양을 돕는 교육 및 관련 기관조차 설립된지 25년여가 지난 홍익아동복지센터 단 1곳뿐이다.

아동복지센터 관계자는 “아동 입양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며 “아동 입양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고 밝혔다.

까다로운 절차도 입양 부모의 선택을 가로막는다.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미 이름이 올려진 아이를 입양할 경우 친양자 제도에 따라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입양기관의 친부모의 친권포기가 담긴 입양동의서를 제출해도 재판과정을 통해야만 아이의 성이나 이름을 바꿀 수 있다.

△ ‘싱글맘’ 에 양육의 권리를

입양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의식과 맞닿아 있는 치부다. 입양은 미혼모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암묵적 인식이 이를 방증한다.

전문가들은 입양 장려 이전에 미혼모의 양육의 권리를 보장하는 게 근본적 대안이라고 제시한다. 국내 입양 활성화나 입양법의 개선 보다는 정부가 근본적으로 미혼모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입양의날에 ‘싱글맘의날’ 이 열리는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계자는 “10대와 성인기를 막론하고 자녀를 양육하기로 결정한 미혼모들은 일정기간 자녀돌봄의 시간을 사회가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해 주는 분위기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출 처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10>

언론사
보도일자
제목

웹상

2011.05.17

‘싱글맘 병글맘 짹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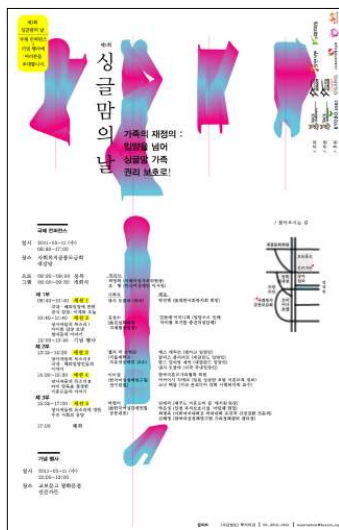
우리 사회를 향한 그들의 목소리, 제 1회 싱글맘의 날

글쓴이

강민경(인터넷 경향신문 대학생
인턴 기자) (baram.khan.co.kr)

흔히 가정의 달이라 일컬어지는 5월, 그 안에는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여러 날이 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까지. 그리고 올해부터 우리가 기념해야 할 날이 하나 더 생겼다. 바로 5월 11일인 ‘싱글맘의 날’이다.

5월 11일은 정부에서 제정하고 2006년부터 기념해오는 입양의 날이다.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해마다 큰 예산을 들여 국내입양 가정을 초청하여 기념식을 연다. 하지만 올해는 이전의 입양의 날과는 조금 달랐다. 입양의 날과 상반된 입장을 가진 ‘제 1회 싱글맘의 날’이라는 행사가 열렸기 때문이다.



▲ 제 1회 싱글맘의 날 기념 국제 컨퍼런스 웹 초청장
출처: 뿌리의집 홈페이지

서울 중구 정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에서 진행된 ‘제 1회 싱글맘의 날’은 정부 차원에서 입양을 홍보하기 위해 힘쓰기 보다는 입양을 보내기 직전의 아이들이 친생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자는 의미로 개최되었는데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이하 TRACK),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한부모연합 등 이미 해외로 입양간 사람들과 한국 사회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들이 나서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해외입양을 시작했던 6.25전쟁 직후에는 전쟁고아 등이 해외입양의 대상자였지만 세계 경제규모의 13위의 대국으로 성장한 현재는 해외입양아동의 약 90%정도가 미혼모의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싱글맘의 날에는 ‘가족의 재정의: 입양을 넘어 싱글맘 가족 권리보호로!’라는 주제로 해외 입양을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의 이야기 등 입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세션으로 구성된 국제 컨퍼런스가 진행되어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장 한편에는 이번 행사의 슬로건인 ‘싱글맘 병글맘 짹짹!’이 담긴 대형 현수막과 사회적 편견 속에 제대로 축하조차 받지 못했던 싱글맘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생일 케이크를 장식해놓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과 관심을 끌었다.

이날 행사는 TRACK 대표를 맡고 있는 미국입양인 제인 정 트렌카 씨의 주도로 기획되었다. 그녀는 미국에서 해외입양인으로서 자전적 소설 ‘피의 언어’를 발표해 미국 문단의 주목을 받고 있는 작가이기도 하다. 그녀를 만나 ‘싱글맘의 날’에 대해 더 들어보았다.



▲ 행사장에 마련된 생일 케이크 장식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었다.

— 왜 '싱글맘의 날' 기획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싱글맘의 날로 기념하기로 한 5월 11일은 정부와 입양기관이 기념하는 입양의 날이다. 그 날은 입양인을 위한 날이 아니라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날로 기념되고 있다. 그러면 국내입양 홍보라는 그 기조는 잘 지켜지고 있는가. 입양의 날이 제정된 이후 해외입양은 2005년 2,101명에서 2010년 1,013명으로 감소한 반면 국내입양은 2005년에



▲ 행사장에 마련된 생일 케이크를 자르는 모습 - 출처: 뿌리의집



▲ 싱글맘의 날 기념 행사 중 기자회견을 하려는 모습 (맨 우측이 제인 정 트렌 카씨) - 출처: 뿌리의집

초점을 맞추어 관심을 갖고 정책의

— '제 1회 싱글맘의 날'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이번 싱글맘의 날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입양인 모임 (TRACK), 해외입양인센터 뿌리의집, 한국미혼모가족협회 그리고 한국한부모연합이 함께 만들었다. 이번 행사는 '가족의 재정의: 입양을 넘어 싱글맘 가족 권리보호로!'를 주제로 한 국제컨퍼런스와 기자회견, 케익 커팅 행사, 싱글맘 아이들을 위한 선물 전달식으로 구성되었다. 그 중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국제 컨퍼런스였는데 우리사회가 입양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1,461명에서 2009년 1,314명으로 오히려 감소하거나 정부가 공들여 홍보하는 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결과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답은 입양이 아니라 바로 친생가족 보호이다. 현재 입양되는 아이의 약 90%가 미혼모의 아이들이다. 미혼모들은 자신들의 아이를 키우고 싶어한다. 하지만 사회적 시선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결국 아이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 사회가 이들을 보듬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이유로 싱글맘의 날을 기획하게 되었다.

— '싱글맘의 날' 기념 국제 컨퍼런스의 주제가 '가족의 재정의: 입양을 넘어 싱글맘 가족 권리보호로!'이다. 이 주제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

오랫동안 입양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해외입양, 국내입양, 친생가족 보호 순이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전문가와 학자들이 인정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순서는 친생가족 보호, 국내입양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입양순이다. 이 컨퍼런스의 주제를 통해 우리 사회가 입양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친생가족 보호에 변화도 이끌어내기 위한 주제를 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 이번 컨퍼런스와 그 안에 담긴 많은 세션들을 통해서 한국사회에 던지고픈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번 행사의 우리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싱글맘의 날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싱글맘의 아이들의 권리와 그들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입양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사회에

명확하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국내입양을 홍보하고 입양의 날을 기념하는 쪽에서는 ‘입양은 또 다른 모습의 탄생이다.’ 라고 말하지만 입양은 탄생이 아니다. 입양은 입양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입양의 단면적인 모습만을 보지 말고 실제 입양에 관련된 사람들 즉, 입양을 갓던 사람들의 이야기, 입양을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 등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조금 빡빡한 일정으로 입양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정부에서 홍보하는 입양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입양은 아픈 이별이 깔려있는 슬픈 일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해외입양이 아니라 싱글맘 엄마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 우리의 아이들을 사회에서 책임질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_ 향후 활동계획은 무엇인가.

개인적으로는 지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고 가을에는 서울대학교에서 행정, 정책 등을 공부할 생각이다. TRACK으로서는 올해 입양특례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더욱 더 열심히 일할 것이다.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 이라는 우리 단체명처럼 한국 사회에게 진실을 듣고 또 한국 사회와 화해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이런 노력은 과거와 현재의 입양 관례를 깨고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해결책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출 처	http://baram.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105171831092&code=810402
-----	---

언 론 사	KBS 생생정보통
보도일자	2011.05.02
제 목	#오늘의 시선-뿌리를 찾아나선 입양인
출 처	http://www.kbs.co.kr/2tv/sisa/livetong/vod/1715378_34220.html (로그인 필요)

언 론 사	KBS 생생정보통
보도일자	2011.05.03
제 목	#오늘의 시선-입양 최선인가? 대한민국 입양 현주소
출 처	http://www.kbs.co.kr/2tv/sisa/livetong/vod/1715593_34220.html (로그인 필요)

언론사	KBS 1 라디오 KBS 열린토론
보도일자	2011.05.10
제 목	5/10(화)입양의 날 기획 '국내외 입양실태와 개선과제는?' 제 2389회 열린토론 가정의달 기획 "국내외 입양 실태와 개선과제는?"
주 제	■ 출연자 (가나다순) ■ 김도현 _ 해외입양인지원센터 '뿌리의 집' 목사 변미희 _ 백석대 기독교복지학과 교수 윤성승 _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연희 _ 한국입양홍보회장
출 처	http://asx.kbs.co.kr/player.html?title=KBS%20열린%20토론&key=563&url=1radio\$ksopen_20110510.wma&type=300&chkdate=20110516131253&kind=aod (로그인 필요)

언론사	KBS 1 라디오 정보센터
보도일자	2011.05.11
제 목	▷ 열린마당-입양아 TV광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연희 회장(입양홍보회)
주 제	- 김도현 목사 (해외입양인센터 뿌리의 집) - 청취자 전화연결
출 처	http://asx.kbs.co.kr/player.html?title=라디오%20정보센터20&key=138&url=1radio\$rcenter_20110511.wma&type=300&chkdate=20110516130146&kind=aod (로그인 필요 / 재생시간 - 01:09:28-01:16:53)

입양특례법 개정을 위한 팸플릿

아동의 복리에 반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 * 입양특례법 개정활동 참여 단체
 -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TRACK)
 - 국외입양인 연대(ASK)
 - 한국미혼모가족협회
 - ‘민들레’ 부모회
 - 사단법인 뿌리의집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 입양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2010.5.11)
 - 최영희 국회의원(민주당)

‘입양특례법’¹³⁾, 왜 개정해야 하나?

통상 6·25 전쟁으로 시작되었다고 설명되는 우리나라 아동 국외입양은 알려진 바와는 많이 다르다. 6·25 전쟁 직후 5년 동안 국외로 입양 보내어진 아동은 1,228명에 불과하다.

이 숫자는 2008년 한 해 동안 국외입양된 아동의 수인 1,264명보다 적다.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선 오늘, 우리는 6·25 직후보다 5배나 많은 아동을 매년 해외로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낸 국외입양 아동이 지난 60년간 16만 5천명에 이르고 있다.

2009년에도 하루 평균 3명의 영아가 낯선 이의 품에 안겨 태평양과 아시아대륙을 횡단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이 아동들은 서구 입양국가들에서는 고아로 알려져 왔지만, 실상은 친가족 혹은 친척들과 함께 살고 있던 아이들이거나,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었다. 9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국외입양이든 국내입양이든 90%가 미혼모의 아이들이다. 미혼모에게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이 아이들이 입양 보내어지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없다.

그동안 입양에 관계된 당사자들이 받았던 아픈 상처들과 고통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이며, 60년간 지속되어온 입양제도의 오용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입양특례법 개정을 통해 다음 세대가 더 이상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13)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입양특례법’ 어떻게 고쳐야 하나?

1. 입양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입양촉진’ 보다 ‘친가족 보호’ 가 우선

GDP 순위 세계 경제 15위,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OECD 가입국 중 ‘해외입양’ 1위

이것은 대한민국 아동인권의 현재 모습이다. 2009년 미국에 입양된 아동의 출신국 중 한국은 중국, 에티오피아, 러시아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G20회의 개최의장국인 한국은 여전히 ‘아동수출대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아동이 ‘친가족’과 함께, ‘출생국가’에서 성장·교육 받을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국외입양은 불가피성이 입증될 경우에만 시행하는 최후의 선택이 되도록 해야 한다.

-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명칭과 목적 조항에서 ‘입양촉진’ 삭제
- ▶ 친가정(미혼모, 저소득층 가정)에서 아동이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 정책 강화
- ▶ ‘국내입양 우선추진제’ 도입 및 관리감독 강화
- ▶ 입양절차 상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과 ‘국제기준 준수’ 원칙 선언

2. 아동의 복리가 최우선되도록 입양절차 개선

현재 국내입양은 부모들간 합의와 신고만으로, 국외입양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해외이주 허가만으로 가능하다. 입양가정의 양육환경, 친부모의 입양동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아파트 선순위 분양 자격을 얻기 위해 입양을 악용하는 등 아동의 복리에 반하는 입양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많은 미혼모들은 아이를 낳기도 전에 친권을 포기하고 입양에 동의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 ▶ 양친될 자의 아동학대·가정폭력 등 범죄 경력, 약물·알코올 전력 등 요건 강화
- ▶ 아이 출산 30일 이후에 입양 동의를 가능하도록 ‘입양숙려기간 제도’ 도입
- ▶ 국내·국외 입양의 모든 절차에 가정법원의 허가절차 도입
- ▶ 입양아동의 인도는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결정 후,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도록 명시

3. 중앙입양감독원 설립

국내외 입양정보의 관리, 체계적인 사후서비스 시스템 구축, 입양절차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하여 중앙입양감독원이 국가기관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국외입양 중심으로 추진해 온 입양기관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입양기관을 관리·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재정적 독립이 필수적이므로 정부는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 입양기관의 입양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 부여
- ▶ 중앙입양감독원의 이사회 및 직원 구성시 입양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4. 입양인의 뿌리찾을 권리 보장

국외로 입양되었던 입양인들은 성인이 되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한국에 돌아오고 있으나 많은 입양인들이 뿌리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입양기관을 찾아가더라도 입양기록이 손실되었거나, 친부모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당하기 때문이다.

- ▶ 성인 입양인(만 19세)에게 입양 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 신청 권리 보장
- ▶ 친생부모가 원치 않더라도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이외 정보 접근은 가능하도록 하여 입양인의 알권리와 친생부모의 사생활보호 조화, 단 의료적 치료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
- ▶ 입양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입양기관 종사자의 비밀누설금지 의무 제한

5. ‘헤이그협약’ 과 ‘UN 아동권리 협약’ 에 부합하도록 입양절차 정비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입양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우리 국회는 ‘국제입양에서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 (헤이그 협약)의 비준동의안 제출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헤이그협약은 국가기관의 승인에 의해서만 국제입양이 진행되어야 하며, 입양 이전에 아동이 출생가정 및 출생국가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양절차가 이와 같은 국제법 기준에 부합하도록 입양특례법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입양특례법 개정을 지지합니다.”

시민사회의 각성된 힘으로 입양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이 법의 개정으로 입양 과정에서 종종 간과되기 쉬웠던 여성과 아동의 권리가 더 잘 보장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_박영미, 전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입양숙려제의 도입은 미혼모들의 양육에 대한 책임과 권리에 관해 한번 더 숙고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의 개정을 지지합니다.

_김혜영 박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입양인 당사자로서 이 법안의 개정작업이 입양인 주도로 이루어졌고 입양인 당사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_엘리 박 소렌슨,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입양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입양 관행을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입양에 관한 헤이그 협약의 정신에 맞추어 아동의 인권이 최우선되도록 선진화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_이양희, 유엔아동권리협약기구 위원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양인의 인권과 모성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이 법의 개정 취지에 동의합니다.

_권명애, 한국한부모연합 공동대표

중앙입양원은 입양에 관련된 불법적이고 부정적인 관행을 방지하고 입양인 및 그 가족의 권리와 행복을 보장하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

_조형, 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국내입양이든 국외입양이든 똑같이 법원의 허가제로 가자는 뜻에 찬동하며 이 법안의 개정
에 찬동을 표합니다.

_황필규 변호사, 세계한인변호사회 이사

—— 입양특례법 개정 촉구를 위한 해외입양인 성명서 ——

이 글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TRACK), 국외입양인연대(ASK), 공감(공익변호사그룹), 뿌리의집(KoRoot), 한국미혼모가족협회(KUMFA/미스맘마미아) 그리고 ‘민들레’ 부모회가 연합한 입양법개정연합(ARC : Adoption Reform Coalition)을 대표하여 최영희 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에 발의한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인도정신(引導精神)과 그 의미를 지지하는 해외입양인 학자들의 성명서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단체 연합과 최영희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국회의원들의 지지와 함께 지난 2010년 5월 11일 마련한 이 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아동 권리와 가족보호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폭넓은 노력의 한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은 UN아동권리협약의 주체로서뿐만 아니라 관련법 개정을 통해 아동권리와 가족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책무를 내포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동의안 제출촉구결의안(지난 2011년 3월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의 후속조치를 이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아동과 가족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동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와 같은 시민임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국적을 취득하고 친부모를 인지하고 친부모에 의해 보호되도록 하는 아동의 권리가 중심이 되는 가족 등록 시스템의 국제 협약의 준수를 지지합니다. (UN 아동권리협약 7조 참조)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물학 상(친가족과) 유사하고 문화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환경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시되며 양육되어야 함을 확신합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참조)

우리는 국내 아동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미혼모 아동 지원체계의 국가적 이행을 지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동의 사회적 위탁보호와 공개국내입양이 비공개 혹은 해외입양의 대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입양의 촉진 또는 촉하(입양의 날) 혹은 현재 입양법이 허락하는 관행에 의해 입증된 입양 가능한 아동의 사전홍보에 관해 비판적입니다.

우리는 미혼모 시설로부터 입양인을 위한 입양사후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입양기관들의 분리를 확고히 지지합니다.

우리는 입양은 법원이 감독해야 할 법적 문제이자 인권 이슈라 생각하며, 사적으로 운영되는 입양기관에 의해 규제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인도주의적 행위가 아니라 판단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의원님들께서 우리의 의견을 고려해 주시고, 커져가는 대중의 목소리(의지)를 인지해 주셔서, 국제사회에서의 리더가 되시길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입양 촉진과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 법률안의 통과를 만장일치로 지원해줄 수 있는 G20국가라는 명예로운 지위를 획득하셨기 때문입니다.

June 10, 2011

Adoptee academics, researchers & activists

1. Becky Belcore (US) Educating Korean/American and Korean diasporic communities nationally on Korean adoptee issues have included the following roles: Helping Adoptees Lead Together member; Executive Director and Board Member of Korean American Resource and Cultural Center; Korean American Women in Need (KAN-WIN); National Korean American Service & Education Consortium (NAKASEC) Board of Directors Member
2. Brian Belcore (US) Contributing researcher to "Korean Adoptees Share Koreanness: A Parenthesis of History" by Tammy Ko Robinson and Becky Belcore in Koreans In The Windy City, Editors Hyock Chun, Kwang Chung Kim, Shin Kim, East Rock Institute (2005); Contributing Programming Member of Camp Pride for Korean Adoptee high school age students in the US (2005-2009)
3. Edo Beukenhorst (BEL/ROK) Adoptee Solidarity Korea (ASK)
4. Kimberly Campbell (US/ROK) Deputy Editor, the Hankyoreh, Adoptee Solidarity Korea (ASK)
5. Marc Champod (SUI/ROK) MSW candidate, Seoul National University, Adoptee Solidarity Korea (ASK)
6. Jennifer Kwon Dobbs (US) Assistant Professor and Director of American Racial and Multicultural Studies, Saint Olaf College, Literature/Creative Writing/Asian American Studies. Editor for the Journal of Korean Adoption Studies (2011 Issue) and The Proceedings of the Second International Symposium on Korean Adoption Studies (2010). Columns and new stories based on present research on adoptee birth searches and unwed moms have appeared in Chosun Ilbo, Conducive Magazine, Gyeonghyang News, Hankyoreh, Korea Herald, Korea Times, Pressian, and Yonhap News.
7. Amy T. Ginther (Cho Mi Hyang) (US) BFA, Drama Performance, Magna Cum Laude, Hofstra University. Writer, Producer, Actor of "between," a one woman play about Korean-American adoption: produced in New York, Edinburgh Fringe, Seoul.

Educator and activist. Reunited with Birthfamily in 2004.

8. Boonyoung Han (DE/ROK) Graduate student, Soongsil University
9. Shannon Heit (US/ROK) MA candidate, Hanyang University
10. Tobias Hübinette (SWE) PhD Korean Studies, researcher at the Multicultural Centre and lecturer at Södertörn University. Author of and numerous publications on adoption including *Comforting an Orphaned Nation* (2006)
11. Jane Jin Kaisen (DEN) MFA, UCLA; MA, The Royal Danish Academy of Fine Arts; visual artist, filmmaker
12. Jae Kauffman (US) International Brotherhood of Electrical Workers Local 48, Adoptee Solidarity Korea (ASK) founding member
13. Mee Joo Kim (US/ROK) Adoptee Solidarity Korea (ASK)
14. Su-Yoon Ko (US/ROK) Adoptee Solidarity Korea (ASK)
15. Tammy Ko Robinson (US/ROK) Professor, Applied Arts, Hanyang University. Writing on adoption matters in South Korea spans twelve years and includes: MA thesis "Historical Wagers of Intercountry Adoption in South Korea" (1998) to most recently "Literatures of Korean Adoption" in the *Encyclopedia of Asian American Folklore and Folklife* (2010)
16. Julie Jong Koch (US/ROK) MSW, LISW; Adoptee Solidarity Korea (ASK)
17. Siri Lande (NOR) Actively educating herself and others in adoption issues since her first return trip to South Korea as an adult Korean adoptee from Europe in 1997 and since having served as a representative attendee to the Gathering of the First Generation of Adult Korean Adoptees, Washington DC 1999
18. Maja Lee Langvad (DEN) Writer, researcher international adoption from South Korea
19. Julayne Lee (US) Healthcare, Adoptee Solidarity Korea (ASK)
20. Mary Lee (US) Adoptee Solidarity Korea (ASK)
21. Leanne Leith (US) BA in Architecture, University of Washington. Core member, Truth and Reconciliation for the Adoption Community of Korea (TRACK) (2009-2010). Presenter, Global Overseas Adoptees' Link (G.O.A.'L) Annual Conference (2009). Artist, A collection of one (2010) installed at South Korea's National Assembly.
22. Mihee-Nathalie Lemoine (aka Cho Mihee) (BEL/CAN) Artist, Advertising Photography Studio Coordinator
23. Amanda Renee Kim Eun-Ja Silva Lowrey (US) PhD, Northwestern University; Co-founder of Chicago Korean Adoptees (2001-2005); Co-founding Member Helping Adoptees Lead Together (2004-present); current President Korean Adoptees of Hawai'i (KAHI). Served as a participant in numerous research studies on adoption issues, co-organizer for the KAHl Asian Adult Adoptee Gathering and Film Festival (2008), participant in both the Adoptee Gathering in Seoul (2004, 2010), planning committee member for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Associations (IKAA) Gathering 2010, and

presenter Korean Adoptee Adoptive Parent Network.

24. Allen Majors (US) Board of the Korean Adoptees of Chicago, Board of the Korean Cultural Center of Champaign-Urbana, Illinois, and member of Adopterade Koreaners Förening (Sweden). Presented at Korean American Adoptee Adoptive Family Network conferences, adult adoptee role model at "Jane Brown Workshops", addressed parents at HOLT picnics, facilitated discussions at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Associations conferences, and presented at Illinois Chinese Adopted Siblings Program. Am active in the adult adoptee community through conferences, networking, and learning more about adoption through historical and legal information as well as the power of stories.

Please be very clear that I mention my affiliations with these organizations strictly to present my involvement in formal adoptee organizations and adoptee interests. I am in no manner here attaching my support of the statement below in representing any of the aforementioned organizations. My support is limited solely from myself as an individual.

25. Kelsey March (US) Adoptee Solidarity Korea (ASK)

26. Cori McMillan (US) Helping Adoptees Lead Together member (2004-2011), Korean American Resource and Cultural Center Board of Directors (KRCC) Member (2009-2011); Korean American Adoptee Adoptive Family Network (KAAN) Conference Presenter (2007, 2009). Research areas include: adoptee rights, adoptee parenting concerns, and solidarities between adoptee parents and birth mothers

27. Lene Myong (DEN) PhD, Assistant Professor, DPU, Aarhus University

28. Anders Riel Müller (DEN) MA, Roskilde University, Denmark; Contributing Member Adoptees of Color Roundtable (2010-2011)

29. Jenny Na (US/ROK) Deputy Editor, Korea JoongAng Daily, Adoptee Solidarity Korea (ASK) founding member

30. Jacob Ki Nielsen (DEN) PhD Candidate, University of Copenhagen; research focus is on multiculturalism in South Korea, Korean media and on topics and issues related to international adoption particularly in the case of South Korea

31. Mads Nielsen (DEN/ROK) Doctoral candidate English literature, Sogang University

32. Ross Oke (US/ROK) Director of Administration of TRACK

33. Joo Ae Shin (US) MA candidate, University of San Francisco

34. Eli Park Sørensen (DEN/ROK) PhD,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Liber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Focus: Postcolonial Studies, Korean Adoption Literature

35. Kim Stoker (US/ROK) MA, Full-time Lecturer, Duksung Women's University; Adoptee Solidarity Korea (ASK) Representative

36. Tammy Chu Tolle (US/ROK) Filmmaker, ASK founding member

37. Jenny Town (US) Master of International Affairs,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International Public Affairs. Research areas: Human Rights, Women's Rights, South Korean adoption and social welfare policies, North Korea, Nuclear safety and security

- 38. Molly Townsend (US/ROK) Adoptee Solidarity Korea (ASK)
- 39. Jane Jeong Trenka (US/ROK) President of TRACK, author
- 40. Maya Weimer (US/ROK) MFA UC Irvine; Video/Media Artist; Professor, English Dept., Dongguk University. An internationally exhibited artist, she has been involved in the international adoptee community as an artist, researcher and activist for more than a decade. Her focus is on transnationalism, migration, globalization, trauma, gender, ethnicity/race, and cultural studies

Adoption scholars & researchers

- 41. Joemy Ito-Gates (US) Founder & Director of FUSION: A Summer Program for Mixed Heritage & Transracially Adopted Youth
- 42. Eleana Kim (US) PhD, Assistant Professor of Anthropology, University of Rochester, Rochester, NY, Cultural Anthropologist; Transnational Adoption Studies
- 43. Merete Laubjerg (DEN) MPH, University of Copenhagen; Public Health advisor, researcher, research focus: adoptees health compared to non-adoptees in the host country
- 44. Richard M. Lee (US) PhD, Associate Professor of Psychology, University of Minnesota; research focus on the role of race, ethnicity, and migration on the development and mental health of internationally adopted individuals and families

Signed, June 2011

/메키 벨코어 외 43인의 해외 입양인 학자

———— 입양특례법 개정 법률안(2011.6.29 국회 통과)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2414
----------	-------

제안연월일 : 2011. 6. 28.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상정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1808453	최영희의원 등 13인	‘10.5.12	‘11.4.12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93	김종률의원 등 18인	‘09.9.22	‘09.11.20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103	이애주의원 등 17인	‘10.4.7	‘11.4.12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473	정부	‘10.12.31	‘11.6.13

위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0) 및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1. 6. 22)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1개의 법률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아동의 복리를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태어난 원가정에서의 양육과 보호라고 할 수 있으며, 헤이그협약에서도 아동이 출생가족과 출신국의 보호 하에 있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해외입양은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제명에서부터 아동의 ‘입양을 촉진’ 하고, 이를 위한 ‘입양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현실과 법률 간의 괴리가 큰 실정임.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촉진’ 하고 절차를 ‘간이화’ 하려는 구시대적 관점을 탈피하여 아동입양의 절차 전반이 아동의 복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최선의 아동 보호는 출신가정과 출신국가 내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 패러다임으로 국가 입양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의 허가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친생부모에게 양육에 관한 충분한 상담 및 양육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모의 직접 양육을 지원하며, 아동의 출생 후 1주일이 경과한 후에 입양동의가 이루어지도록 함. 아울러 양자가 된 자 등에게 자신에 대한 입양정보 접근권을 부여하고, 국내입양의 우선 추진 의무화 등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법률의 제명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입양특례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 나. 이 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의뢰 된 아동의 양친될 자를 국내에서 찾기 위한 시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입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의뢰 된 아동의 양친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조치를 하고 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게 하며, 이러한 조치 및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조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양친이 될 자를 찾지 못하였을 경우 한하여 국외입양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라. 양친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을 아동학대·가정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는 자로 강화하고,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안 제10조).

- 마. 이 법에 따라 입양을 하려는 자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하도록 함(안 제11조).
- 바.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를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 이루어지도록 하고, 입양동 의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대가적 급부가 없어야 하는 등 동의의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입양요건을 갖추도록 함(안 제13조).
- 사.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의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도록 함(안 제14조).
- 아. 양친, 양자, 검사는 양친이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활성화 및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중앙입양원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중앙입양원은 입양아동·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26조).
- 차.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자는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36조제1항·제2항).
- 카. 친생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및 양자된 자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상의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3항).

법률 제 호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입양특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入養)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부양의무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등의 책무)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제4조(입양의 원칙) 이 법에 따른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입양의 날) ①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하고, 입양의 날부터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입양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국가는 입양아동등에 대한 사후서비스 제공과 국내 입양 활성화에 필요한 정보를 입양기관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은 법인이나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국내입양 우선 추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의뢰 된 아동의 양친될 자를 국내에서 찾기 위한 시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입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의뢰된 아동의 양친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입양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국내입양을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양친을 찾지 못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통하여 국내입양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입양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양친이 되려는 자를 찾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국외입양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국외입양의 감축) 국가는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외입양을 줄여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입양의 요건 및 효력

제9조(양자가 될 자격)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될 사람은 요보호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사람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에 보호의뢰한 사람
2. 부모(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사람
3.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
4. 그 밖에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

제10조(양친이 될 자격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친(養親)이 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 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4.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5.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추는 것
- ②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

제11조(가정법원의 허가) ① 제9조에서 정한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
2. 제9조 및 제10조의 자격을 구비하였다는 서류
3.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입양동의 서류
4.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양친이 될 자의 입양의 동기와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이를 발급하되,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절차, 심리 및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입양의 동의) 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자로 하려면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부모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② 부모가 제1항 단서의 사유에 의하여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제9조제2호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자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호의뢰 시의 입양동의로써 입양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 ④ 13세 이상인 아동을 입양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동의권자의 동의 외에 입양될 아동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는 제11조제1항의 허가가 있기 전에

는 철회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양의 동의 또는 제5항에 따른 입양동의의 철회는 서면으로 하며,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입양동의의 요건 등)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입양동의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양기관은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입양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입양의 법률적 효력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입양기관은 제12조제4항에서 정한 입양동의 전에 입양될 아동에게 입양동의의 효과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입양의 효과)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제15조(입양의 효력발생) 이 법에 따른 입양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입양의 취소) ① 입양아동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입양의 취소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가정법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제17조(파양) ① 양친, 양자,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2. 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

② 가정법원은 파양이 청구된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 입양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파양의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가정법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제18조(국내에서의 국외입양) 국내에서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양자로 하려는 외국인은 후견인과 함께 양자로 할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양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

2. 양자가 될 사람이 제9조의 자격을 구비하였다는 서류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

4.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입양동의 서류

제19조(외국에서의 국외입양) ① 외국인으로부터 입양알선을 의뢰받은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알선을 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해외이주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외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 거주하는 아동을 입양하기 위하여는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양자가 될 사람이 해외이주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입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그의 대한민국 국적을 말소할 것을 등록기준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허가서를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양자로 될 사람이 미아이거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람인 경우
2.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3. 입양을 원하는 국가가 대한민국과 전쟁상태 또는 적대적인 상태에 있는 국가인 경우

제3장 입양기관 및 중앙입양원

제20조(입양기관) ①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입양만을 알선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은 입양기관의 장이 될 수 없다.

④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입양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을 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입양기관의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과 허가 및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입양기관의 의무) ①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의뢰된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 등 직계존속을 찾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을 알선할 때 그 양친이 될 사람에 대하여 제10조에서 정한 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 ③ 입양기관의 장은 양친이 될 사람에게 입양 전에 아동양육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입양이 성립된 후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 등을 양친 또는 양친이 될 사람에게 건네주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업무의 효율 및 입양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입양아동과 가족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입양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양기록은 전자문서로서 기록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서 정한 입양업무에 관한 기록은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 ⑦ 제4항에 따른 정보의 범위 및 내용과 제5항에 따른 입양기록 및 전자기록의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입양기관의 장의 후견직무) ①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을 알선하기 위하여 보장시설의 장, 부모 등으로부터 양자될 아동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그 인도받은 날부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그 아동의 후견인이 된다. 다만,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법원이 이미 후견인을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양자로 될 아동을 인도한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 다만, 친권자가 제12조제5항에 따라 입양의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23조(가족관계등록창설) 입양기관의 장은 양자될 아동을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계받았을 때에는 그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창설절차를 거친다.
- 제24조(입양알선이 곤란한 자 등의 보호) ① 입양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제9조제2호에 따라 보호의뢰된 사람으로서 입양알선이 곤란한 사람
 2. 이 법에 따른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보호자가 입양기관에 보호를 요청한 사람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0조의 따른 보호조치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 제25조(사후서비스 제공) ①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입양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한 관찰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
 2.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
- ② 입양기관의 장은 해당 국가의 협력기관을 통하여 입양아동이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중앙입양원 원장을 통하여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입양기관의 장은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하여 모국방문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중앙입양원의 설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활성화 및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중앙입양원을 설립·운영하여야 한다.

- ② 중앙입양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 ③ 중앙입양원을 설립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중앙입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양아동·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2.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
3.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4.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 ⑤ 중앙입양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중앙입양원의 임직원 등) ① 중앙입양원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② 중앙입양원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 ③ 중앙입양원 원장은 중앙입양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④ 중앙입양원 이사장은 원장을 겸임한다.

- ⑤ 이사, 감사 및 직원에 대한 임명절차 및 임기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비용보조) ① 정부는 중앙입양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중앙입양원 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입양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입양원에 제공된 자료는 제26조제4항에서 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30조(중앙입양원의 지도·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입양원을 지도·감독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입양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앙입양원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복지 지원

제31조(아동의 인도) ① 입양기관 또는 부모는 법원의 입양허가 결정 후 입양될 아동을 양친이 될 자에게 인도한다.

② 국외 입양의 경우 아동의 인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32조(비용의 수납 및 보조)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으로부터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친이 될 사람에게 제1항의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3조(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4조(사회복지서비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5조(양육보조금등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운영비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수급품 외에 가정위탁보호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의 지급과 제2항에 따른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가정위탁보호비용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입양아동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제36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때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 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

부모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정보공개의 청구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신청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비밀유지의 의무)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입양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장 지도·감독 등

제38조(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소관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양기관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나 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9조(허가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입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20조제6항에 따른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 제13조제3항·제4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양의뢰 된 사람의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행정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40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2조(민법과의 관계) 입양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중앙입양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 제18조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을 행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 알선 업무를 행한 자
3. 제3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②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 없이 허가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입양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된 재단법인 중앙입양정보원은 이 법에 따른 중앙입양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중앙입양정보원에 속하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른 중앙입양원이 포괄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중앙입양정보원의 명의를 이 법에 따른 중앙입양원의 명의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중앙입양원에 포괄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중앙입양정보원의 직원은 이 법에 따른 중앙입양원의 직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아동보호가정에 대한 지원) 법 제2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외에 추가로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입양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요보호아동(要保護兒童)을 입양한 가정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입양특례법

③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④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4조의 제목 및 본문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입양특례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주최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TRACK)
뿌리의집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한부모연합

후원

교보문고
주식회사 오상
부스러기사랑나눔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미앤미 케익 전문점

기부자

컨퍼런스 기부자

익명
호프 램버트 Hope Lambert
다니엘과 케빈 오스트-발머스 Danielle and Kevin Ost-Vollmers
민들레, 스웨덴
익명
카산드라 안트완 Kasandra Antoine
곽선화
김길자
백창기
조경숙

미혼모 가족을 위한 선물 기부자

김애숙(입양 후 이름은 트리쉬 타주그 Trish Tazuk)
레미 데베스 Remi Debesse
멜라니 두츠 Melanie Duch
제니퍼와 제프리 콕스 Jennifer and Jeffrey Cox
할트 HALT
엘리자베스 데이비스 Elizabeth Davis
정승호
셀라 키분 페이트 Sxela Kiboon Pate
조 트램블레이, 다이안 카셸, 에밀리 카셸 Joe Tremblay, Diann Cashell, and Emily Cashell

미카 스웨이어스 Mica Swyers
 마리아 로콘소로 Maria Loconsolo
 인도에서 온 친구
 줄리 조, 짐 리와 소나 조-리 Julie Cho, Jim Lee and Sona Cho-Lee
 입양인
 장경달
 박창호
 닉 레쉬리 Nik Leschly
 익명
 이 아브라함 Abraham Lee
 사라 김 란돌프 Sarah Kim Randolph
 마이클 맥컬리 Michael McCauley
 마이클, 미셸, 해리어트 & 테오 리(입양인) Michael, Michelle, Harriet & Theo Lee
 안 앤더슨(덴마크 이름)/안미선(한국 이름) Ahn Andersen(덴마크 이름)
 안나 플로라 앤더슨(덴마크 이름)/안나-선(한국 이름) Anna Flora Andersen(덴마크 이름)
 조안 타베스 Joan Taves
 마지 퍼쉬드(입양 부모/ 워싱턴 DC Korean Focus 공동설립자) Margie Perscheid
 이군택
 크리스티 브라이언 Kristi Brian
 쉐넌 하이트 Shannon Heit
 루아나 먼 Luana Munn
 킬, 에이미, 이안 진별 파테인 Kyle, Amy, and Ian JinByul Partain
 아니타 소니 Anita Soni
 이유미

TRACK의 매월 후원자

고은지
 김대업
 김병수
 김성수
 김중수
 그랙 페냐 로드리게스 Greg Peña-Rodríguez
 낸시 토클라 Nancy S. Tokola
 노혜련
 류기홍
 모선영
 목경화

박상희
박석현
변경섭
신연숙
우승혜
이은정
이정은
이훈구
장동주
표영숙
현근수
최ㅇㅇ
최형숙

특별히 감사드릴 분들

앤디 마라 Andy Marra
몰리 조 Molly Cho
최상지
예스 에릭슨 Jes Eriksen
알리스 플리커트 Alice Flikweert
린다 그레고리 Linda Gregory
이삼돌 Tobias Hübinette
황정인
김호수
김태문
임병해
동국대학교 싸이프 SIFE
김도현
공정애
김두연
강민경
제니퍼 권 돕스 Jennifer Kwon Dobbs
리엔 리스 Leanne Leith
멜리사 밀러 메나드 Melissa Miller Menard
지니 모더먼 Jeanne Modderman
리쉬카 머시 Rishika Murthy
오기출
로스 옥 Ross Oke

세라 박 Sarah Park
신주애
신순봉
탐스 미리암 계연 Mirjam Kye Yun Tams
낸시 토클라 Nancy S. Tokola
정경아 Jane Jeong Trenka
손야 벅달 Sonja Vegdahl
미셸 리 Michelle Lee
줄리안 비온티노 Julian Biontino
태미 고 로빈슨 Tammy Ko Robinson
김성수 Steven Kim
새넌 하이트 Shannon Heit
최우석
앤디 마라 Andy Marra
에밀리 안 레비 Emily Ahn Levy
조형
최영희
탁연택
민들레부모회 Mindeullae
엘리 박 소렌슨 Eli Park Sorensen
이미정
박영미
임애덕
박은성
최병옥
김혜영
신수진
임미진
아카이시 치에코 Akaishi Chieko
권희정
김상준
김병주
전진희
진소라
이혜미
박은경
천은지
임수현
신재현

임혜리
최진
이효선
김소연
성주영
정민석
김미영
김은영
서기산
이정흔
장지영
이지은
이미루
서기성
조현아
강이레
이새미